Daily The Korea Times Toronto

No. 815 1982년 5월5일(수) 1025 DUPONT ST. TORONTO, ONTARIO M6H 1Z7 (416) 533-2361~4 Wednesday, May 5, 1982

한국일보 토론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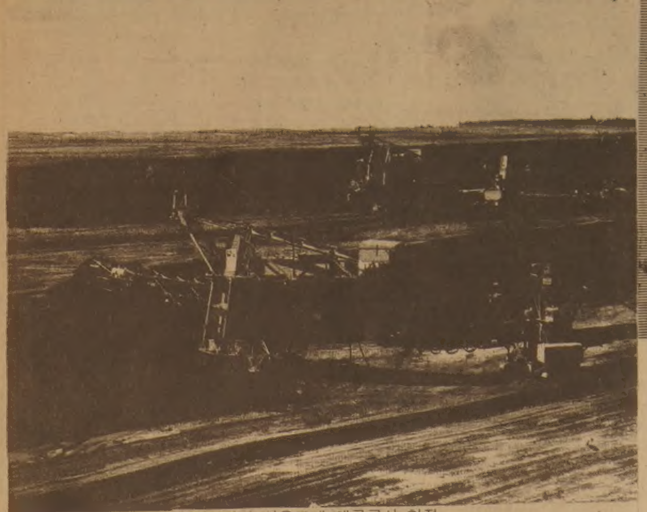
토론토발행인: 김 명 규
편 집 인: 이 석 현
인 쇄 인: [illegible]
광고부장: 송 광 호

MAY 5 1982
EAST ASIAN LIBRARY
UNIVERSITY OF TORONTO LIBRARY
130 St. George Street
TORONTO, CANADA M5S 1A5

석유모래채굴·송유관설치 취소

앨버타붐 사라질듯

연방정부 경제정책 재검토 시급


◆캘거리의 석유모래 채굴공사 현장

(오타와)연방정부는 경기회복을 위한 큰 전환점이 될 것으로 믿고 있던 대규모 앨·샌즈(앨버타주 모래석유 채굴사업)계획과 얼래스카 하이웨이 천연가스 송유관 설치계획이 취소됨으로 전반적 경제정책을 재검토해야되는 위기에 직면했다.

미국계 석유재벌인 쉘·캐나다와 걸프·캐나다의 양대 석유회사들은 지난 31일 북부 앨버타주 포트·맥머리지방의 석유모래에서 하루 137,000배럴씩 생산하려던 150억달러 규모의 채굴계획을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또한 이날 $4백억규모의 얼래스카 하이웨이 천연개스 송유관 설치사업을 계획중이던 미국계자본주들이 사업을 2년간 연기한다고 발표, 연방정부로서는 같은 날 2개의 큰 계획이 취소되는 타격을 겪었다.

연방정부는 두가지 사업으로 침체일로를 겪고 있는 캐나다 경제를 부흥시킬 것으로 크게 기대했었다.

얼마전만해도 정부는 앨샌즈사업으로 3만5천개, 얼래스카 송유관설치로 12,000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현재 캐나다의 실업자수는 거의 120만명선이다.

앨샌즈 계획에만 60억달러어치의 용역을 현지에 유출할 것으로 기대했던 이번 계획취소로 온타리오주는 주내 트럭운송업·사무용기제조업·제련업소·제조업계가 특히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앨버타주의 피터·록히드 수상은 앨샌스계획의 붕괴는 대규모 계획의 종말을 고하는 신호라고 볼 수 있다면서 "지금은 대규모 계획의 시대가 아닌 것 같다"고 이날 기자회견에서 밝혔다.

연방정부는 앞으로 고용창출및 투자가들에 대한 세금특혜부가로 경제부흥의 방향을 돌릴 것으로 보인다.

쉘과 걸프회사는 연방정부와 앨버타정부가 최후순간까지 좋은 조건을 내밀었음에도 불구 앨샌즈 철수를 번복치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어린이 학대는 하늘 거역”

세계 최초의 한국「어린이 날」

(서울4일=연합) 한국은 올해 5월5일로 60주년째의 어린이날을 맞았다. 어린이날은 현재 한국에서 법정공휴일로 되어있다.

세계 여러나라에서 어린이날을 제정 기념하고 있지만 한국판 어린이날은 특별한 주목을 받을만 하다.

아동문학 평론가이며 단국대교수인 이재철씨는 「어린이날의 기원과 그 정신」이라는 제목의 논문에서 한국인은 세계 어느 민족보다 인간으로서 어린이의 권리를 생각하는데 30여년 앞섰다고 주장했다.

일반적으로는 스웨덴의 교육가 엘레노키가 1900년 「어린이의 세기」라는 그의 저서에서 어린이의 권리를 처음 언급한 사람이라고 알려져 있다. 그리고 1924 년 천도교 교주였던 최시형에 의해 어린이의 권리가 주장되었으며 최는 그 당시 저서에서 "어린이를 때리는 것은 하늘을 거역하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인간은 하늘이다"라는 천도교 근본교리에 따라 천도교산하 어린이회는 1922년 5월1일을 처음 어린이날로 기념했다.

그후 즉시 어린이운동협회가 결성되고 1923년에 5월1일을 어린이날로 제정했다.

이교수는 한국에서 어린이날을 제정한 동기는 다른나라에서처럼 단순히 어린이의 권리를 존중하고, 복지를 증진시키는 이상이라고 설명했다.

어린이날은 1927년 5월1일에서 5일로 옮겨졌다.

포크랜드 분쟁

알젠티나함정 침몰, 919명실종

영국 상륙준비 완료·「알」군 긴장

침몰된 알젠티나 제2의 거함 제너럴·벨그레이노의 구출작업에도 불구하고 4일현재 1042명의 수병가운데 123명만 구출되고 919명이 실종됐다.

알젠티나 군사당국은 순양함 제너럴·벨그레이노호는 영국이 선언한 포클랜드 주위 200마일 봉쇄선밖인 55km지점의 공해상에서 침몰됐다고 발표했다.

알젠티나 외무성은 벨그레이노호가 침몰된 직후 구출작업을 펼쳐 3일밤 10시까지 123명을 구출, 남부해안병원으로 후송했다고 밝혔다.

영국 국방성이 구출작업을 펴는 알젠티나 함정은 공격하지 않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알젠티나 해군제독 죠지·이사은 "벨그레이노호의 손실은 희생의 본보기이며, 계속 전쟁은 펴겠다는 우리의 결의를 확인시켰다."고 말했다.

전쟁 3일째 접어든 이날 포클랜드의 영국계 주민 11명이 영국비행기의 공격에 살해됐다고 알젠티나 텔람통신이 보도했다.

정통한 소식통들은 영국의 주함대가 포클랜드섬 80km까지 접근, 대상륙작전이 임박했다고 전했다.

영국의 핵잠수함 콩쿼러(정복자)호는 포클랜드밖 370km지점에서 대순양함어뢰를 발사, 영국함정들을 위협하던 벨그레이노호를 격침시켰다고 영국국방성은 발표했으나 알젠티나 군사대변인은 "영국이 그들 스스로 선포한 200마일존 밖의 군함도 공격, 전쟁을 확대하고 있으니, 이제는 우리도 어디서나 영국군을 공격하겠다"고 단호히 말했다.

영국의 호화선 퀸·엘리자베드 2호가 3000명 영국보병을 포클랜드에 추가 상륙시키고 5500명의 영국 상륙단이 이미 각 함정에 배치됐다는 보도가 있는 가운데 포클랜드에 주둔한 9천명의 알젠티나 병사들은 바짝 긴장하고 있다.

침몰된 알젠티나순양함 제너럴·벨그레이노

캐 나 다
외환은행
364-2890
2 FIRST CANADIAN PLACE SUITE 1140

음주운전 형사법 위헌소송후 패소

(오타와)음주운전으로 기소됐던 한시민이 형사소송법중 음주운전조항이 위헌이라고 제소했다 망신당했다.

온타리오주민 로버트·케이(33)씨는 음주운전으로 6개월징역형을 받은후 위헌소송을 벌였으나 온타리오대법원은 이유없다고 기각했다.

영국, 포클랜드와의 교신 캐나다 통신망 이용키로

(오타와)캐나다는 포클랜드군도 근해의 영국함대와 영국본국과의 교신을 위해 영국이 캐나다동해안의 군사통신망을 이용하도록 허가했다.

맥기건 외무장관은 3일 영국정부가 보조시설로 캐나다 통신망을 사용하기를 원했으며, 영국은 통례적으로 캐나다 군통신망 가졌다고 말했다.

영국은 캐나다와 나토(NATO 북대서양조약기구)로 맺어진 맹방이나 나토는 북대서양지역에만 적용된다.

맥기건장관은 캐나다는 그밖의 다른 군사원조요청도 고려할 준비가 돼있으나 포클랜드와 거리가 보다 가까운 미국이 군수물자원조를 약속한 현재로서는 영국이 캐나다에 원조를 요청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캐나다미인대회 TV한국 방영

「TV한국」은 이번주 지난 4월24일 다운타운 홀리데이·인에서 있었던 미스코리아선발대회 실황을 특별방영한다. 진으로 당선된 함양은 오는 15일 서울에서 열리는 본선에 출전한다.

「TV한국」의 방영스케줄은 매주 목요일[ ] 12-12시30분, 금요일밤 11시-11시30분 MTV(채널 47, 케이블 4)에서 방영한다.

OHIP보험료 인상될듯

가족당 $56, 독신 $28로

온타리오주정부가 의사협회인 OMA(Ontario Medical Association)과 합의한 진료비인상을 추진하는 데 드는 추가경비 2억천8백만달러를 마련하기 위한 OHIP(온타리오주 건강보험) 프리미엄을 올릴 경우 독신자 월 $28, 가족은 $56, 각각 $5, $10씩 오르게 된다.

3일 주의회에서 데이비스·월런 주수상은 오는 5월13일 예산안에서 보험료 인상이 포함될지 여부는 [illegible] 말했고 재무상 프랭크·밀러는 회의에 불참, 확인되지는 않았으나 전문가들은 주정부가 보험료를 인상할 것으로 대체로 보고 있다.

지난 주말 온타리오주정부가 파업으로 강경히 맞섰던 OMA와 극적으로 이룬 타협안대로 앞으로 3년간 41.1%의 진료비 인상을 실현하려면 작년도의 $13억보다 $2억천8백만달러가 더 필요하다.

오늘의 예금금리 (4월23일 부터)

종별	기간	신용조합	일반은행
정기예금	30일	14.5%	13~13.5%
	90일	15.25%	13.75~14.5%
	180일	15.5%	13.75~14.75%
	365일	15.75%	14.75~15.25%

보험이 보장하는 한인신용조합 ☎: 533-9387~8

10월1일을"승공의 날"로

승공문화협회 일부임원 확정

지난 4월7일 토론토한인회관에서 창설된 승공문화협회(회장 이근우)는 일부임원을 선정, 나머지 부서의 적임자들을 물색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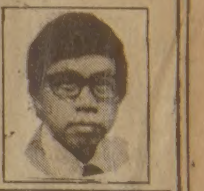
정관작성을 서두르는 한편 사업계획을 짜고 있는 동협회는 교포2, 3세를 위한 모국어 습득운동을 통해 반공사상을 북돋고, 모국의 아름다운 정신적인 면을 배양할 것을 사업중 비중 큰 것으로삼고 있다.

한편 모국 국군의 날인 10월1일을 "승공의 날"로 제정, 범교민적 반공의식을 고취하고, 민주우방의 반공단체들과의 유대공동행사등 계획도 구상중이다.

5월3일 현재 확정된 부서는 아래와 같다.

회장: 이근우
부회장: 함병섭
사무총장: 김춘탁
총무부장: 구진모
사업·홍보·섭외·부녀부는 미정.
자문위원: 박광철·곽정열·김춘탁·함병섭·이근우·구진모.
정관기초위원: 강신봉·곽정렬·이근우·함병섭·김정운·김진형·김문언.

은하 보석상
ROLEX
가장믿고 살수있는
「로렉스 지점판매 대리점」
B) 534-7791, 534-9977
620A BLOOR ST. W.

SUNLIFE
백 용 빈
생명보험, 주택보험
R. R. S. P.
사업보험, 각종보험

B) 497-3800
R) 284-9052

미도파 백화점
454 BLOOR ST.W
(B) 536-1692
(R) 245-[illegible]

강학수 종합보험

Canada Life 15년근무
상점보험, 생명보험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R. R. S. P 은퇴연금
B) 868-0922
R) 622-5147

마야 미용실

개 업 일 : 1982년5월1일 개업 인사 및 특별 봉사 오전9시~오후8시(일요일만 쉽니다)

교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번 저희가 블로아에 미용실을 새로 개업하고 여러분을 모시고 특별봉사로 성심 성의껏 모시고자 하오니 한번 꼭 찾아 주시면 더없는 영광으로 모시겠읍니다. 감사합니다.

세일기간:5월초~6월말까지 (2개월간)

HAIR 부 문
* 캇트, 파마및 스타일 $25 & up
* 캇트 및 스타일 $9
* 샴푸 및 스타일 $8
* 머리염색 $12 & up
※머리가 상하신분 또는 헤어스타일에 항상 불만스러워 하시는 분은 한번나와 주세요.

MAKE UP 부 문
* 신부화장
* 파티화장
* 스테이지 화장
* 심는 속눈섭전문
* 신부드레스 대여

헤어스타일이스트
김 영 주

※미용경력 14년

631 BLOOR ST. W. (한국관 맞은편, 서울여행사 2층)
☎: 588-1480(B) 243-8026(R)

화장스페샬이스트
클라라 홍

MAILPERSON : PLEASE DO NOT DELAY. THIS IS A DAILY.

East AsianLibrary
Rm 0049, Robarts Library
University of Toronto, Ont
M5S 1A5

"부처님 오신날" 경축

불광사 : 백팔번뇌물리치는 백팔번의 타종
선련사 : 법요식· 예술제· 자선바자등

지난1일 음력사월초파일 석가탄신일을 맞은 토론토의 불광사, 선련사등은 각종기념행사를 갖고 부처님의 탄신을 축하했다.

한국조계종 불광사(주지 석광옥스님)는 1일 저녁 7시 불기2526년 4월초파일 법요식을 신도를 포함 내외인사가 법당을 가득 메운 가운데 성대히 거행했다. 이날 불광사는 개원5주년 기념식도 아울러 가졌다.

사원천정에 108개의 연등이 매달렸고 소원성취를 비는 신도들과 그 가족의 이름이 적힌 꼬리표가 연등마다 달려있었다.

법요식은 삼귀의 염불로 시작, 국기배례, 불광사합창단의 찬불가에 이어 반야심경독송이있었다. 석광옥스님은 축원문낭독에서 "불교는 옛부터 나라가 위태할때 승병을 동원하는등 호국종교로서의 임무를 충실히해왔다."며 대한민국의 남북통일과 사회안전, 국태민안을 빌었다. 석광옥스님은 또 "시방삼세의 모든 중생들이 도를 깨달아 착한길로 갈수 있도록 힘쓰자"고 축원했다.

이어 불광사대표와 하객대표의 헌향및 각단체장들의 헌화 순서가 있었고 석스님을 대신한 이범철거사의 법어에 이어 박영철 부총영사, 한인회 최복기 부이사장의 축사가 있었다.

법요식의 절정은 세상의 온갖 번뇌인 108번뇌를 없앤다는 뜻으로 108번의 타종에 이어 연등에 불을 붙여 소원성취를 비는 등화순서였다. 봉축행사는 저녁 8시 사홍서원의 염불로 끝났고 신도들을 대중공양(저녁식사)을 들며 외부인사들과의 친목을 돈독히 했다.

법요식에 앞서 불광사는 상오 11시부터 불공, 만발공양(점심식사), 향공양, 꽃공양및 108명의 신도들이 한복으로 곱게 단장하고 108번뇌를 없애고 마음을 닦는 탑돌이를 했다.

이날 많은 하객중에 동국대 동문회 회장 정관풍씨와 온타리오주 젠·센터(Zen Centre)대표 폴카씨의 모습도 눈에 띄었다.

한편 한국불교회 선련사(주지 김삼우 스님)는 1,2양일간에 걸쳐 100여명의 교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봉축법요식등 기념행사를 가졌다.

특히 2일저녁 개최된 캐네디안 신도들의 예술제에는 50여명의 문인, 연극인등이 참석, 부처님탄신을 이채롭게 장식했다.

올갠연주가 패·클라멘트씨의 올갠연주와 미국인소샬워커인 마이클·왓슬의 모노드라마 시낭송에 이어 무용가인 린다·헤이워드와 패치·니콜슨이 불탄절 무용을 선사했고 특히 작곡가 닐·디씨는 염불을 서양음악에 맞춰 편곡·연주했다.

법요식,연등불사와 한국사찰건립을 위한 자선바자 와 건강식품소개에는 근 2천명의 캐네디안 신도들이 참석했다.

◆부처님오신날에 불공을 드리는 불광사 신도들.

◆마이클·왓슬의 모노드라마

노인회관 개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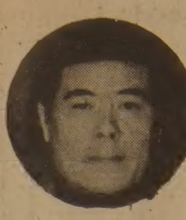
(몬트리얼-정관성지국장)몬트리얼 한인노장회(회장 방용성)에서는 지난 4월24일하오 7시부터 오랜동안 숙원이었던 한인노장회 회관을 마련, 개관식은 노장회 회원및 교민 약50여명이 모인가운데 거행됐다.

노장회사업계획및 예산심의를 마친 회원들은 준비한 음식들을 나누며 회관 개관을 자축했다. 노인회관은 유동훈(실업인협회 부회장, 상업)씨가 항상 노장회 회원들이 모이는 장소가 일정치 않고 정부보조금으로마련한 재봉틀등을 사용할 장소가 없어 회장 집으로 들고 다니는 불편을 보고 무보수로 자기가게 2층을 대여했다.

회관주소는 38 Westminster Ave, MTL, 이며 전화는 곧 가설할 예정이다.

제5계절 싫어하는 소리 (雜音)

안 병 원 (음악가)


◇안병원 씨

요즈음 사람들은 남자나 여자 할것없이 연애편지를 쓰지 않는것 같다.

"바쁜 세상에 귀찮게 편지는 써서 뭘해! 전화 한통이면 다 되는데…"

무엇이건 속성이다.

모찰트나 베에토벤, 특히 리스트, 쇼팡, 브람스는 몇백통씩 연정의 편지를 썼다고 한다. 어떻게 그런 많은 편지를 썼는가 할 정도다.

아마 그·시대는 복잡하거나 시끄럽거나 잡음없는, 다만 자연을 즐기면서 사랑과 우정가운데 좋은 작품들을 만든것이 아닌가생각한다.

과학문명이 발달한 지금의 생활은 편리는 하나 시끄럽고 어지러워 많은 사람들이 싫어하는 소리가생겼다.

이런 시대에 베에토벤같은 음악가는 꿈에서나 만날까?

"싫어하는 소리" 하면 예를 들어 공장의 기계소리, 자동차의 급정차소리, 크락숀소리, 그 외에 바람소리, 천둥소리등이다.

이런 소리들은 대개가 동체통의 음질로서 의식적으로 이런 음질을 만들어 낼수도 있다.

싫어하는 소리에 대한 반응은 사람에따라 달라진다. 소름이 끼친다든지, 머리가 아프다든지, 얼굴을 찡그려게 한다든지, 냉기를느낀다든지, 여러가지로 반응이 나온다.

이와같은 음질들만 모아 음악을 만들어서 강제적으로 들려주면 재미있는 현상이 일어난다고 한다.

제일먼저 쓰러지는 쪽이 남자의 노인, 다음이 남자의 성인(중년), 그리고 여자의 노인, 여자의 성인의 순서로 나온다.

제일 처음의 사람 (남자노인)과 마지막사람 (여자성인)의 차이는 시간 적으로 두배 이상이었다는 보고가 있다.

어떤 의대교수의 의견을 들으면 여성은 출산시의고통을 견디어내는 저항력의 일종으로 어느정도의 둔감한 신경을 하느님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이 아니냐고한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여성은 남성보다 서투른 음악에도 견디어낼 수 있으며, 또한 남자보다 장수(오래삶)하는 이유도 이에 기인한 것이 아닌지?

반대로 아름다운 음악을 들려주면 여성의 호르몬분비가 활발해진다고 한다. 이것은 출산 후 모유의 촉진으로 좋다고도 하니 산모에게 좋은 음악을 들려주는 것도 남편의 도리라고 생각한다.

젖소에게 음악을 들려주면서 젖을짜면 우유량이많이 나온다니 이것 역시 원리적으로 같을지도 모른다.

싫어하는 음질들만 모은 음반을 만들어 싫어하는손님을 빨리 보내기 위해 틀면 좋겠다.

하지만 생각해 보니 나도 같이 들어야 할 형편이니 저항력이 약한 나로서는 견디어 내기가 어려워 그만두어야 겠다.

(한인 Y 합창단·한인천주교회 성가대 지휘자)

생선 도·소매상 블랙·씨
정근영·임호빈·심용웅씨 동업

대규모 생선도매상 「블랙 씨 도매상」(Black Sea Wholesale Ltd.), 연매상 2백만 달러가 넘는 이 상점의 경영인은 보성고교동창들인 정근영(42), 임호빈(41), 심용웅(42)씨등 3인이다.

듀폰(Dupont St.)과 랜스다운(Landsdown Ave.)근처에 소재하는 이 도매상에 들어서면 바닷가를 연상시키는 생선 비린내가 진동한다.

17년의 전통을 자랑하는 「블랙 씨」를 이들 삼총사들이 전주인인 그리스인으로부터 인수받은것은 작년 10월19일이었다.

한인으로서는 전혀 경험이 없는 새로운 직종에 뛰어든데 대한 긴장감으로 불안했지만 7개월이 지난 지금은 이분야에 대해 상당한 지식을 습득, 점점 자신이 붙는다고 정씨는 말한다.

토론토의 생선도매상은 대부분 그리스계나 폴류갈계 케네디언들이 장악하고 있고 소매상은 90%가 자메이카인들에 소유되고 있다. 블랙 씨 외에 세인·로렌스 마켓, 뉴·푸드(New Food)등이 큰 생선도매로 유명한 곳이다.

뉴욕에는 생선가게를 하는 한인들이 200여명이나 된다면서 앞으로 토론토에도 생선가게를 하는 한인들이 점차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는 정씨는 생선소매상에 뜻이 있는 교포에게는 최대한도의 정보와 협조를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동업자인 임호빈씨는 '캐나다에서는 그리스계나 폴류갈계처럼 남부유럽인들과 자마이카계 같은 웨스트 인디안들이 생선을 좋아하므로 이들이 많이 사는 지역에 생선가게를 차려야한다"고 귀띔을 준다. 임씨는 또 생선의 이익마진은 40~50%로 매우높으나 자칫 잘못하면 상해서 버리는 경우가 생기므로 입하, 출고량을 정확히 분석, 재고가 없이 제때에 처리될 수 있는 과학적 경영을 해야한다고 조언했다.

토론토에는 아직 생선터미날이 없어 심용웅씨가 매주 일요일밤 뉴욕으로 내려간다. 월요일 새벽2시부터 개장되는 뉴욕생선터미날에서 생선을 주문, 트레일러에 실려보낸다. 월요일밤 토론토에 도착되는 트레일러의 생선을 다 정리하고 화요일부터는 소매상에 배달하거나 직접 소매한다. 블랙 씨는 도매상이지만 일반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내장과 비늘을 자동으로 제거하는 기계설비도 갖추고 있다. 현재 종업원은 5명.

정씨는 앞으로 한인교포비지네스가 자체안에서의 경쟁을 탈피, 캐네디언과 경쟁을 해야한다는 측면에서 볼때 새로운 직종에의 이전을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한다.

블랙씨의 영업시간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상오 8시~하오6시까지(금요일은 1시간연장 하오7시까지)이며 일요일은 쉰다. 주소는 16 Osler St. 전화: 762-7255~6

(김종환 기자)

◆블랙씨의 생선저장소. 원내는 대표 정근영씨.

포키스

性호기심 가득한 10대들이 …

새映画

▲「포키스」는 10대의 섹스문제를 너무도 얇게 처리했다.

영화의 조잡스러움에 이맛살을 찌프리면서도 「유치한 재미」에 멍달아 웃게 된다.

「Porky's」를 보면서 궁금한 것은 철저하게 10대용인 이영화가 R(16세 이하는 반드시 성인동반)등급을 받았으면서도 어떻게 돈을 많이 벌어들였느냐 하는 점.

영화 얘기를 하자면 그 내용을 조금이라도 소개시켜야 할 텐데 이 작품은 성에대한 호기심이 가득한 10대들이 순결을 주체못해 고심하는 것이 전부여서 다른 사람이 보기엔 난감하기 짝이없다.

생소한 이름의 댄·모나한, 와이와·나이트, 마크·헤리어등은 폴로리다주 에인절비치고교생들.

때는 패티·페이지의 노래가 한창 인기를 끌던 아이겐하워 대통령시대.

이 젊은 아이들은 생각하는 것이 섹스밖에 없다는 듯 지면에 옮기기에는 곤란한 말과 행동으로 모든 에너지를 소비하는 것이 일상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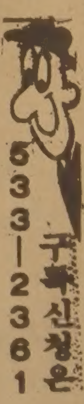
덤으로 우정 및 감상을 조금씩 쳤다.

15년간 영화를 만들어 보겠다고 별렀다는 감독 밥·클라크는 분명히 데뷰작을 만들때 많은 시행착오를 거쳐야 껍질을 벗는 10대의 성장과정을 염두에 두었을텐데 결과는 극장에서 나오는 것을 누가 볼까 망설여지는 작품을 지어냈다.

물론 대상이 10대이니만큼 모든 10대의 공통점인 젊음과 발랄 그리고 순진성이 없는 것은 아니나 영화는 젊은이를 주제로한 지나간 많은 영화들의 단편단편을 끌어다 맞춘듯 시끄럽기 한이 없다.

10대들이 성을 이 영화처럼 처리하거나 틀에겨워 한다고는 믿고싶지도 않고 믿어지지도 않는다.

이 요란한 10대들이 음탕한 술집 「포키스」를 때려 부수는 장면은 완전히 무법천지로 영화를 위해서는 아무짓이나 해도 된다는 식이어서 기가 차다.



토론토 한국일보사 제정

제2회 한인민족상 모집요항

한인민족상 수상후보를 모집하오니 널리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부 문
   (가) 예술상: 캐나다 한인사회에서 문학· 음악· 미술· 연극· 무용· 사진등 예술분야에서 특출한 공로자나 특기자.
   (나) 학술상: 학술적 저술· 발명, 발견· 심포지움등 학계· 교육계에서 공이 큰 인사.
   (다) 봉사상: 공적, 개인적으로 한인사회에 희생적 봉사, 그 결과가 뛰어난 인물.
   (라) 공로상: 한글교육· 체육진흥등 기타 여러면에서 한인사회 발전에 크게 기여한 자, 체육특기등에 공로가 큰 인사.
2. 수 상 자 격
   (가) 캐나다 거주자 (한인)
   (나) 비한인(외국인)으로서 한민족의 문화선전, 한인사회에 이바지한 공이 큰 인물.
   (다) 개인 또는 단체
3. 추 천 방 법

전국의 각단체가 1명씩 아래 양식에 의해 해당자를 추천하되, 5월15일이내에 본사 필착토록 해주실 것. 개인적으로 추천할 경우, 추천인 5명이 필요함.

1982년 4월 일

한인민족상위원회
위원장 구 상 회

한인민족상 후보 추천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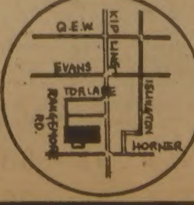
대상자또는단체 : (연령 : 성별 :)
주소및전화번호 :
시 상 부 문 :
추 천 내 용 : (변지에 가능한한 자세히 기재, 관계증빙서류, 사진등 동봉요망)
추천인(단체) :
추천인주소· 전화번호 :

보 내 실 곳 : THE KOREA TIMES TORONTO
1025 DUPONT ST. TOR. ONT. M6H 1Z7

한국인의 도매상
한인연합상사

— CASH & CARRY —

● KISKO $4.19
● KISKO KID $3.25
● SNACK IN MOUTH $5.80



한 인 연 합 상 사
251－6578
U.K.L. CASH & CARRY
27 RANGEMORE DR. TOR.

〈연재수필〉

이민살이 〈11〉

여 동 원

어머니날과 어린이날

◇여동원 씨

※편집자 주 : 수상집 〈이민낙서〉를 낸바 있는 캐나다한국문협회원 여동원씨의 이민현장을 엮은 「이민살이」를 수회에 걸쳐 연재한다. 독자여러분의 일상에 도움되기를 염원하며….

"5월은 푸르구나 우리들 세상---

그 5월이다. 창경원과 어린이대공원은 물론 극장도 무료. 온 세상에서 어린이 천국은 대한민국만이 있는 듯 그렇게 부산해진다.

부모를 공경하는것을 최우선으로 하는 동양예의지국인 우리에게 어머니날이 먼저 생겼어야 순서가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어린이날이 먼저 생겼고, 그 행사 또한 부산하다.

그런데 가만히 이곳 서양사회에 눈을 돌려보자. 젊은이의 왕국같이 늙은이는 대우 받지 못하는 이곳 서양엔 우리처럼 어린이날이 아니라, 어머니날이라 해서 야단법석을 떠는데, 그것은 그날 가게의 매상장부를 들여다봐도 명백한 사실이다.

저마다 가슴에 꽃을 달고, 선물과 카드를 사고, 식당은 만원이요, 장거리 전화통이 불이(난다. 저들만이 어머니를 가진양 저들만이 효성을 다하는양 극성을 피우는 것을 볼때 가식을 훔쳐보는 기분이다.

이곳의 사회를 아무리 뜯어보아도 효의 그림자도 찾기 힘드는데, 어린이날이 아니라 어머니날이 법석이고, 반면에 이네들보다는 부모섬기는데만은 우리가 앞서 있다고 생각하는데도 우리는 어머니날이 아니라 어린이날이 법석인 이 양상이 좀은 재미있어 가만히 들여다보니 그럴만한 이유를 발견할 수 있다.

우리는 어른을 섬길 줄 알았지, 어린이들을 돌볼 줄 몰랐다. 그저 조상이고 부모고 족보였지 자라나는 새싹을 들여다보고 가꿀 줄을 몰랐다.

유교라는 윤리의 무거운 올가미를 어린 싹 때부터 씌워 어른의 명령에 무조건의 복종을 배우며 그렇게 길들어 자랐다.

다가올 미래가 아니라 언제나 과거를 씹으며 그 과거의 틀에 어린 것을 눌러 자유를 속박해 버렸다. 어찌 현대교육을 받은 방정환선생같은 분이 아니더라도 어린이날을 만들지 않을 수 있었으리오. 너무도 너무도 우리의 어린이들이 불쌍했기에, 어른의 그늘속에서 파리해진 그 영양실조의 어린이가 가련했기에 어린이날을 만들어 새싹을 돌보자는 정신운동이 일어났던 것이다.

반면에 서양은 젊은이의 왕국이다. 어른은 늙은이를 곧 폐물로 취급한다.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하신 성경말씀이 가르치듯 서양은 늙은이가 아니라 어린이다. 과거가 아니라 미래다.

자동차가 낡아지면 폐물취급 받듯 서양의 늙은이는 폐물취급이다.

하기야 능률이 우선의 가치로 인정되는 서양이고 보면 일의 능률이 떨어지는 늙은이는 값이 안 나가는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서양인들도 우리가 크게 깨닫고 반성한 바 있어 어린이날을 만들 듯 사람이기에 늦긴했지만 깨닫고 어머니날을 만들었던 것이다. 곧이어 아버지날도 크게 인심쓰듯 달력에 덤(옴츤)으로 표를 해두었다.

동·서양문화가 언젠가 하나로 된다는 징조처럼 보인다.

한가지 웃기는 것은 서양이 크게 깨달은 바 있어 뜻으로 만들어진 어머니날인데 반해 우리나라의 어머니날은 필연적으로 생긴 어린이날과는 달리 순전히 추인검을 수입하듯 서양에서 수입된 좀은 걸맞지 않은 행사같이 보인다.

1년 12달 365일 효도가 몸에 밴 우리가 굳이 어머니날을 정하여 행사하는 하루가 너무도 무의미하고 어색한것이다. 그러나 한편 깊이 따지고 관찰해 보면 이제는 어머니날까지 역 수입하지 않으면 아니될 지경에까지 우리의 부모 섬기는 미풍양속이 땅속 깊이 파 묻혀버려, 그 싹마저 안보이게 되었다는 뜻이다.

서양에서 어린이날이 무의미하듯 우리에게도 단 하루의 그 알량한 어머니날이 진실로 진실로 무의미한 날이 되기를 바라는 것이다.

(필자 : 문협회원)

합동골프 · 낚시대회
알파 · 베타 와이즈멘즈

토론토한인알파와이즈멘즈클럽(회장 천중환)·베타와이즈멘즈클럽(회장 이석현)공동주최 골프대회겸디너파티는 5월22일(토)상오11시 글렌이글골프클럽(하이웨이50 Bolton서 4 마일 북쪽)에서 실시된다. (회비 1인당 $25)

여러가지 상이 푸짐하게 마련된 이대회 참가 희망자는 5월14일 안으로 신청해야 한다. 연락처 : 449—4449

한편 양클럽 합동낚시대회는 6월22일(화)실시키로 했다.

토론토· 한국일보
이민의 정치적. 경제적 권익을 가꾸어 가는 신문.
한국· 캐나다 관계의 교량이 되는 신문.

◆루빅스 큐브 기계—루빅스 큐브를 0.2초만에 맞추는 전자기계가 일리노이 대학생 댄·룰른(사진)등 수명의 공학도들에 의해 발명되었다.

THE KOREA TIMES is the only Daily(Except Sundays) serving the Korean-Canadians. Fri. & Sat. issues printed together. Established 1974. Subscription $99./yr. $9./mo. 구독료(선금) 年$99. 月$9. ISSN 0712—1733 2nd Class Mail 5248.

한국관
연중무휴
오전11시 새벽 1 시
최고의 음식 저렴한 가격
회의실 마련
결혼피로연등 회의실 60석, 각종회의석 준비, 단체손님 환영, 최고의 음식, 저렴한 가격, 성심성의껏, 염가로 봉사합니다.
531 0277
대표 나옥녀

한국관
한국일보 광고 문의처
533—2361

빅·세븐선물센타
각종한약. 우황청심환
화장품등.
533—7966 김 영 철

〈장편연재〉

영원의 방랑객 ㉞

고 마태오

제 4 장 딴따라 미사의 파동

그분은 얼굴에 난색을 띄면서 말했다. 당시 바티칸 제2공의회가 불어 일으킨 「민주화와 자유화」는 보수적 색채가 짙은 노래알교구를 위협하고 있었다.

그래서 교구청에서는 예전과 사목면의 '새로운 시도'에 대해서는 거부반응을 보이고 있을 때였다.

"본당신부님께서 한번 허가신청을 해 보시지 않으시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합법적인 수단과 방법을 다 해보자는 뜻에서 말입니다."

"그 문제를 신중히 생각해 봅시다. 그러나 가능성이 없는 허가신청은 차라리 안한 것만 못하오."

그분은 부리노 가족을 위한 가정미사 문제를 회피하려는 듯이 말씀했다.

"신청도 해보지 않고 그것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하는 것은 경솔한 행위가 아니겠읍니까?"

나는 엉떨결에 본당신부를 책망하는 식의 말을 했다. 그리고 나는 민망스러워 얼굴을 붉혔다. 그러나 기이에 본당신부는 태연한 자세로 내 말을 이어 받았다.

"우선 부리노에 대한 당신의 그 적극적인 자세를 치하하오. 나에 대한 당신의 책망을 받아들이겠소. 그러나 전통을 고수하려는 현 노래알교구의 체제 안에서 단 한번도 없었던 「가정미사」 봉헌과 같은 새로운 사목적인 시도를 주장하기에는 나 한사람의 힘이란 미미하기 짝이 없는 것이오. 현재 교회의 여러면에 쇄신바람이 불고 있지만 아직도 때가 안된 것을 주장한다는 것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다른 면의 쇄신마저도 저해하는 악이 되는 경솔한 짓이 될 수 있을 거요. 우리는 교회에 대한 순명 속에 기도하며 인내심을 갖고 때를 기다립시다."

"그럼 전통의 이름으로 한 영혼의 절대적인 선이 무시되어야만 한단 말입니까? 교회의 전통도 결국 인간의 구원을 위해 있어야 하는데, 마치 인간이 교회의 전통을 위해 있는 것 같은 인상마저 들어 마음 아픕니다."

나는 또 본당신부의 이론을 공박할 의사는 전혀 없으면서도 불쑥 그분의 말을 비난하는 태도를 취했다.

"교회의 전통은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복음적 진리를 수호하는 하나의 방법이오. 그리고 이 전통은 언어와 인종과 문화의 차이를 초월해 전인류를 그리스도안에 하나가 되게 하는 질서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되오. 그런가 하면 이 전통은 또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성령이 역사하시는 교회의 생활이요. 이 방법과 이 질서와 이 생활을 우리 가톨릭교회에서 빼내 보시오. 거기에는 교리면과 사목면에 혼란과 대립과 아집만이 있게 될 것이며, 따라서 교회는 거룩하고, 공번되고,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교회임을 이미 신앙으로 고백할 수 없게 될거요. 사목전선에 처음 나선 당신의 눈에는 모든 것이 비관적으로 보이겠지만 우리는 교회의 전통을 존중하고 순명하는 자세를 가져야 하오."

그분은 나를 나무라는 어조로 말했다.

"교회의 전통을 무시하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나 전통 때문에 한 영혼이 해를 받게 되고, 전통의 이름으로 인간구원에 대한 사제적 사명감과 열성과 양심이 희생되고, 전통 그 자체를 위해서 순명이 강요된다면 그건 옳은일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는 교회의 전통을 존중해야 하겠으나 교회의 전통이 우리 신앙의 목적이 될 수는 없읍니다. 그 전통이 아무리 숭고하다 할지라도 그 전통을지키는 것을 최상의 목표로 삼는다면 그것은 생명에 대한 탄압이며, 또한 반복음적이라고 전 생각합니다. 「천지가 없어지는 일이 있더라도 율법은 일점 일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질 것이다.」(마태 5장 18절) 이렇게 말씀하신 주님께서도 안식일에 대한 율법을 어기시면서까지 인간의 병을 치유해 주시지 않으셨읍니까? 이처럼 전통이나 율법도 인간을 위해 있어야 한다고 저는 믿고 있읍니다."

"태오신부의 그러한 열정과 순수한 사제적 이상을 축복하오. 물론 전통의 이름으로 한 영혼이 희생되어서는 안되겠지만 또한 우리는 교회라는 공동체의 공익을 생각하지 않으면안 되오. 공동체와 개체간의어느 한쪽이 다른 한쪽을 위해 희생되어서는 안되겠지만, 그럴수 없는것이 현실이지 않소? 이러한 현실속에 우리 사목자는 교회에 순종하는 한편 우리가 맡은 영혼들을 위해 최선을 다 할 뿐이겠지요. 나머지는 주님께서 아서서 섭리하실거요."

"그럼 부리노의 영적선을 위해 우리는 뭣을 할수 있단 말입니까? 뭣이 그를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최선이란 말입니까? 현싯점에서 부리노를 위한 최선의 영적선은 미사밖에 없는것으로 저는 알고있읍니다. 이 미사를 위해 우리는 주교청과 접촉해 보자는것입니다. 이러한 시도는 전통에 위배된다든가, 또는전통을 무시하는 따위의 행위가 되지않는다고 저는봅니다."

"………"

그분은 아무말이 없었다. 그리고 그 얼굴에는 일종의 괴로움이 깃들어 보였다. 사목생활 초년병인 보좌신부로서 나는 내 의사를 너무 강하게 표현하지 않았는가 생각되어 그분에게 송구스럽고 또 나 자신이 좀 건방진 것같이 느껴지기도 했다. 그러나 왜 그분께서 부리노문제를 위해 주교청과의 접촉을 꺼려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았다. 이정도의 허가신청은 전화한통만으로도 능히 해결될 수 있을텐데, 기이에신부는 이 문제를 끝까지 기피하려는 것 같았다.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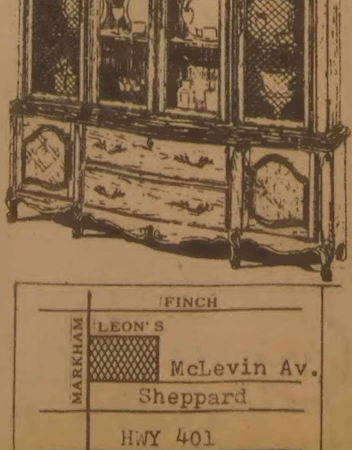
Leon's LEON' S 가구점

한국인 세일즈맨

조 석 민
KEVIN CHO

역사와 전통
캐나다 최대 규모의 WHOLESALER (SINCE 19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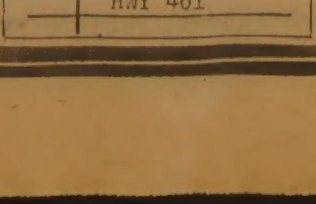
o FURNITURE
o CARPETS — 모든 카펱종류
o APPLIANCES — T.V.,전축, 세탁기, 드라이어, 냉장고, DISHWASHER, 스토브, 마이크로 오븐, 후리저 등등 각종 전자 제품.



※오실때는 미리 회사나 집으로 전화 약속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영업시간 : 월~토 오전10시~저녁10시까지.

20 McLEVIN AVE.
(스카보로) (세파드 × 마캄)
B) 291 — 3818
R) 749 — 9687, 746 — 0981



경찰관 年2回 適性검사

盧내무、內務委답변 採用땐 人性위주로

人事난맥상·動員체제 추궁

緣故地배치·순환勤務 촉구

◇30일하오 늦게까지 계속된 국회내무위는 宜寧경찰관 亂射사건의 원인과 누적된 경찰의 문제점을 질타하는 選良들의 怒氣로 가득했다。답변에나선 盧泰愚내무장관ⓐ도 국민들의 경악과 憤怒를 감안、陳謝와 再發방지、事後처리 경찰제도의 刷新에 초점을 맞추었다。ⓑ는 安應模치안본부장。

국회는 30일 內務委를 열고 盧泰愚內務장관으로부터 宜寧경찰관총기亂射사건에대한 보고를 듣고 사건의 원인과對策을 집중추궁했다。이날밤늦게까지 계속된 회의에서 柳尙昊 金鎭載 梁昶植(이상民正) 朴寬用 柳寅範 柳暎相(이상民韓) 李成一(국민) 李龍澤의원(無)등 많은 與野의원들은 정책질의를통해 犯行의동기와원인、경찰관의 對民신뢰회복對策、경찰人事의 亂脈相과 경찰·예비군의 動員태세등을 물었다。

의원들은 특히 ▲禹순경의 犯行은 사회구조에 불만을가진 殺人者의 계획적 소행이 아닌가▲경찰관任用및교육、그리고 適性검사와 신상파악을 철저히 실시했더라면 豫防할수있지않았는가▲경찰의 緣故지배치와 순환근무제를 실시할 용의가 없는가▲무기관리체제의 개선방안과 안전장치의 확립방안은 무엇인가라고 질의했다。

이들은 또 국가賠償法규정 이상으로 충분한 배상을할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유족의 生計對策을 마련하라고촉구하는 한편 지방에서 발생하는 사건의 신속보도를위한 언론제도의개선책을물었다。

의원들은『이번 사건은 無能행정、卓上행정을 그대로반영한것』이라고 주장하고 경찰부조리개선대책위원회구성、지방경찰관의 資質향상을 꾀하는한편 행정쇄신과 경찰공무원의 독립을 위해 「公安위원회」를 설치하라고 제의했다。특히 野黨의원들은「이번 사건은정부의강력한改革意志에 公職者나 국민의 共感帶형성이 미흡하고 공무원의근무자세나 기강이 해이된데서 발생했다』고 주장하고 책임행정의 구현과 국민의 신뢰회복을위해 총리이하 전국무위원이 총사퇴하라고 요구했다。이에대해 盧泰愚 내무장관은 답변에서『앞으로 경찰채용에있어 우수한 자질을갖춘사람을 선발하겠다』고말하고 4년제 경찰대학을 통해 정예 간부를 육성하는 한편일반대학생에게도 장학금을 지급、졸업후에 경찰로채용해 우수人力을 확보토록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경찰채용에 있어 시험성적보다 人性을 중시하겠다』고 말하고 ▲최종학교 생활기록부를 제출토록해 人性을 갖춘사람을 선발하고▲신원조사를 통해 가정환경、국가관、사명감등을 철저히 관철하며 ▲정밀適性검사를 실시、정신이상자를 배제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盧장관은『재직중인 경찰관에 대해서는 근무지의 생활기록을 작성토록하고 年2회 適性검사를 실시、인사에 반영하겠다』고 말하고『모든 경찰관에게 職能교육을1~2개월씩 실시、職能을 전문화시키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경찰제도를 개선、이같은 사건이 재발않도록 만전의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또 安應模치안본부장은『경찰인사가운데 사실상 징계轉配제도가 있으나 이사건을 계기로 징계 전배제도를 지양、인사관리상의 불만을 極小化하겠다』고 말했다。

그는『宜寧경찰서서원1백12명중 9%에 해당하는 10명만이 징계를 받은것으로나타났으며 이는 다른경찰서의 징계현황과 별차이가 없다』면서『현재 일부경찰서가 실시하고 있는 都農순환보직제를 전체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盧內務 보고

新任교육 6개월로

3년마다 再教育…不適者는 배제

盧泰愚내무장관은 30일이번 宜寧경찰관亂射사건의 발생원인으로 ▲현지경찰의 기강해이및 사명감부족 ▲경찰서간부의 감독소홀 ▲人事관리의 허점 ▲긴급사태대비및 조치미흡등의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밝히고『앞으로 이번 사건에 대한 면밀한 진단을 통해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겠지만 우선 당면 문제점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盧장관은 이날국회내무위에출석、보고를통해 이같이밝히고『우선개선대책으로경찰관의 자질향상을 위해 경찰관채용을 총원위주의 量的모집에서 質的인차원으로 전환하여 適性검사、출신학교생활기록부、신원조사등의 적용을 강화하여 부적격자를 배제하는 한편 심리학자、정신의학자、사회학자등 전문가들로 「人力선발 諮問위원회」를 구성하여 정신안정및 不適應현상을 측정하는 제도를도입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수용시설관계로 8週로 단축실시하고있는 新任순경 기본교육의 適正기간이 1년이지만 우선 6개월로 연장하고 현재 冬節期에 9백80명、夏節期에 1천3백명을 수용할수있는 종합학교를 4천명 수용시설로 增築하며 경찰관을 3년週期로재교육을 실시、정신및 사명감을도야하고정신이불안하거나 사명감이 없는 부적격자는배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盧장관은 이어 합리적인人事관리를위해 신규채용중의 조건부 任用기간을 현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고 징계자의 轉配인사를 시정하며 人事相談制를 실시하는 한편 정구인용심사위원회를운용、任用不適格者를 배제하겠다고 보고했다。

遺族배상금 관리 專擔委 구성키로

宜寧사태收拾委

宜寧사건 收拾對策위원회는 30일상오 중앙청에서 金埈成부총리주재로 4차회의를열고 死傷者자녀들에게는 해당학교졸업때까지 학비를 면제해주고 희생된학생이 있는 학교에 5백만원의 특별장학금을 지급키로 했다。

對策委는 또 농수산부가 피해농가를 위한 종합營農계획을 세워 시행토록결정하고 희생자들에게 지급되는 보상금의 안전한관리를 맡게될 「遺家族賠金관리위원회」를 구성키로 했다。

英、先制공격 態勢

아르헨선 戰爭지역 선포

兩國、美仲裁案 사실상 拒否

【런던·부에노스아이레스29日聯合AP=綜合】영국과 아르헨티나는 영국기동함대의 포클랜드군도 海空봉쇄발효시간을 불과 12시간앞둔 29일 미국의 평화중재안을 사실상 거부하고 아르헨티나가 본토와 포클랜드 주변에『전쟁지역』을 선포하는 한편 영국기동함대가 일제의 무선교신을 중단한채『선제공격태세』에 들어감으로써 무력대결로 한발 더 치닫게됐다。

아르헨티나 군사정부는 관영 텔람통신이 미국의 평화중재안에대해 아르헨티나측이 불만스럽게 생각한다고보도한과 때를 같이하여 특별 코뮈니케를 발표하고 아르헨티나 본토및 포클랜드군도 주변 2백해리에 전쟁지역을 선포하고 이지역내의 모든 영국함정및 항공기에 적대행동을 취할것이라고 선고했다。

헤이그、아르헨訪問 開戰방지 最終협상

양국간의 평화적 해결가능성이 희박해짐에 따라 외교관측통들은 포클랜드 군도2백해리수역에대한 영국의 海空봉쇄선언이 발효되는 30일 하오8시(이하 한국시간)가 외교협상의 최종시한이될것으로 보고있다。

한편 알렉산더·헤이그 美국무장관은 레이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30일중 아르헨티나를 방문、전쟁을 피하기 위한 마지막 중재노력을 벌일것으로 알려졌다。

아르헨티나 정부는 포클랜드 군도에 접근중인 60척의 영국해군기동함대가 철저한 전시교신침묵을 지키고 있으며 포클랜드침공에 앞선『선제공격단계』에 돌입한것 같다고 주장했다。

아르헨티나는 포클랜드군도에 저녁부터 새벽까지의통금령을 내렸으며 이부근에접근하는 어떠한항공기나 군함도 즉각 공격받을것이라고경고했다。

장병理念武裝 강화

陸軍지휘관會議 意識改革운동 솔선다짐

육군은 30일상오 黃永時참모총장주재로 주요 지휘관회의를 열고<사진> ▲장병들의 이념무장강화 ▲군사력정예화 ▲군예산절약방안등 새로운 육군발전방향을 논의했다。

黃총장은 이날회의에서 다가오는 녹음기에예상되는 적의도발이나 침투를 사전에봉쇄、격멸할수 있도록 경계태세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

주요지휘관들은 이 자리에서 정의사회구현을위한 의식개혁운동에 육군전장병이 앞장설것을 다짐하는 결의문을 채택하고 9개항의 의식개혁운동 실천요강을 하달했다。

月初 訪韓난망

사꾸라우찌日外相

【東京30日=宋孝彬특파원】사꾸라우찌(櫻內)일본외상은 30일 각의가끝난후 기자회견을갖고 야나기야(柳谷)심의관의 訪韓과 관련、『韓日간에 경제협력문제의 교섭은 어려워졌고 변진전이 없다』고 말하고『5월연휴(3일 헌법기념일、5일 어린이날)에 자신이 직접방한、현안문제인 韓日간 경제협력문제를 타결하는게 어렵게 됐다』고 말했다。

사꾸라우찌외상은『일본측은 경제협력문제와는 별도로 외상자신이 한국을 직접방문할것을 한국측에 타진했으나 30일현재까지 한국측에서 아무런의견제시가 없으며 부정적 생각을갖고 있는것같다』고지적、5월연휴 한국방문은 단념하는것이 좋겠다고덧붙였다。

社會漫評

衆生에게 더많은 빛을…

제9회 한국援護大賞

불굴의 自立意志에 뜨거운격려를

申請 오는18일까지… 6월1일 施賞예정

상이軍警·未亡人·유족유자녀·重傷痍배우자·특별援護대상등 5개部門서 선발 支援金 각60만원및 副賞

社告

한국일보社가 援護處의 후원으로 매년 불굴의 용기를 가지고 자립생활을 이룩한 모범원호대상자를 찾아 시상하고 그들의 눈물겨운 生活歷程을 널리알려 같은 처지의 원호가족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불어넣는 한편 전국민의 원호의식을 提高키위해 제정한「한국援護大賞」시상식이 올해로 아홉번째를 맞게됩니다。우리의 現代史가 맞이하였던 여러차례의 國難속에서 국가와 민족의 보위를 위해 신명을 다하였던 많은원호가족들이 오늘에 이르러 아픈상처를 숨긴채 자신의 자립과 재활에 만족하지 않고 지역사회에 눈을돌려 오히려 社會奉仕에 솔선하고 있음은 실로 민족의 귀감이라 아니할 수 없읍니다。폐사는 오늘날 대다수 국민의 뇌리속에서 점차 퇴색해 가고있는 愛國愛族의 정신을 다시 함양하고 자라나는 2세들에게도 이들의 고귀한 護國精神을 일깨워 참다운 民族精神의 開花를 기대하고자 합니다。「한국援護大賞」은 상이군경、미망인、유족및 유자녀、중상이 배우자、특별원호대상자등 5개부문에 걸쳐 시상하며 여러분의 이웃에 각부문에 해당하는 모범원호대상자가 있으시면 아래요령에 의거、추천하여 주시고 아울러 온 국민의 뜨거운 성원과 협조 있으시기 바랍니다。

후보추천요령

▲신청자격:원호처에서 추천한분과 본사에서 접수한 일반추천인(지난해 심사탈락자재접수도 가함)

▲신청서류:신청자(후보자)의 공적서 1통(회사및 기관추천서 1통、추천인의 근무자는 기관장 추천서및 재직증명서)、신청인의 공적을 확인할수 있는 근거서류 다수、반명함판 사진3장

▲신청마감:1982년5월18일까지 한국일보 사업부(☎1472)

▲심 사:원호처와 본사에서 추천한 인사로 구성된 공적심사위원회에서 결정

▲시 상:각부문 공히 1명씩 선정하여 60만원씩의 상금과 부상품、기념품 수여(본대상 수상자 5명은 정부포상자와함께 국무총리예방등 모든 공식일정에 참석)

▲시상일시:1982년6월1일(예정)

한국일보社·援護處

地平線

임진란때 이순신은 朝鮮수군의 전통적인 납작배로 왜군을 무더기로 水葬했었다。물이 얕은 연안을지키기 위해 발전된 平底船이 朝鮮수군의 전통적인 배였다。거북선은 이 납작배에 뚜껑을 씌운것에지나지 않는다。거북선에 철갑을 씌웠느냐、안씌웠느냐 하는문제엔 아직 결말이 나지 않고 있지만、어쨌든 거북선은 당시 세계에서 가장 큰배였다고 헐버트는 말하고 있다。▼20세기초 일본해군대학에서는『朝鮮의 이순신이 영국의 넬슨보다 위대했다』고 가르쳤다한다。그러나 이 두 위대한 제독은 마지막 리의 싸움터에서 숨을거뒀다는 공통점을 지니고있다。넬슨은 1805년10월21일 스페인 전함 15척을 포함한 프랑스의 연합함대 33척을 무찔러 대영제국 시대의 막을 올렸었다。이때 영국쪽 희생자는 모두 4백49명이었다。▼26년전 수에즈운하로 굴욕의 상처를 갖고있는 영국은 지금 포클랜드 앞바다에 64척의 기동함대를 보내놓고 있다。민간수송선이 35척、나머지 29척이 막강한 파괴력을 가진 전투함이다。기함은 2만8천7백톤짜리 항공모함 허미즈로、1만9천5백톤의 항공모함 인빈서블호와 함께 기동함대의 주력을 이루고있다。▼영국기동함대는 이 두 항공모함을 중심으로 공격함 2척、구축함 5척、순양함 7척등 모두 16척의 전투함과 10여척의 보조함정을 거느리고있다。또한 핵잠수함 3척이 지난달 12일부터 포클랜드해역 봉쇄작전을 하고있다한다。포클랜드 앞바다에서 만약 한판 붙는다면 세계의 군사전문가들에게는 다시 없는 구경거리가 될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판이다。▼싸움이 붙는다면 영국은 먼저 아르헨티나의 재래식 잠수함 4척을 공격할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보고있다。이중의 하나는 이미 사우드 조지아상륙작전때 파괴했다。이어서 2척의 미사일 구축함만 파괴해버리면 아르헨티나의 1만9천9백톤짜리 항공모함은 쉽게 공격할수있을것이라고한다。영국으로서는 아르헨티나군인을 죽일수 있는대로 다치지않고 파괴하는 방법을 찾고있다한다。▼그러나 아르헨티나본토에는 영국해군의 수직이착륙기인 해리어보다 빠른 프랑스제 미라지전투기들이있다。미라지가 영국함대를 공격하기엔 거리가 좀 멀다는 약점이 있긴하지만、어쩌면 영국이 먼저 아르헨티나의 비행장을 공격해야될지도 모르는 일이다。상륙용함정및 4천여병력을 거느린 영국쪽과 포클랜드의 아르헨티나군 8~9천명이 맞붙는 결전이 있을지도 모른다。있어선 안될 마지막 카드가 이것이다。

한국일보

우리의理想은健全한新聞

구독신청은 (416) 533-2361

ARIRANG HOUSE
아리랑하우스
불고기요리및 한식전문
716 BLOOR ST. W. (at CHRISTIE)
TORONTO. ONT.
(416) 532-2727

KIMKOR
종합보험대리점
적 금
교육, 은퇴, 모기지 적금.
부 동 산

김 종 조
535-0028
535-72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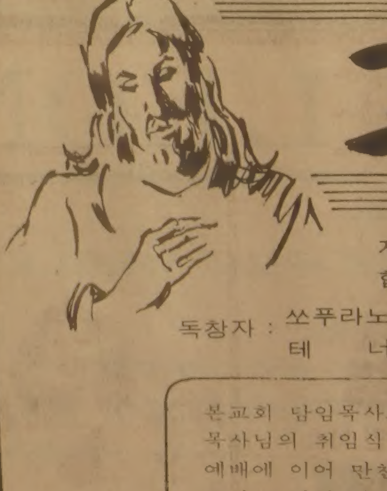
SunLife OF CANADA

김 신 명
* 생명보험
* 연금제도
* 교육보험
* 그룹보험
* 주택·건물
* R·R·S·P.
922-3111 (B)
793-5531 (R)
791-8196 (R)

전교포 사목의밤
댄스파티

일자 : 1982년 5월22일 (토요일 저녁)
시간 : 7 : 30~9 : 00-저녁식사
9 : 00~1 : 00-댄스
장소 : CONSTELLATION HOTEL(BALL ROOM)
900 DIXON RD. (AIR PORT 지역)
입장권및 정식 : 1인당 $25.00(좌석이 제한되어 있으니 표를 일찍 구입하시길 바랍니다)
표판매처 : 각 한인식품점
복장규정 : 남-정장(신사복과 넥타이)
여-양장 혹은 우아한 한복
시 상 : 우수한 댄서 3쌍 선정 시상과 약간명의 행운상이 있음.
연 락 처 : MR. 박 ☎ : 661-1523 (5시 이후)
※경쾌한 라틴음악(우리 노래도 포함)과 쌓였던 잡념을 씻고 하루저녁을 마음껏 즐겨 보십시요!

박희원과 그의악단
(6인조 라틴캄보밴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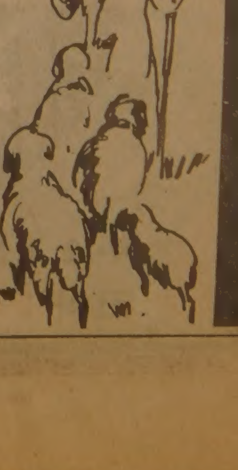


그리스도의 속죄
The Atonement
by Sydney H. C. Peters

지휘및 올갠 : 유희자 박사
합 창 : 선교교회 성가대
독창자 : 쏘프라노 : 독고숙 알 토 : 정향조
테 너 : 유 인 바리톤 : 곽호일

본교회 담임목사로 부임하시는 강재철 목사님의 취임식및 창립제7주년 기념 예배에 이어 만찬과 음악회를 갖고저하오니 오셔서 이 은혜의 자리를 더욱 빛내주시기 바랍니다.
◇취임식 ◇만찬 ◇어린이성종연주와성가

● 일시 : 1982년 5월 9일(주일)
● 예배- 3시30분 ● 만찬-5시30분 ● 음악회-7시



토론토한인선교교회
1 Greenland Rd. Don Mills. ☎ : 444-8002
(Don Mills 동쪽, Lawrence 남쪽)

美、英支持 성명준비

포클랜드事態 아르헨強硬에 仲裁포기

議會서도 支援결의안

軍隊즉각철수·敵對행위 중단촉구

【워싱턴29日AP UPI=聯合】미국은 포클랜드사태를둘러싼 그의 중재활동이 성과를거두지 못함에 따라 29일 이번 분쟁에서 영국을 지지하는성명을 준비중에 있는것으로 한美관리가 전했다。

이관리는 그러나 이성명이 공표되도록 최종결정이 내려졌는지는 알수없다고 덧붙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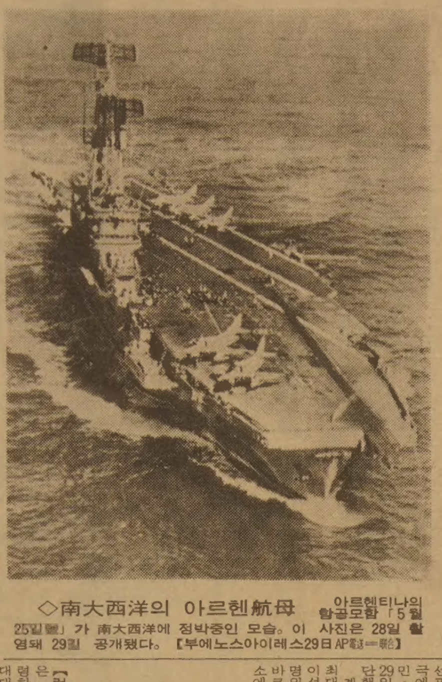
그러나 미국이 영국지지성명을 준비하고있다는 사실은 레이건행정부가 헤이그국무장관의 중재활동을 포기하고 오랜 맹방인 영국을 지지할 태도를 갖추고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미국의 이같은 영국지지성명준비결정은 아르헨티나가 미국의 현상안에 냉담한반응을보인후 취해진것이며 29일밤이나 30일상오(현지시간) 공표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앞서 美하원외교위는 29일 영국과 아르헨티나간의 포클랜드(말비나스)분쟁이 평화적타결을 보지못한 경우 미국은 영국을 위해『충분한 외교적지원』을 제공해야할 것이라고 촉구함으로써 포클랜드사태에 있어 영국에대한 지지를 표명했다。

하원외교위는 이날 아르헨티나가 국제법과 유엔안보리결의안에 따라 포클랜드로부터 즉각 군대를 철수할것과 양당사국이 즉각 적대행위를 중단할것을 촉구함과 동시에 레이건행정부에 대해 양국간의 중재노력이 실패로 돌아갈경우 영국에 대한 외교적 지원을 제공할것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또한 상원에서도 이와유사한 내용의 결의안이 조세프·바이든상원의원(民·델러웨어)에 의해 제출됐으며 찰즈·퍼시상원외교위원장(共·일리노이) 클레어본·펠의원(民·로드아일랜드)및 래리·프레슬러의원(共·사우드다코다)등 중진급 상원의원들이 이 결의안을 지지하고 나섰다。



◇南大西洋의 아르헨航母 아르헨티나의 항공모함「5월25일號」가 南大西洋에 정박중인 모습。이 사진은 28일 촬영돼 29일 공개됐다。【부에노스아이레스29日AP電送=聯合】

波、1천명釋放

戒嚴선포이래 최대 緩和조치

【바르샤바29日AP·AFP=聯合】폴란드정부는 작년12월 계엄선포에 따른 감경조처로 당국에 구속된 자유노조원·농민·학자등 약1천명에 대해 29일 전격적인 석방조치를 단행했다。

계엄통치이래 당국이 베푼 최대의 완화정책으로 보이는 이석방조처로 이날 약 2백명의 재소자를 수용하고있는 바르샤바의 비알롤레카 교도소에서는 35명의 자유노조원들이 수감 4개월 반만에 고향으로 떠나는 시영버스에 승차했다。

全國사보타지 촉구 波지하勞組、來13일

【바르샤바29日UPI=聯合】폴란드지하자유노조지도자 4명은 노조지도자 바웬사가 석방될 때까지 당국의 계엄통치에 반대하는 투쟁을 주도하기위해 지하자유노조「조정위원회」를 결성하고 국민들에 대해 계엄선포 만5개월째인 오는 5월13일에 15분동안의 전국적인 사보타지를 벌이도록 촉구한것으로 29일 전해졌다。

이란、대규모 攻勢개시

이라크占領軍에… 정규放送도 중단

【런던30日路·AP=聯合】이란군은 30일 상오 서부 이란을점령하고 있는 이라크군에대한 대대적인 공세를 개시했다고 이날 런던에서 청취된 이란의 관영 테헤란방송이 보도했다。

테헤란방송은 이날하오 2시2분(한국시간) 정규방송을 중단하고 정부코뮈니케를 인용、이란군이 이날상오 8시 전전선에서 대규모공격을 개시했으며 성모라고 명명된 이군사작전에는 이란정규군과 혁명수비대가 참가하고있다고 말하고 이작전은 후제스탄성의 남부전선에서 전개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와함께 관영 이란통신은 최초의 전황보고로 미루어 이란군이 다수의 이라크군을 생포하고 광범한 이란영토를 수복한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테헤란방송은 이날하오 갑자기 정규방송 프로그램을중단하고 혁명음악을 방송했으며 아나운서는 시간간격을두면서 이란영토로부터 이라크군을 축출하기위한 새로운작전이 이날아침부터 진행중이라고 말하고 구체적 내용을 입수하는대로 알려드리겠다고 덧붙였다。

엘살바도르 大統領 마가나씨 잠정被選

【산살바도르29日UPI=聯合】엘살바도르제헌의회는 29일 미국의 지지를받는 온건파금융인겸 중립적인정치가인 알바로·마가나씨(56)를 엘살바도르의 잠정 대통령으로 선출했다。

메아리

北韓의 은어

隱語는 한 문화체계에 지쳤을때 나오는 發聲이라고 말한 사람이 있다。이「은어」는 특수한 계층과 집단안에서 약속된 하나의 暗號로 통한다。꽃자일때도 있고 훈장이 될때도 있다。또 농축된 유머로 행세할수도 있는것이 隱語이다。

북한사회안에서도 隱語가 없을수 없다。아무리 교조적으로、획일적으로 틀어막아놓은 社會일지라도 역시 隱語는 言語의 隱花처럼 피어나는것이 順理이고 보면 정말 이런 密閉度가 높은 社會일수록 隱語는 생산될법하다。그 價는 더 높을는지 모른다。갑방속 囚人들의 은어가 은어중의 白眉이듯이。

西獨의 북한문제연구소가 최근 북한의 주민들간에 은밀히 愛用되고 있는 은어를 수집해 발표하였다(본보4월30일字 3면「焦點外信」참조)。배잡을 봐「걸작」도 있고 너무나 처절한 감이 드는것도 있다。모두 北韓의 실생활을 그대로 반영하면서 發射되는 총알과같다。표적을 정확하게 맞힌다。

그동안 알려진 북한 은어들 가운데는「롱사탄」(공산당)「가락국수」(카를·마르크스)「감마두」(김일성=마적단 두목)「빼다구」(소년단)「배때기」(고급당원)「깜박이는 촛불」(非黨員) 그리고「수령은 죽고 인민은 영원」이란것들이 있었다。모두 억눌린 감정이 격발된 것들이다。

言語는 때때로 隱語처럼 의미를 비약시키고 다른 말로 盜疊해 가는 경우도 있으나 내버려두면 스스로 進化도 하고 變異도 일으킨다。南北분단 36년에 北에서는 많은 우리말이「異質化」되어 갔다。예를 몇몇만 들지만 그뜻은 南韓사람중 알사람은 거의 없으리라 본다。①「무면하다」「以身作則」「부한」「굶간」⑤「굶인을다」「무으다」「섬수」「에돌다」⑩「후치질」그리고「원수」와「원쑤」등。

분단 이전에 우리가 썼고 지금도 우리가 쓰고 있는 南의 우리말로 옮겨보면 이런 뜻이다。①「무질서하다」「솔선수범」「입신」「터널의 길이」⑤「강이 굽이치는곳」「마음이 바르고 깨끗하다」「조직하다」「수행」「솜솔피하다」⑩「밭갈이」그리고「김일성」과「怨讐」。

공식적으로 북한당국이 말을지어내 주민의 勢力을 뽑아내는데 이용하는것도많다。「피바다 突擊隊」「꽃파는 처녀 突擊隊」「기술혁신 돌격대」그리고「샛별 보기운동」「천번 허리굽히기 운동」(새벽같이 일터에나가서 땅을 파자는 구호)「침식을 직장으로 옮기기 운동」…。북한에서는 말(言語)부터 醋使당하는지경이다。그러니 말도 隱語로 도피할수밖에 없다。북한의 隱語는 말이 아니라 입속에서 나는 뿌드득 소리로 들어야할 것이다。

國際뉴스 ABC

아직 남아있는 세계의 植民地는…

포群島등 40개… 宗主國서 資源등탐내 獨立장애

—영국과 아르헨티나간의 포클랜드분쟁은 과거 식민제국시대의 잔재들이 아직도 미해결의 상태로 곳곳에 남아 있구나하는 생각이 들게 합니다。현재 남아있는 식민지는 몇개나 되나요。

▲전세계적으로 약40개가 있는데 이중 일부는 과거의 식민제국과 인접국간에 영토분쟁이 계속되고 있읍니다。1945년 2차대전이 끝남에 따라 각식민지들은 앞다투어 독립을 선언、지난35년동안 75개 지역에서 독립국가가 탄생했읍니다。아직도 독립을 얻지 못한 식민지 혹은 영토분쟁지역이 영국에 15개지역、프랑스 8개、미국5개、뉴질랜드 3개、포르투갈 스페인 네덜란드 덴마크가 각각 1개씩 있으며 파라셀군도의 경우는 대만 필리핀 베트남 중공이 각기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읍니다。

—왜 독립을 허용않을까요。

▲군사전력적인 이유뿐아니라 근래에는 해저에서 석유를 비롯한 천연광물자원의 발견이 점차 늘어남에 따라 식민시대의 전초기지에 대한 애착이 되살아난 것입니다。즉 하나의 식민지(혹은해외영토)로서의 섬이 2백해리영해를 주장할수 있고 연안의 광물에대한 권리를 확보할수있는 근거가 되기때문입니다。

예를들면 프랑스는 멕시코만과 인도양및 남극대륙등지의 섬에 군대를파견、그들의 권리를 지키고 있는데 이 프랑스영토들은 약 28만2천평방마일에 달하는해역을 확보할수있는 근거를 마련해주는 섬이지요。

—현지주민들의 식민종주국에대한 태도는 어떠합니까。

▲서방제국의 식민지들이 하나 둘 독립을 쟁취하면서 잠자던 민족주의가 새로이각성됨에따라 영토를 둘러싼 분쟁이 계속되고 있읍니다。미국령으로 자치권을갖고 있는 푸에르토리코는 끊임없이 反美데모를 벌이고 있고 영국식민지 버뮤다제도와 네덜란드령 서인도제도、프랑스령인 뉴칼레도니아 등지에서도 계속 독립운동이 일어나고 있읍니다。

—포클랜드군도에 대해 거론되던 홍콩식 해결방식이란 어떤 것입니까。

▲일정기간을 정하여 租借형식으로 영국이 통치한후 아르헨티나에 반환하는 방식이지요。

—현재 최대의 식민지인 홍콩은 영국이 통치하고있는데 중공은 南京조약등을 들어조차기간이 끝나는 1997년에는 반환해줄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97%가 중국인인 현지주민들은 현상유지를 원하고 있는것으로 알려지고 있읍니다。

또하나 재미있는 영국의 식민지는 면적이 2·5평방마일에 불과한 지중해 입구의 바위섬 지브롤터인데 당사국인 스페인도 카나리아제도를 식민지로 갖고있는 모순때문에 영국에대한 반환요구가먼저 들어가지 않고 있읍니다。

—新식민주의란 무엇인가요。

▲2차대전 뒤에 생긴 새로운 형식의 식민지지배형태를 말하는데 형식적으로는신흥국의 독립을 인정하면서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군사적 기술적 면에서 간접으로 교묘하게 지배하는것입니다。【外信部】

세계의 주요 식민지

(해외영토)

	인구	위치
영국		
홍콩	515만	아시아
버뮤다諸島	6만	대서양
英領버진諸島	1만	카리브해
케이만諸島	1만5천	카리브해
지브롤터	3만	이베리아반도
미국		
사모아諸島	3만	태평양
괌島	9만	태평양
美領버진諸島	12만	카리브해
포르투갈		
마카오	40만	아시아
프랑스		
뉴칼레도니아	15만	태평양
폴리네시아	14만	태평양

海外토픽

美3大방송 白堊館일상盜聽

파월前代辯人 폭로

미국의 3大전파매체인 ABC、NBC및CBS방송은 대통령과 백악관참모들의대화내용및 그들의 비밀업무를 일상적으로 도청해왔다고 조디·파월 前백악관 대변인이 28일 밝혔다。

카터前 대통령 재임당시 백악관대변인을 역임한 파월씨는 이날 워싱턴·포스트紙에 기고한 글을통해 이들 3개방송매체의 통신기술자들이 대통령이 전용헬리콥터나승용차에서 주고받는 전화통화내용을 포함、백악관보좌관들의 모든 전화통화내용을일상적으로 도청해왔다고 폭로했다。

파월前대변인은 또 ABC와 NBC및 CBS방송이 각사의 워싱턴지국에 설치된 도청장치를 이용、워싱턴일대에서 대통령을 도청해왔으며 대통령이 공군기1호를 이용、여행할 경우에는 취재기자들의 탑승기에 투입한 높이 15피트의 안테나에 의해 대통령의 등정과 대화를 도청했다고 말했다。【워싱턴=聯合】

대처首相 최고人氣

★포클랜드危機로 취임후

대처영국보수당정부는 포클랜드위기로 말미암아 대처수상이 3년전 수상직에 취임한이후 최고의 인기를얻고 있는것으로 한 여론조사결과 나타났다。【런던=UPI】

◇19세신랑과 85세신부 악관 19세의 폴비오·체루티씨와 그의신부인 85세의 피아·쿠리아니 할머니가 29일 결혼식을 마친후 그들의 아파트 테라스에서 축배를 들고있다。【오메그나(이탈리아)29日UPI電送=聯合】

外信안테나

◆이·埃 定期버스運行

이스라엘은 29일 텔아비브와 카이로간 정기버스운행을 처음으로 개시했다。이스라엘 버스는 이날 하오2시30분(한국시간) 텔아비브를 떠났으며 이집트 버스도같은 시각에 카이로를 출발했다。【텔아비브=AP】

◆敎皇殺害협박2명拘束

로마경찰은 오는 5월2일 일요일에 교황 요한·바오로 2세가 시내의 한성당을 방문할때 교황을 살해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2명의 이탈리아청년을 체포했다고 29일 발표했다。【로마=路】

◆中共11人대표단 訪印

중공외교부 符浩副부장이 이끄는 11인대표단이 중공·인도국경문제에 관해 인도와 대화를 계속하기위해 5월15일 이곳에 올 예정이다。【뉴델리=AP】

WHO제네바總會 千보사등5명파견

정부는 30일오는 5월3일부터 14일까지 제네바에서열리는 세계보건기구(WHO) 제35차 총회에 千命基보사부장관을 수석으로하는 5명의 대표단을 파견키로 했다。1백57개會員國과 1백여국제기구 대표가 참석하는 금년도 WHO총회의 주요의제는 ▲2천년대까지의 全인류의 보건달성전략검토▲老年에관한세계대회▲WHO기구조직재검토등이다。

燈불 들고 오시는 이

李青和

4월초파일 燃燈街 나무입
홍빛환한 얼굴로 등불들고 오시는 이
그 밤은 불빛으로 나를 지우고 싶네。

이 形相, 이 빛깔의 나를 지우고
그분 앞에 그분 앞아
다시 태어나고 싶네。

비록 애압 각이
알을 벤 배암 각이
우거진 잡풀 속에 꾸물대고 있지만
내가 진실로 꿈꾸고 있는 것은
저 아련한 등불의 나라에서
불빛 환한 얼굴로 등불 들고 오시는 이를。
태어나고 싶네
뭇속 각이 어른대는 꽃잎 같은 그 미소로
커튼을 걷어올린 窓門 같은 그 얼굴로,
잔잔한 물살의 바다가 보이는 그 마음으로
천번 만번 지우개질로
나를 말끔히 지우고
그분 앞에 그분 앞아 다시 태어나고 싶네。

지금은 밤
黃金의 힘으로도 王國의 權力으로도
밝힐 수 없는 罪惡의 밤, 罪惡의 밤。
아 나와 내 그림자를 볼수 없는 밤이기에
사람과 짐승이 혼돈된 밤이기에
이 밤을 밝히울 등을 들고 오시는 이
이 세상에 제일 큰 등불들고 오시는 이
그 밤은 불빛 속에
나는 다시 태어나고 싶네。

【78년 한국일보新春文藝 詩 當選作】

記者의 눈

달갑잖은「서울發 急電」

한국에 관한 外信의 관심이 점차 증대하고 있는가운데「서울발 어전트」도 부쩍 잦아지고있다。「세계속의 한국」을 실감케 하는 일이다。

官寮의 참살사건도 그중의 하나다。외신은 27일아침 일제히 이사건을 急電(어전트)으로 다루면서 AFP는「살인」、로이터는「경찰관」、UPI는「狂亂」、AP는「총격」등의 제목으로 속보를 냈다。로이터통신은 잠자는 경관의 애인이 파리를 쫓기위해 경관의 가슴을 친 것이 엄청난 유혈극의 원인이 되었다고 기사의 서두를 시작하기도했다。

해방후 6·25를 거치면서 한국은 外信의 주요관심대상이 되어왔다。70년대의 고도성장결과로 최근들어 한국의 경제에 관한 외신의 관심도도 높아지긴 했으나 아직까지는 南北 긴장에 관련된 것들이 관심의 주류를 이루어 왔다。

그런 시각에서 볼때 외신이 官寮사건을 톱보기사로 다룬것은 우리에게 달갑잖은 의미를 던지고 있다。한국에 관한 보도가운데 살인사건이 톱보기사가 된 예는 거의없었던 일이기 때문이다。

李潤相군 유괴살해범 朱永炯이 검거돼 국내매스컴이 온통 이 사건으로 흥분하고 있을때 외신들이 거의 이 사건을 보도하지 않았던 것과 비교할때 이사건이 내외에 던진 衝擊의 度를 짐작할수 있다。

외신은 세계도처에서 빈발하는 끔찍한 사건들을 전하고있다。따라서 웬만큼 큰사건이 아니면 다루지 않을만큼 그들의 감각도 무디어 있다。

외신이 官寮사건을 충격적으로 받아들인것은 희생자가 많았다는것 외에 범인이 공권위의 상징적 존재인 경찰관이었다는점을 주목했기때문으로 보인다。82년4월「서울發 어전트」그것은 너무 잔인했다。【林鍾乾기자·外信部】

流星의 賦 〈372〉

李炳注 作　李友範 畵

고독한 英雄 ㉗

신불은 무회한(無悔寒)으로 있던 시절 친하게 지낸 원술(元述)이란 사람을 만나 고려 첩자로 된 다기(茶器)를 구하라고 일렀는데, 그 다기가 마련돼있을 때를 기하여 우회다에게 면회를 신청한것이다。

신불은 재남으로부터 왜국의 괴수 풍신수길이 첩자 다기를 좋아하길 미친듯 하여、그런 것을 상납하는 부하를 특히 총애한다고 들은 적이 있어 계교를 꾸몄던 터였다。그러니까 그 다기를 재남으로부터의 선물이라고 꾸며댈 참이었다。

원래 우회다는 직접 신불을 만날 작정이 아니었는데 진기한 첩자 다기를 헌상한다고 듣고 본인이 직접 나타났다。수길에게 줄 헌상물을 마련할 수 있을지 모른다는 기대 때문이었다。

아니나 다를까 신불이 바친 첩자다기는 우회다가 보기는 극상품이었다。

『홍공의 마음이 이처럼 갸륵할 줄은 몰랐구먼』

하고 우회다는 이미 준비해둔 답서를 바랄까、하는 생각마저 없었다。

그 답서엔

『貴國의 제의는 원한 고마운 것이었으나 우리는 이미 귀국의 응낙으로 화의건(和議件)을 저절히 놓고 그 회답을 기다리고 있는지라 별도로 화의할필요를 느끼지 않소。다만 유감인것은 귀국과우리의의 영향관계로 인하여 서로 통을 지척지간에두고 있으면서 구외를 따사로이 못하는 사정이오。언제인가 화평의날이오면 우리 서로 상화관월(賞花觀月)하며 정의를 새롭게 하사이다…』

하는 극히 의례적인 문면만 기재되어 있었던것이다。

그러나 우회다의 생각만으로 답서를 변경할 수가없어、그 답서를 그냥 신불에게 전하며

『특히 청할 일이 없는가。피차 싸우는 사이라고 할망정 나도 홍공의 우의에 보답하고 싶다』

고 했다。

신불의 답이 있었다。

『이달 그믐날 저희들은 홍부장 겸으로 돌아갈까 하오。그때 필요한 일용품과 나이 많은 제부 몇사람을 나르고자 하니 삼개에 튼튼한 나룻배 하나 대령케하옵시고 그사이의 길에 방해가 없도록 해 주었으면합니다』

우회다는 측근을 돌아보고 세목을 잘 의논해서 절대로 불편이 없도록 하라고 일렀다。그러자 신불이

『아무리 상부에서 자상하게 일러도 귀국의병졸들은 술만 마시면 전후좌우를 모를뿐 아니라 순역(順逆)을 어겨 못할짓이 없으매、불려의 사건을 피하기 위해서 그날밤 주교동에서 삼개나루까지엔 귀국의병이 일체 근접하지못하도록 영을 내려주시면 고맙겠소이다。홍부장의 제부는 이미 연만한 위에 숙환이 있어 조그마한 소동도 치명(致命)의 화가 될것입니다。우리가 바깥에서 한성으로 들어온다면 또 모르되 물러가는 처지에 무슨 말이 있겠소이까』

『좋소。만사 어김없이 거행할것이니 돌아가거던 홍장군에게 내 충정이나 잘 전해주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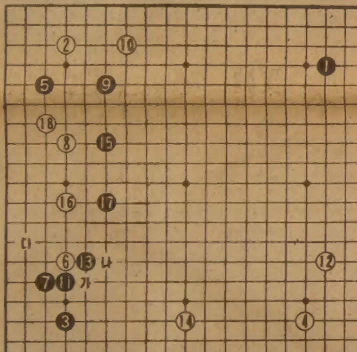
하고 흔쾌하게 웃었다。

남별궁을 물러나온 신불의 행동이 아연 바쁘게 되었다。

제13기 名人戰 挑戰者決定리그

第20局 第1譜 1～18　(각5시간 덤5집반)

白(7段) 河燦錫 〈3勝2敗〉
黑(6段) 徐能旭 〈2勝3敗〉



먼저 이 바둑과 제18국의 사이에 두어져야할 제19국이 빠진 까닭부터 밝혀둔다。

원래는 4승0패로 단연 앞서가는 姜勳4단과 3승2패인 張5단이 제19국을 두게되었었는데 갑자기 姜4단이 대국날짜를 대지못한 때문에 자연 부전패가 되어버렸던 것이다。

이에 관해서는 다음 마지막판인 제21국、즉 姜4단대 徐奉洙7단(4승1패)의 바둑을 소개할때 다시 言及하겠거니와 姜4단으로서는 억울(?)한 1패를 기록한 셈이다。

그것은 그렇고 이바둑은 쌍방이 시드組殘落을 건 중요한 한판이다。徐6단이 승리하여 서로 3승3패의 동률이 되더라도 전년도 순위관계로 자연 河7단이 탈락하게 되는것이다。

시드組 殘落의 고비

좌우간 서로 꼭이겨야할 입장인데 부담감으로 말한다면 河7단이 좀 무겁다 할수 있다。

徐6단은 예에따라 黑1에서 3의 대각선으로 적극적인 포석을 들고나온다。이에대해 河7단은 온건하게 白2、4。실리에 장참한 棋風인 때문일게다。

다만 黑5때 손을빼고 좌하귀를 白6으로 두칸높게 걸친수는 때이른 變身法。보통이면 물론 6은 黑11자리에 걸치는 것이다。

黑11은 두터운수。임기의 好着이라는 편이다。그러나 黑13이 문제인가 싶다。하기야 다음에 黑15、17로 씌우는 웅장한 작전을 전제한것이지만 당장 白14가 빛이나서 의문。역시 13은 白14자리에 선착하고 다음 白13이면 黑「가」白「나」때 黑「다」로 달려서 충분했다는 중론이다。【一人】

533－2361

巨龜莊

북미 최대의 한국식당

한식, 중화요리, 화식, 케네디안식

거구장

주소 : 5 BETHRIDGE RD.
전화 : 742－1618

○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읍니다.
○ 은은하고 감미로운 음악…
○ 흥겨운 댄스를위한 노래가락…

오리엔탈 익스프레스

오리엔탈 익스프레스
매일공연

〈영업시간〉 월·화·수 : 오전11～ 새벽1시
목·금·토 : 오전11～ 새벽2시
일요일 : 오후2시～ 새벽1시

웨트레스급히 구합니다.
742－1618

「묘한 密輸」휴대품 바꿔치기

롤렉스·寶石등 高價品들여왔다 가짜 들고나가

旅券기재난 藥品으로 지워 / 한달동안에 20명이나 적발

롤렉스시계, 보석류, 골프세트, 전자제품등 고급 외제상품을 휴대반입형식으로 들여와 시중에서 비싼값에 처분한후 여권에 적혀있는 표시난을 지우거나 국내에서 비슷한 가짜물건으로바꿔 출국하는 묘한 밀수까지 나타났다. 이같은 신종밀수는 주로 한국을 자주 찾는 사업가 또는 관광객들에 유행하고 있는데 과세대상품목을 출국할때 다시 갖고 나간다는 재수출조건으로 여권에 품목과 수량만을 기재한후 관세를 물지않고 반입할수 있는 현행 관세법의 빈틈을 파고든것.

關稅法 허점 惡用… 관광객등에 大流行
노련한 稅關員·寶石감정시설도 맥못춰

金浦세관은 이들이 주로서울과 부산등 주요도시의 외국상품 거래사정에 밝은것으로보고 이를 막기위해 노련한 세관원을 배치하고 보석감정시설까지 갖추고 있지만 하루 3~5천여명이 입출국하기 때문에 모두 적발해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

이에따라 金浦세관은 오는 7월1일부터 이같은 위반자에대해서는 부과관세의 20%에 해당하는 벌과금을 병과할 방침이다.

30일 金浦세관에 따르면 지난3월 한달동안 이같은수법으로 국내에서 물건을처분하고 화려한 외래관광객이 20명이나 적발됐으며 세금을물은경우가 72건에 달한다는것.

金浦세관은 현재로서는 출국자를 세밀히 체크할수 없어 실제로는 더많은 밀수 외래관광객이 그대로 빠져나갈것으로 추정하고있다.

지난25일 미국인 레이먼드씨(53)는 일제카메라 2대와 소니 카세트테이프레코더 1대를 휴대반입한후 국내에서 처분하고 여권에 기재된 내용을 특수약품으로 지우고 출국하다 적발됐다.

또 칠레서 관광목적으로 입국한 베리오스씨(26)는 0·7캐럿짜리 다이어목걸이를 부산에서 팔고 시중서 3천원짜리 모조품으로 바꾸어 출국하려다 적발됐고 홍콩인 한샤우씨(35)도 롤렉스시계를 국내서 팔아치우고 가짜로 바꾸어나가다 들켰다.

아예 휴대반입사항이 기재된 여권페이지를 찢어버리는 수법도 등원되고있다. 스웨덴의 아카레씨(23)는 소니카세트1대를 휴대반입한후 여권페이지를 찢고 국내서 팔고 나가려다 세관원에 적발되기도 했다. 또 휴대반입한 밀수꾼자를 여권에 줄여 고쳐쓰고 일부만 갖고 나가는 경우도 있다. 재일동포 金모씨(52)는 입국때 골프세트 1세트14본을 휴대반입한후 여권에 기재된 숫자를 고쳐 5본만 갖고나가려다 적발되기도 했다.

세관원들에 의하면 이같은 신종밀수행위는 이들 외래관광객이 국내암거래자와 국제전화를 통해 모의하거나 또는 국내상인들이 외래관광객에 접근, 구전을 얻어주는방법을 동원하고 있다는것.

이들의 밀수는 현지구입가격과 국내가격의 차이가 심하기때문인데 품목별 차액을보면 링스(골프세트)가 30만원, 소니CF70카세트가 22만원, 니콘F3카메라가 26만원으로 매우높아 국내암거래자나 외래관광객의 구미를 당기기에 충분하다.

특히 롤렉스시계(롤비)의 경우 홍콩등에서 70만원에구입할수있으나 국내에서는 9백30만원에 거래되고 또감쪽같이 진짜로 속일수 있는 가짜가 1만원정도면 구입할수 있어 이 수법이많이 쓰인다. 【李鎭기자】

禹순경 支署에도 수류탄 던져

合同수사반 확인

앞집에도 1發… 모두 不發

【宜寧=임시취재반】 경남宜寧총기난사사건의 범인 禹範坤순경(27)은 무기고에서 총기를 탈취한직후인 26일하오9시40분께 자신이 근무하던 宮柳지서에 수류탄 1발을 던진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이같은 사실은 30일 정부합동수사결과 밝혀진것으로 禹순경은 무기탈취후 지서와 지서앞 임정수씨(40)집 구멍가게에 수류탄 1발씩을 던졌는데 모두 터지지않아 그장소에서는 인명피해가 없었다는것.

또 禹순경의 범행은 26일하오9시30분부터 27일 상오3시40분까지 6시간10분동안 土亭, 鴨谷, 雲溪, 坪村里등 4개마을을 24곳에서 실탄 1백35발과 수류탄3개를 터뜨려 모두 90명의 사상자를 낸것으로 공식확인됐다.

禹순경이 탈취한 무기는 카빈M1 2정과 실탄이 1백44발(당초발표는 1백29발), 수류탄8발(〃6발)이었음이 추가로 밝혀졌는데 이중 회수된 무기는 카빈2정과 실탄9발, 수류탄 4발(불발)이었고 수류탄 1발은 사망자 유류품 소각때 폭발했었다.

희생자55명 葬禮式마쳐

綜合開發계획세워「아픔」달래기로

【宜寧=임시취재반】 경남宜寧郡宮柳面은 30일하오 희생자55명의 장례식을 무사히 끝냄으로써 일단 표면상의 평온을 되찾았다.

사태수습 대책본부는 주민들의「아픔」을 달래주기위해 宮柳지구 종합개발계획을 세워 농수로개선등 생활안정에나섰고 경찰도 오명을씻기위한 봉사행정을 시작했다.

대책본부는 세대별 생계실태카드를 작성해 유가족들의 생계를 마련해주기로 하는한편 영농자금으로 무이자로 상환을 연기해주기로했다.

한편 30일상오 雲溪里에서는 朴仁吉씨(42) 일가족 6명의 장례식이 혼자남은 상주 鎭淑양(19)이 오열하는 가운데 거행됐다.

補償金은 通帳으로

한편 관리위는 이밖에 보상비등 돈이 많이 들고 있는것을알고 브로커나 사기꾼들이 덤빌것이대비, 유족과 부상자가족들에게현금대신예금증서를발급, 필요할때돈을찾아쓸수있도록조치키로했다.

連休반납 被害복구 / 宜寧인근 공무원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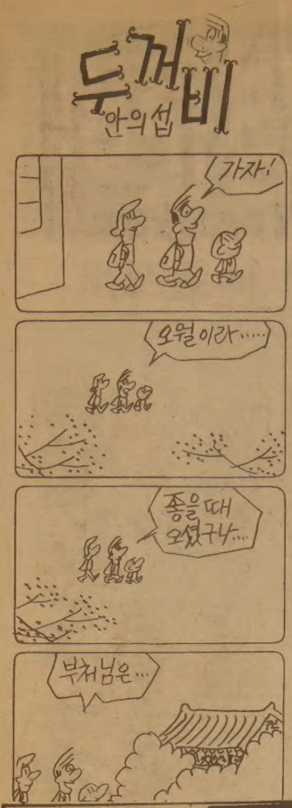
【宜寧=임시취재반】 宜寧郡 총기난사사건의 인근 시군인 晉州市를 비롯 馬山·昌原·咸安·晉陽등의 전공무원은 유가족들의 슬픔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해 1·2일의 연휴를 모두 반납하고 피해현장에 나가 마을복구정리작업을 돕기로 했다.

慶南도교위 성금

사고수습대책본부에는 30일 慶南도교위가 이번 사고로 고아가된 학생들의 학자금으로 2천4백만원을 전달해왔으며 농협중앙회가 공제가입자인 사망자8명에 대해 해당공제금을 지급했다.

禹순경 死體화장 / 어제 가족에인계

【宜寧=임시취재반】 宜寧총기난사사건의 살인마 禹순경의 사체가 30일 새벽2시께 가족들에게 인계돼 앰뷸런스편으로 釜山으로 실려가 화장됐다.



南정發電所공사장서 잇단事故

鐵塔추락 人夫등 2명死亡

【大田】 신설중인 화력발전소 시설공사현장에서 하루동안 2건의 안전사고가 발생, 2명의 인부가 숨졌다.

29일하오6시께 충남 保寧郡周浦面隱浦里에 신설중인 남정화력발전소 송전용철탑시설공사장에서 작업중이던 효성건설소속 공원 박기호씨(23·충북中原郡仰城面陵岩리)가 20m높이의 철탑위에서 실족, 추락해 그자리에서 숨졌다.

또 이날상오11시50분께 인근 고정화력발전소 보일러시설공사 현장에서 작업중이던 인부 오경수씨(전남麗川郡)가 철탑에서 떨어진 무게 48kg의 행거로드에 깔려 그자리에서 숨졌다. 【한】

釋誕日 千19명가석방

無期囚2명·모범소년원생등 포함

법무부는 1일 석가탄일을 맞아 모범수형자 8백91명과 모범소년원생 1백28명등 모두 1천19명을 특별가석방또는 가퇴원시킨다.

이번 가석방에는 무기수2명과 장기수26명을 포함, 증장기수들에게 많은혜택이 주어졌는데 이는 모든재소자들에게 증장기수일지라도 개전의 정이 보일때는 특별은전을 받을수있다는 실례를보여 갱생의욕을 고취시키기위한것이다.

3구간 DDD化

한국전기통신공사는 이제까지 대시(待時)방식으로 운용해오던 서울-太白, 春川-寧越, 原州-洪川간등3개구간의 시외전화를 장거리자동전화방식(DDD)으로변경, 1일0시를기해 개통한다.

이번 새로 개통되는구간의 지역번호는 서울02, 太白1395, 春川0361, 寧越1373, 原州0371, 洪川1366이다.

◇地下鐵붕괴 무악재가 뚫렸다

서울 西大門區峴底洞 지하철 붕괴사고현장이 사고발생 22일만인 30일 하오1시 복구작업이 일단 마무리돼 차량통행이 재개됐다. 지난8일 붕괴사고로 40여명의사상자를내고 교통두절을비롯, 상하수도·통신·전기등이단절, 인근주민은 물론 서울서북부지역시민들에게 큰불편을 주었던 사고지역은 이날폭14m의 4차선도로 개통과함께 하수도·전기·전화선등도 완전복구됐다.

19회 法의날 有功者 포상

제19회 법의날 기념식이 30일상오10시 중앙청 회의실에서 兪泰興대법원장 李鐘元법무부장관 金淑鉉국회법사위원장 金永均법제처장 鄭致根검찰총장 金斗鉉대한변호사협회장등 관계공무원 시민등 4백여명이 참석한가운데 열렸다.

李법무장관은 식사를 통해『아직도 사회일각에서 시행착오적비리가 무질서와 이를 버리지 못하고 국민의화합과 단결을 저해하는 사례가 있음을 부인할수없다』고 밝히고『국민이 주인의식과 확고한준법의식을 체질화하고 공직자가 솔선하여 국법과질서를 준수하며 공정하게 집행해나갈때 법이지배하는 정의로운 민주사회가 될것』이라고말했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상법제정에 공헌한 鄭熙喆교수(서울大법대)에게 국민훈장모란장이, 사단법인한국가정법률상담소(소장李兌榮)에 대통령표창이 주어졌다.

그밖의 포상자는 다음과같다.

▲국무총리표창=법률신문사·사법서사 尹健培 ▲법무부장관표창=金泰鎬(光州지검소년선도위)등15명 ▲대한변협회장표창=尹鍾燮(변호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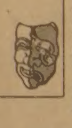
「나무市長」

公職34년… 野人이된 朴英秀씨

"어깨는 가벼워졌지만 가슴은 좁아져"

공직34년만에 野人으로 돌아간 朴英秀씨(54·사진)。그는 市長離就任式 다음날인 30일아침 9시께야 잠에서 깼다. 몇년만인가, 실로 오랜만에 맞는 늦잠이었다. 그리곤 峴底洞지하철 사고현장에가서 말끔히 뚫린 길을 천천히 걸어본후 7시께 공관을비우고 江南區盤浦洞 주공아파트94동106의 자택으로 이사를 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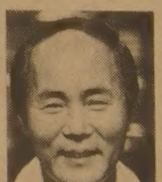
지난1년8개월동안「밝고 맑고 건강한서울」을 외쳐왔던 그는 사실「나무시장」이었다. 길을 걸을때도 차를타고 갈때도 그는 나무를 생각했다. 최장수기록을세운 부산시장시절(71~77년)에도「푸른부산」을가꾸더니 지난해 올림픽을유치한후에는「수도녹화5개년계획」을 시작했다.



그리고 그것해인 올해 벌써 서울은 꽤나 푸르러졌다。年前 한국일보의 컬럼「千字春秋」를 통해「十年之計莫如樹木」이라는 管子의말을 빌어쓰는등 식목의 중요성을 역설하기도 했던 그는 역대시장중 녹지작장을 가장 못살게군 시장이었다.

軍—검찰—稅代—市長으로이어지는 오랜 公職경력가운데 市長을 빼면 그는 드물게보는 우등한 경찰이기도했다。「48년 陸士(7기)를 졸업한뒤 내무부 치안국장을 두차례 복산 3년4개월간이나 역임했다. 朴시장이 野人으로 돌아가던날 경찰시절의 엣동료부하들이 市廳舍입구에 도열, 떠나는 그를 배웅하는 모습은 인상적인것이었다.

그는『신임시장이 식수운동을 계속할것이고 모든일이 잘추진될것』이라면서『이제 좀쉬고싶다』고 말을흐렸다。그는 40년전 고향三千浦의 마을뒤 갈성산을 새벽마다 소를 끌고 오르다 습관이 된 아침산책을 이제 다시할수있게됐다. 하루 3~4갑의 줄담배는 잘줄여질것같지않다. 77년 부인李貞淑씨와 사별, 2남2녀를 결혼시키고 3남과 함께 사는 그는『이제 재혼도 생각해봐야 할것같다』고 했다.



시민들은 그를「바덴바덴의감격」과 함께 기억할것이다. 조용한 성품의 그답지않게 벌떡일어나 만세를 불렀던 긴팔과 破顔을, 귀국직후『가슴은 한없이 넓어졌지만 어깨는 무거워졌다』는 그는 이임사에서『펴가는 시민들에게맡기겠다』고 말했다.

이제 어깨는 가벼워졌지만 가슴은 오히려 좁아졌는지도 모른다. 【任喆淳기자】

過速구급차에 어린이2명 轢傷

치료비조차안줘 말썽

【浦項】 경북蔚珍군립병원소속구급차가 과속으로 달리다 길가에서 놀던 어린이2명을 치어 중상을 입히고도 1개월이 넘도록 보상비는 물론 치료비조차 해결해 주지않아 말썽을 빚고있다.

29일하오6시30분께 경북 盈德郡江口面烏浦洞앞 국도에서 蔚珍군립병원소속 경북7아8183호 구급차(운전사 최윤희·36)가 과속으로 달리다 운전부주의로 길가에서 놀고있던 강상경씨(34·盈德郡 盈德邑 南石洞51)의 장녀 해수양(6)과 같은마을 박진미양(6)등2명을 치었다.

이사고로 강양은 뇌좌상으로 전치10주의 중상을입고 浦項市竹島洞의 변성열 신경외과에 입원치료중이며 박양은 전치 8주의 대뇌부 골절상을 입고 浦項시내 신정형외과의원에 각각 입원치료를 받고있으나 아직까지 蔚珍郡당국은 아무런 조치도 취해주지않고있다는것. 이에대해 蔚珍郡당국은 사고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하지않아 이들에대한 보상을 해주지못하고 있다고 밝히고 피해자들이 郡당국을 상대로 정식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면 법원의 판결에 따라 치료및 보상금을 해결해주겠다고 밝히고있다. 【韶】

反政府유인물 뿌린 成大生1명을 拘束

서울東大門경찰서는 30일 兪炳振군(22·成均館大신방과4년 휴학)을 집회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의하면 兪군은 지난19일 상오11시10분께 서울 道峰區 水踰洞 4·19묘소입구에서「민족과 민중의 꽃과 함께」란 제목의 반정부 유인물 2백20장을 참배객들에게 뿌리려다가 적발됐다.

高大石塔祝祭 취소

高麗大학도호국단은 30일 5월2일부터 5일까지 열릴 예정이던 금년도 石塔축제를 취소하기로했다.

한도호국단의 이같은 결정은 최근 일부학생들사이에대학축제가 퇴폐적인 경향으로 치우쳐 대학문화를 타락시키고 4·19이념의 퇴색을 조장하고있다는등의 이유로 축제자체에대해 강한 반발을보여 취해진것으로 알려졌다.

한달내에 첫 公判 / 美文化院 방화사건

【釜山】 부산지법은 30일 부산지검이 29일자로 기소한 미문화원 방화및 불온전단살포사건을 제4형사부에 배정했다.

이사건을 심리하게 될 부산지법 제4형사부는 安文泰부장판사와 申玗澈 洪光植판사로 구성돼 있으며 이사건의 주심은 申판사가맡았다.

이번사건의 공판일은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았으나 한달이내에 첫공판이 열릴것으로 보인다. 【韶】

사우디韓人·日人이 불우돕기 防衛誠金

사우디에 거주하는 태권도 사범 李태섭씨가 29일 불우이웃돕기성금으로 사우디貨 5백리얄을 외무부를통해 한국일보사에 기탁해왔으며 日本人 요시다께 스스무(志武道)씨도 방위성금으로 日貨 2만엔을 駐日한국대사관을 통해본사에송부, 기탁해왔다.

"목졸린 흔적 발견됐다"

朴尙恩양被殺사건 鄭군 4회公判

상경여대생 朴尙恩양(21) 살해사건의 鄭載巴피고인(21)에대한 4회공판이 30일상오10시 서울지법 東部지원에서 梁基俊부장판사심리로 열렸다.

이날 공판에서는 검찰측이 신청한 증인15명중 朴양의을케등 11명이 나와 증언했다。

사연구소법의학과 검시관 徐載관씨는 朴양의 사체부검결과 목에서 끈으로 졸린 흔적이 함께 발견돼 이것이 직접사인이되었으며 지주막하출혈이 있었고 정액반응은 양성을 보였다고 말했다.

다음 공판은 5월14일상오10시에 속개된다.

1教團 1개校씩

6개神學校 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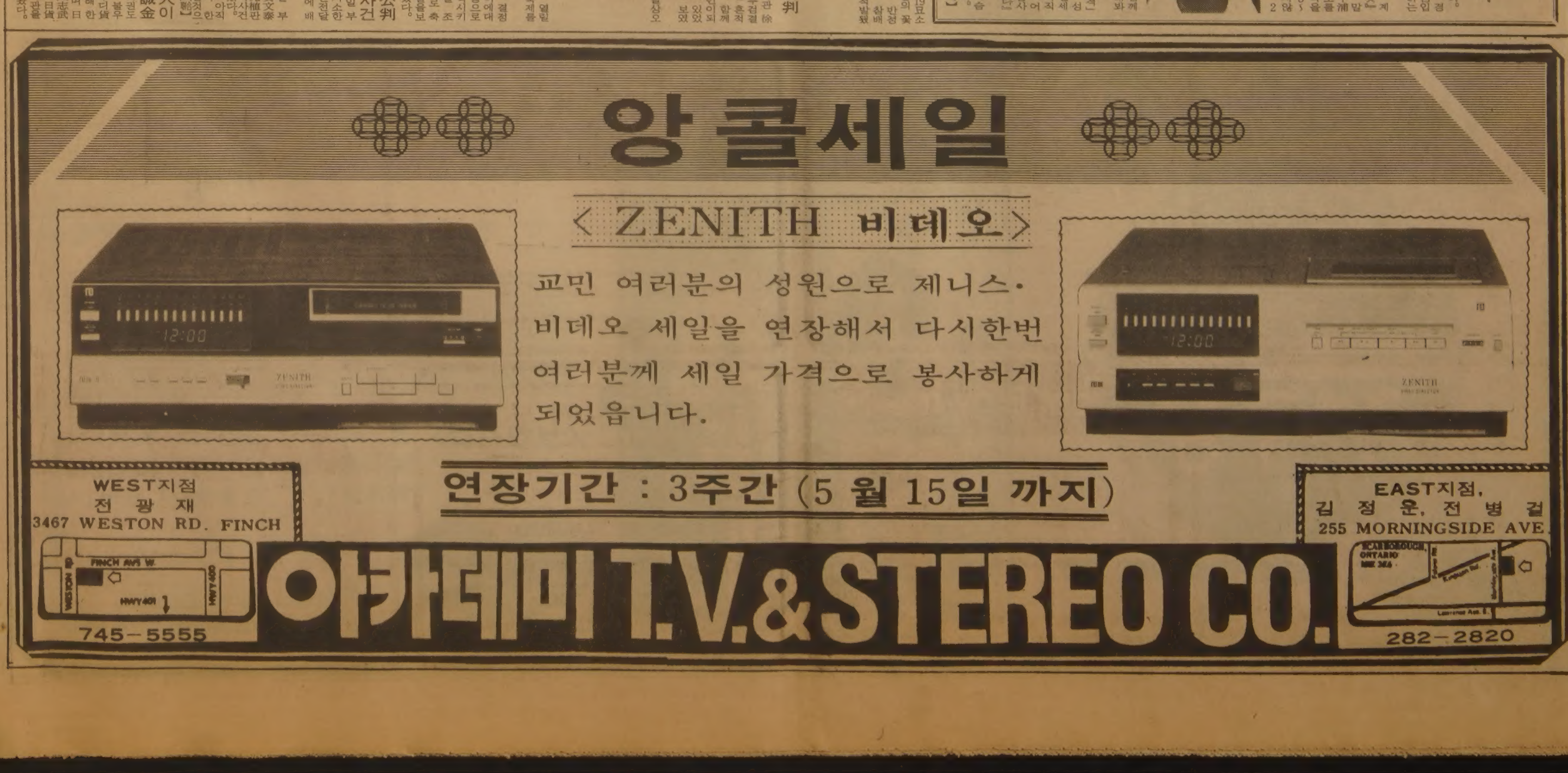
문교부는 30일 내년도 개교예정으로 학교설립신청서를 낸 14개 무인가 신학교중 요건을 갖춘 6개교를 인가했다.

문교부당국자는 이번 학교설립인가에선 1개교단에 1개교설립을 원칙으로 하되 교육시설및 재원조달능력과 82학년도 신입생 모집금지조치 이행여부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인가를 받은 신학교는 종전의 16개교(정원1천6백60명)에서 22개교(〃1천9백명)로 늘어나게 됐다.

새로 설립인가가 난 신학교의 설립자, 교단, 설치학과및 모집정원등은 다음과같다.

▲대전신학교(충남大德)=이영수, 예장(합동), 신학과40명 ▲서울장로회신학교(서울崇仁洞)=姜信明, 예장(통합), 신학과40명 ▲기독교 대한감리회 협성신학교(경기南陽州)=박근수, 기독교대한감리회, 목회학과40명 ▲수도침례신학교(경기水原)=김장환, 기독교한국 침례회, 신학과40명 ▲합동신학교(경기始興)=정몽석, 예장(개혁), 신학과40명



한국 決勝리그 진출

ABC女子농구 印度도大破 A조首位

오는3일 中共과 激突

日本·말聯·마카오·星港도 豫選통과

【東京=李基洪특파원】한국은 印度를 145—42로 대파、2연승으로 A조수위를차지、6강이 겨루는 결승리그에 진출했다。30일 이곳 요요기(代代木)체육관에서 벌어진 제9회아시아여자농구선수권대회(ABC) 사흘째 예선 최종일 경기서 A조의 한국을 비롯、中共(B조) 日本(C조)이 각각조수위를 마크、각조 2위팀(말레이지아 마카오、싱가포르)과 함께 예선리그를 통과했다。

결승리그는 5월2일부터 열린다。예선리그서 대결한 팀은 결승리그서는 싸우지않는다。

이날 싱가포르는 필리핀과의 경기서 71—64로 예상밖의 승리를 거두었다。

사실상 결승전이될 한국과 中共의 경기는 3일하오(2시30분) 열린다。

◇제3일전적

▲A조

한 국 145 (71—30 74—12) 42 인 도

▲동순위=①한국 2승 ②말레이지아 1승1패 ③인도 2패

▲B조

중 공 132 (61—13 71—22) 35 홍 콩

▲동순위=①중공 2승 ②마카오 1승1패 ③홍콩2패

▲C조

싱가포르 71 (33—38 38—26) 64 필리핀

▲동순위=①일본 2승 ②싱가포르 1승1패 ③필리핀 2패

◇결승리그일정표

▲2일=日本—말聯(1시40분) 中共—싱가포르(3시20분) 한국—마카오(5시)

▲3일=日本—마카오(12시40분) 한국—中共(2시30분)〈KBS위성중계〉말聯—싱가포르(4시20분)

▲4일=말聯—마카오(1시10분) 中共—日本(3시) 한국—싱가포르(4시50분)

▲5일=마카오—싱가포르(11시) 中共—말聯(12시40분) 한국—日本(2시30분)〈MBC위성중계〉

朴贊淑과함께 선「人間장대」

◇한국의 朴贊淑(左1m90)과 中共의 인간장대 陳月芳。올해19살(몸무게 1백20kg)의 陳은 큰키때문에 日本매스컴의 각광을받고있다。【東京=李東虎특파원】

센터파이어 拳銃서 朴鍾吉 우승

朴鍾吉(36·지도단)은 30일 泰陵종합사격장에서 폐막된 제2회 전국라이플 사격대회 센터파이어권총에서 5백86점(6백점만점)의 대회 신기록으로 우승했다。

朴鍾吉은 이날 張大雲(지도단)과 같은점수를 기록했으나 경사(競射)에서 1백48점을쏘아 張보다 4점앞섰다。

여자권총경기에서는 金惠英(지도단)이 5백86점의 대회 타이기록으로 1위를차지했다。

여자스탠더드소총 3자세에서는 崔東實(지도단)이、동남자경기에서는 權宅烈(지도단)이 각각 우승했다。

◇최종일 전적

▲여자스탠더드소총 3자세=①최동실(지도단) 560 ②김영미(한일은) 557 ③오은자(〃) 557

▲同남자=①권택열(지도단) 571 ②박영신(〃) 569 ③곽정훈(〃) 568

▲센터파이어권총=①박종길(지도단) 586 ②장대운(〃) 586 (이상경사) ③임태호(〃) 582

▲여성권총경기=①김혜영(지도단) 586 ②임민자(〃) 583 ③문양자(〃) 580

그리닐리프 테니스 李德姬선수 逆轉敗

【그리닐리프(美플로리다州)29日AP=聯合】한국의 李德姬는 28일 美플로리다州 그리닐리프에서 열린 총상금20만달러의 챔피언 여자테니스대회 2회전에서 유고의 강호 미마·조소벡에게 세트스코어 2—1로 역전패했다。

한편 지난대회우승자인 美國의 마르티나·나브라틸로바는 西獨의 베티나·붕게에게 2—1로 승리를 거두고 준준결승에 진출했으며 美國의 안드레아·애거도 준준결승에 진출했다。

84년 亞洲여자농구 개최지등 決定못해

【東京=李基洪특파원】아시아농구연맹은 30일 상오 이곳 다이어먼드 호텔서 집행위원회를 열고 84년 차기 아시아 여자농구선수권 대회개최지 문제를논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내년9월 콸라룸푸르 총회때 결정키로했다。

84년대회개최지로는 한국과 中共이 유력하다。

할렐루야팀 自中之亂

프로蹴球 選手5명반발 退團、除名시켜

李榮武·申鉉浩·趙炳得·朴敏載·金喆用

프로축구팀 할렐루야의 주전급선수 5명이 구단을 이탈했다。30일 할렐루야팀관계자에 의하면 창단주역으로 트레이너와 주장을 겸하고있는 李榮武를 비롯 申鉉浩 趙炳得 朴敏載 金喆用등 5명이 구단의 운영방침에 반발하여 29일 일제히 퇴단, 구단에서 제명됐다。체육인교회 출신인 이들은 지난 22일 서울운동장서 열린 한국대표팀과의 친선경기를 마친후 李秀政단장이『교회활동때문에 연습에 빠지는 경우가 많다。앞으로 훈련에 좀 더 힘쓰라』고 지시하자 이에 반발했다는것。할렐루야를 막후에서 지원해온 崔淳永축구협회장은 29일 이들을 만나『할렐루야축구팀의 목적은 축구를통해 선교활동을 하는것이지만 이를위해 우선 실력있는팀을 만드는것이 중요하다』고 설득했으나 실패했다。할렐루야팀은 오는3일 간부회의를 소집, 선수보강 문제들을 논의한다。

홍콩國際 水泳대회 6월10일、10국參加

【홍콩29日=聯合】홍콩아마추어 수영협회는 오는 6월10일과 11일 이틀간 빅토리아 수영장에서 한국 홍콩 中共 日本등 10여개국의 선수들이 참가하는 가운데 홍콩국제다이빙및 수영선수권대회를 개최한다고 29일 발표했다。

이 대회는 한국 日本 中共외에 濠洲 뉴질랜드 인도네시아서도 남녀선수들을 파견하겠다는 회답을 보내왔다고 설명했다。

金載德 準決에 東京주니어 테니스

日本東京에서 열리고있는 국제주니어테니스선수권대회에 출전한 한국의 金載德(울산공대)은 30일 蘇聯랭킹 1위인 쿠르다를 2—1(6—3, 6—7, 7—6)로물리치고 준결승전에 진출했다고 선수단이 협회에 알려왔다。이대회에는 美國、濠洲、蘇聯등 16개국이 참가하고있다。

全州·世光高도 8強합류

高校야구

中央、殘壘13개…실책많아自滅 5—1

世光 崔東昌홈런、春川에完勝 6—0

7안타의 全州高가 8안타의 中央高를 누르고 제16회 대통령배 고교야구8강에 올랐다。全州高는 30일 서울운동장에서 벌어진 대회5일째 2회전 경기서 2회초 잇단 2敵失을 틈타 결승점을 올리고、6회말 집중3안타로 3점을 추가、中央高를 5—1로 대파했다。世光高는4번 崔東昌의 6회말 솔로호머등 7안타、5四死球、도루6개로 6점을 올려 春川高를 6—0으로 완봉、8강대열에 합류했다。

구슬도 꿰어야 보배。全州—中央전은 전력외에 승운에 좌우되는 야구의묘미를 보여준 일전이었다。

全州는 1회초 2死후에터진 4번 金滿后의 중월 2루타로 1점을 선제했다。

中央은 선두타자가 상대수비실책으로 살아나가고 1死후 3번盧承玖、4번 金炳漢의 연속 내야안타로 1死만루의 유리한찬스를 잡았다。그러나 5번 劉炳宣의 땅볼이 불운하게도 全州3루수의 글러브에 꽂혔다。全州 수비진은 재빨리 3루와 1루를 연결、병살로 위기를 모면했다。

全州는 2회초에도 1死후 포볼과 中央1루수 崔勳載의 잇단 2실책으로 1점을 올렸으며 6회초에는 3안타를 집중、3점을 추가했다。

中央의 안타는 줄곧 2死후에 터진데다 후속타 불발로 13번 진루하여 겨우 한번 홈을 밟아、13개의 잔루를기록했다。

◇제5일2회전

춘천고	000	000	000	0
세광고	001	002	21×	6

▲홈런=崔東昌(6회·세광)

전주고	010	003	100	5
중앙고	000	000	100	1

◇복합 마술서 서운高의 朴相赫이 장애물을 넘고있다。

李龍文盃승마、표준장애비월競技

養正中 金楠珪 무감점優勝

제14회 李龍文장군배쟁탈 승마대회가 30일 陸士마장에서 거행, 포준 장애 비월 경기서 養正中의 신예 金楠珪가 무감점으로 우승했다。7명이 출전한 이 종목서金은 승마공원 소속의「비룡호」로 무감점을 기록、선배 金承煥(연세대)과 동점을 기록했으나 결승 재경기서 이겼다。지난해 우승자 馬載雄도 우승마인「대망」으로 무감점을 기록했으나 경기 규정시간을 2초넘겨 감점0·5점으로 3위에 그쳤다。

馬載雄(중앙대)은 복합마술서 59·9점으로 우승했다。

◇전적

▲복합마술=①馬載雄(중앙대) 59·9점 ②金亨七(단국대) 58·98점 ③申昌武(대구대) 58·7점

▲표준장애=①金楠珪(양정중) 무감점 ②金承煥(연세대) 무감점 ③馬載雄(중앙대) 감점0·5점

▲중장애물비월=①李宗炯(백마구락부) 감점 1·25점 ②徐成浩(대구경신고) 감점4점 ③羅辰洙(서울승마) 감점5점

그라운드 떠난「빨간 마술사」

해태 金東燁감독 유니폼 벗어

코칭스탭 不和에 引責퇴진

「빨간 장갑의 마술사」라는 애칭으로 그라운드를 누볐던 金東燁감독이 유니폼을 벗었다。프로야구팀 해태·타이거즈의 성적부진으로 비롯된 코칭·스태프간의 불화(본지28일자 9면보도)에 따른 불명예퇴진이다。

해태·타이거즈는 30일 물의를 빚은 金東燁감독을 일선감독에서 총감독으로 후퇴시키고、趙昌秀코치를 감독대리로 임명한다고 발표했다。이에 따라 앞으로 해태·타이거즈의 작전、선수관리、훈련등은 趙昌秀감독대행이 맡게된다。

金東燁총감독은 사실상 그라운드를 떠나 팀의 제2선에서 감독과 구단을 지원토록되어「이빨빠진 호랑이」격이 되었다。朴鍾世해태·타이거즈 단장은 金감독이 물의를빚은데대한 책임을 인정、구단의 조치에 동의했으며、柳南鎬코치는 종전대로 투수지도를 맡게된다고 밝혔다。

◇「다정했던 그때」는 어디로갔나。지난2월 光州동계훈련때의 金東燁㊥ 趙昌秀㊨ 柳南鎬트리오。

"나의 野球、現代에 안맞아 物議빚어「프로 팬」에죄송。"

"TV해설로 아쉬움 달래겠다。"

이날상오 여의도 해태기회의 회견장에 나타난 金東燁 총감독은『승리적인 승진이아니라 후배들의 사보타지와 같은 분위기에서 쫓겨나 아쉬운감이 있다』고 말하고『趙昌秀 코치에게 자연스럽게 팀의 지휘를 인계하지 못해 미안하다』고 소감을 밝혔다。

그는 물의를 일으킨 배경에대해『분명히 주의줄만한 사항을 훈계했으나 나의 야구방법이 이미 현대야구에 맞지 않는다는것을 깨닫게 됐다。여건이주어지면 다시 감독직을 맡고싶으나내방식의야구에한계를절감했다』고말했다。

그는 MBC와의 해설전속계약이 82년까지로 되어있고、해태측과의 계약때도 방송해설을 승인받아 MBC의 야구해설에 나설 뜻을 밝혔다。

해태구단의 朴鍾世단장은『물의를 일으킨데 대해 팬들에게 사과한다。이번 사태가 오히려 밑거름이되어 팬들의 사랑받는팀이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해태는 팬들의 요청에 따라 5월초부터 타이거즈 어린이팬클럽을 모집할 계획이다。【方錫絢기자】

스포츠話題

藥物·가짜복싱波紋 수습

全浩然·崔承哲씨「프로모터」返納

健康이유 興行일선 물러나

「매니저」로 拳鬪界서 봉사。

KBC 실무진도 一括사표

◇崔承哲씨

◇全浩然씨

가네히라(金平正紀)약물 파문·泰國가짜선수 원정사건으로 한국 프로권투의 공신력이 크게 떨어진 가운데 가네히라 스캔들을 폭로했던 崔承哲씨(충정프러모션 대표)와 국내대표적흥행사 全浩然씨(극동 프러모션 회장)가 이 사건과 관련, 프러모터 라이선스를 한국권투위원회(KBC)에 반납, 주목을 끌고 있다。

KBC의 梁正圭 회장은 30일 이들의 라이선스 반납에 대해『崔씨는 건강이 나빠 흥행계 일선에서 물러났고, 全씨는 원로프러모터로서최근의사태에도의적 책임을느껴 물러난것으로 알고 있다』고말했다。

金性俊 金相賢 金煥珍 金喆鎬등 세계챔피언을 키운 全씨는『지난 1월 주최했던 白相鉉과 泰國가짜선수 사건때문에 물러난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후진에게 길을 터주기위해 오래전부터 프러모터생활을 청산키로 계획했었다。흥행일선에서는 물러났지만 매니저 라이선스는 그대로 갖고있기때문에 권투계와 완전히 인연을 끊은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全씨는 그의 사위인 金鍾洙씨에게 국내흥행을 일임하고 자신은 美國에서 활동할것으로 알려졌다。

崔承哲씨는 약물중독사건에 직접연관이 되지않았으나『한국프로복싱의 비리를 폭로하겠다』고 큰소리쳤다가 스스로 후퇴, 물의를 빚었다。

한편 약물중독·가짜복서 사건과 관련, KBC의 黃宗洙부회장과 趙翼成 사무국장과 직원, 선수파견및 초청심사위원 전원이 회장에게 사표를 제출했으며 오는 5월3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가짜선수출전에 따른 관련 프러모터등을 징계키로했다。【金仁奎기자】

明暗 84

그해 겨울은 따뜻했네 <100>

朴婉緖 作 金光培 畵

오목이 말 없이 까만 손지갑을 만지작거렸다。버스값을 내줄 때도 그 지갑이었다。

인재의 말이 요술을 부린 것처럼 눈에 보이게 오목이의 얼굴에 드리운 그늘이 가시고 오목조목 예쁜 선이 드러났다。까실하던 볼에 노을처럼 떠오른 홍조(紅潮)가 그녀를 예쁠뿐만아니라 무르익은 여자로 보이게 했다。

요것 봐라。인재는 그녀가 볼때마다 초라하게 보였던 까닭을 이제야 알것 같았다。그건 옷이 수수해서도、화장을 할줄 몰라서도、수지만큼 못생겨서도 아니었다。그것은 그녀 스스로 자신이 얼마나 아름답다는 걸 미처 모르고 있었기때문이라고 인재는 생각했다。

그는 오목이가 자신에 대한 무지로부터 깨어나는 걸 유쾌하고도 신기한 기분으로 지켜보았다。

무엇때문일까? 잠깐 그럴게 의아해했지만 곧 잊어버렸다。그는 되는대로 지껄인 자신의 말도 벌써 잊어버리고있었다。

도대체 민들레꽃을 제비꽃을 그 깊은답에서 불러일으킨 봄의 입김을 누구 본사람 있담? 인재는 오목이의 설래임과 변화가 신기하고 보기좋았지만 히죽히죽 웃는거이상의 책임은 지고싶지 않았다。

『선 본적 있어요?』

오목이가 갑자기 당돌한질문을 했다。

『선이라면 넌저리가 나요』

인재가 어깨로 진저리를치면서 말했다。그도 즉각 어제 선을 봤다는 수지 생각이 났고 아직도 그 뒷소식은 모르고있다는게 모욕스럽고 초조한 나머지 선이란는게 덮어놓고 원망스러웠다。그런 인재가 오목이 보기에 정말로 선에 넌저리가 난 사람처럼 보였다。

『점심 뭐 하실래요? 오늘은 제가 살거예요』

오목이가 딴청을 부리며 짐짓 명랑하게 말했다。

『오무라이스』

인재가 건성으로 대답했다。

『또?』

『여자들도 졸업식날 선을 보나요?』

이번엔 인재가 딴청을 부렸다。

『여자들도라뇨? 마치 남자들이 다 그렇게 한단 소리같군요』

오목이가 평소의 그녀답지 않게 비약하려들었다。그 비약이 얼마나 힘 겨웠던지 그녀의 얼굴은 닳아오르고 눈도 번들됐다。

『졸업식날뿐인가요? 친척이 워낙 번족하거던요。기회만 있다면 중매 서지 못해 숫제 아우성들이죠。어머니가 연로하시다는게 핑계지만, 실은 우리 고향에선 내가 그래도 쓸만한 축에 끼나봐요』

『그럼 스무명의 하객중엔 색시감도 있었겠네요?』

『알게 뭡니까? 이사람저사람 번갈아가며 어깨를나란히 사진찍어주기만도 정신이없었는걸요。시골 사람들 사진찍기 좋아하는건 하여튼 알아줘야 한다니까요』

『하긴 그래요。저 졸업식때도 사촌오빠가 친구들을 데리고와서 괜히법석을 떨더니、점심 먹는 자리까지 따라와서 별 이상한사람다 봤다고 생각했는데 그게글쎄 어른들이 꾸민 맞선이었다지 뭐예요?』

참 그런 방법이 있겠군。어느 한쪽의 승락없이 일방적으로 선을보려면 졸업식같은날을 이용하는게 가장무난할거야。인재는 수지도 순전히 타의에의해 그런방법으로 당했으려니싶자 저으기 마음이 놓였다。

한국일보

533-2361

조 규 혁
종합보험
● 자동차보험
● 화재보험
● 상점보험
● 생명보험
233-6236
745-8236

YOUNG SOOK'S
보석상
○각종보석
○다이아몬드 품질보장
○최저가격
○뉴 디자인
○보석개조 교환매매
○보증서
215 Yonge St. 민 영 숙
(B)368-7961 (R)690-5217

오리엔탈 · 파레스
일요일 영업개시 오후 3 시부터
북경식 요리, 소고기 철판구이,
각종 홍콩식 요리
529 BLOOR ST. W. TOR.
예약 : 533-3545~6

KAWAI 피아노
●KAWAI 피아노는 세계에서 가장큰 회사 중의 하나입니다.
●KAWAI 피아노는 일본 정부에서 그 품질을 보증하는 우수한 피아노 입니다.
●KAWAI 피아노는 캐나다에서 가장 많이 팔리고 있읍니다.
●HILLCREST MALL ☎ : 883-9407
●MARKHAM PLACE ☎ : 881-8211
대표 : 윤호섭
세일즈 매니저 : 알렌

JAGUAR 종합보험
* 저렴한 염가로 여러분께 봉사함.
* 자동차보험.
* 비지네스 보험.
* 집보험.
* 생명. 상해보험. 등
1033 PAPE AVE.
전화 : 425-5656(Miss. 정)

MODERN FURNITURE
ecosys
왜 에코시스 가구가 인기 있을까요?
◆그것은 최고급회사 제품들로서 물건이 특이하고
◆일반 가구점에서 볼수없는 차원높은 가구들이고
◆양심적으로 거래하며
◆사신후에 문제점을 책임지고
◆교포들 에게는 특별염가로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2300 YONGE ST. TOR. (In Yonge-Eglinton Centre)
TEL. 486-0397 김만구

MR. CHOI'S RESTAURANT
주중 : 월~수 낮12시~밤12시
목, 금 : 12시~밤1시
토 : 4시반~11시
2432 Eglinton Ave. E. Scarborough
☎ : 759-8512
최 영 호

Grant Brown
쎄일즈·매스터
이 한 구

각종 왜곤(WAGON)
CADILLAC, PONTIAC
BUICK, GMC VAN,
J2000. 이한구
1575 WESTON RD. B) 247-7161
WESTON, ONT. R) 977-2731

개업 특별봉사
숙녀복(Ladys Wear) 전문
공장생산가격으로 직매합니다.
→상세한 바느질과 고급제품
월~금 : 10시~6시, 토~일 : 10시~4시30분
BOSCHE CO.
292 Parliament St.(at Dundas)
☎ : 362-2300 MR. 리

거구장
결혼 회갑 생일잔치 동창회 및 각종 피로연 예약 환영
영업시간 : 월~수 오전11시~새벽1시
목 금 토 오전11시~새벽2시
일 : 오후2시~새벽1시
오리엔탈 익스프레스 매일공연
5 BETHRIDGE RD. ETOBICOKE
☎ : 742-1618

은하보석

개업 6주년 기념

「캐나다연방정부의 보석가공공장면허소지업체」

로렉스시계 진품을 원하세요? 북미에 유일하게 존재하는 한국인의 로렉스 판매대리점. 계속 앞서가는 은하보석을 찾아주세요.

각종화장품을 비롯한 귀국선물도 취급하고 있읍니다.

로렉스 여자용 수동식
금시계 염가판매

★투자용 금괴매매 업무를 시중은행과 동일하게 시작 했읍니다.
「단 1온스당상. 금괴매 매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 후4시까지. 월~금요일이며 익명보장」

순금개시

★순금목걸이, 반지, 팔찌도 만들어 팔며, 가격은 무게로 생각할때 14금 제품 보다 훨씬 싸게 먹히고 다시·본사에서 사들이기도 함.
단 한국에서 생산된 순금 제품은 본사의 순도검열을 거쳐야 함

다이야몬드 도매가격 대매출

「은하보석이 금·은 보석을 도매로 팔수있는것을 캐나다법이 인정합니다」

STOCK	CARAT	COROUR	CLARITY	PRICE	STOCK#	CARAT	COLOUR	CLARITY	PRICE
A934	1.70	J	VS-2	12,500	M20	0.94	J	I-2	2,900
AP701	1.50	I	SI-2	7,450	AP706	0.81	I	SI-2	3,100
AP702	1.25	H	S1-2	5,700	AP707	0.80	I	VS	4,300
A1018	1.24	H	VS-2	8,440	AP708	0.77	I	SI-2	2,890
619	1.36	J	I-1	4,350	AP709	0.72	J K	VS-2	2,550
AP703	1.11	I	SI-1	6,150	837	0.78	E	VS-2	4,950
AP704	1.06	G	S1-2	4,750	A638	0.62	H(Heart)	S1-1	2,200
AP705	1.05	L	S1-1	4,850	B301	0.65	JK	I-2	1,250
M19	1.03	J	I	4,350	M21	0.58	G	VS-2	2,590
A1032	0.65	I	VVS2	3,063	A1003	0.51	E	VVS-1	3,690
M22	0.56	I	VVS1	2,850	M23	0.50	I	SI-1	1,800
M24	0.54	H	I-1	2,150	B302	0.58	JK	I-1	1,150
B303	0.53	JK	S1-2	1,170	C430 C437	0.43	JK	S1-1	690
B304	0.37	JK	I-1	590	M25	0.41	J(Marquise)	VVS-2	990
M32	0.37	G	VVS-2	1,560	M33	0.41	JK	S1-2	699
M34	0.38	JK	VS-2	710	M37	0.33	JK	I-1	510
M39	0.35	JK	I 1	499	M38	0.33	H	I-2	550
C296	0.30	H	VS-2	680	M35	0.35	JK	VS-2	680
M36	0.34	JK	I-2	499	C299	0.31	H	I-2	499
M42	0.34	JK	S1-1	480	C291	0.30	H	VVS-2	990
M41	0.30	JK	I-I	470	M40	0.32	JK	I-2	410
D 333	0.31	H	VVS-2	1,200	M51	0.35	G	VVS-2	1,250
A 662	0.31	H	VVS-2	1,230					

상기 다이야몬드 품질표시는 미국 G.I.A.CODE에 준하고 가격에는 반지값이 포함되어 있지 않읍니다. 반지가격은 디자인에 따라 격차가 있으나 대충 $70에서 $150 정도로 본사에서 봉사해 드릴수 있읍니다.

은하보석상

620A BLOOR ST. W.

☎: 534-9977, 534-7791

여객기는 自動車보다 더 安全하다

여객기는 얼마나 安全한가。처음 비행기를타는사람은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공포감비슷한걸 느끼게 마련이다。『빌딩처럼 큰 이비행기가무사히뜨고 내릴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얼핏 머리에 떠오르곤 하는 것이다。그 감정을 어리석거나 촌스럽다고 말할수는없다。가까이는 일본 JAL機의 추락사고와 金浦에서의 KAL점보기 착륙사고에서 부터 멀리는 UN사무총장 하마슐드나 복싱미들급 챔피언 마르샐세르등과 같은 사람도 비행기추락으로 세상을 뜬것은 세상이 모두 잘아는일이 아닌가。

탑승경험에따라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승객의 60%정도가 비행기를 타면 불안감을 느낀다는것이 외국의 통계자료다。세기의 철권 무하마드·알리도 비행기여행이 불안했던지『세상에 무서울게 없다。하지만 비행기에 오르면 떨어질것만 같단말야』라고 고백한적이있다。사실 비행기를 많이타는 西歐人들도 이·착륙할때면 눈을 감고 성호를 긋는것만 봐도 비행기탑승에 대한 잠재적불안이 있다는걸 증명하고있는 것이다。

비행기를 타고서 느끼는 두려움은 고공 밀실 공포증, 현기증및 금속물체가 허공을 날고 있다는 사실등에서 생기는 것이라고 정신과 의사들은 말한다。

그러나 걱정할건 없다。항공전문가들은 기체자체에 대해서는 믿어도 좋다고 말한다。인류가 만들어 낸 교통수단중에는 제일 안전한 기계라는 것。美교통안전기구(NTSB)가 분석한 사고발생률을 비교해봐도 자동차가 매 10만시간당 5%인데비해 비행기는 0·3%정도。비행기여행이 京釜고속도로를 달리는 것보다 10배이상 안전하다는 이야기다。

점보를 비롯한 제트여객기의 조종장치는 2중 3중으로 설계돼 있어 하나의 장치가 고장나면 자동조정이 가동되며 이것마저 불통일땐 수동으로 계기조작이 가능하다。수동마저 불통일땐 기장만이 아는 비상수단도 있는데 여기까지 이르는 예는 거의 없다。또 기체의 고장은 조종석의 계기에 거의 포착되며 엔진에 불이 나면 자동소화가 되도록 설계돼 있기도 하다。

승객이 안전을 위해 필수적인게 여압장치。이것으로 1만m이상의 순항고도에서도 승객들은 2천m고도에서의 기압과 산소량을 공급받아 큰 불편이 없다。설사 이 여압장치가고장나더라도 천장에서 산소마스크가 저절로 떨어지고 승객들은 비행기 고도가 2천m까지 내려가는 동안 산소공급을 계속 받게 된다。

대한항공 운항담당 金相默상무는『비행기란 교과서대로 정비하고 조종하면 불가항력의천재지변이 없는한 대형 사고는 안나게 되어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비행기사고가 심심치 않게 터지고 있다。

◇탑승후 여승무원이 구명조끼입는법을가르쳐주는 모습。「낮은 사고율, 높은 사망률」이 비행기사고의 특징이다。

離着陸 전후「魔의 11분」

알리도 "비행기 탈때는 무섭다"

非常착륙때 머리·무릎새 베개넣고 뒷머리감싸 만년필·핀등버리고 하이힐 벗어야

사고율은 낮지만 한번났다하면 희생률은 높다。

지난 53년이래 1백명이상숨진 비행기사고는 46번있었다。국제민간 항공기구(ICAO)에 의하면 60년~70년사의 20년간 전세계에서 5백84건의민간항공기사고가 났고 이로인해 1만6천2백52명이 생명을잃었다。사고기탑승객의 생존율은 25%에 불과하다。

비행기 사고로 죽을 확률은 1백만명의 탑승객중 3명으로 어느 개인이 매일 한번씩 비행기를 탄다고 가정하면 9백13년에 1번꼴로 죽을 확률이 나온다。

비행기사고의 원인은 승무원의 실수(80%) 정비 불량(13%) 자연여건(7%) 등으로 구분되고 있다。결국 사람의 실수로 일어나는 사고가 93%에 달한다는 이야기다。

또 비행기 사고는 이·착륙때 81%가 일어난다。이륙보다는 착륙때가 사고 발생률이 더 많다。전체 비행기사고의 55%가 착륙때, 26%가 이륙때 발생한다。80년 11월 발생한 KAL점보기사고, 지난 2월의 JAL DC8기 사고는 착륙실패였고, 워싱턴 포토맥강에 보잉727이 추락한 사고는 이륙실패 사고였다。그래도 사고발생률과는 달리 조종사들은 이륙이 착륙보다 어렵다고 말한다。

이·착륙때 사고가 많기 때문에 조종사들은『이륙후 3분, 착륙전 8분을 합쳐「魔의 11분」이라고 부른다。

고공에서 비행기가 서로 충돌하는 일도 더러있다。특히 유고슬라비아상공이 악명이높다。英國BA항공의 트라이던트와 계기고장을 일으킨 유고항공소속DC9가 충돌, 1백74명이 죽은일이 있다。

관제지시에 혼선이 와도 사고는 크다。지난 77년 카나리아군도에서 발생한 KLM(화란)과 팬암소속점보기가 관제지시를 오인하는 바람에 활주로에서 충돌, 항공사상 최악인 5백81명이 참사했다。그래서『조종사실수엔 비행기 1대지만 관제사실수엔 2대』라는 말도 있다。

비행기란 것이 공기를 타고 다니는 기계고 보면 기상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안개·눈·벼락·비, 때로는 바람도 안전운항의 적이 된다。안개의 위력은 金浦공항 KAL점보기사고때 익히 알았지만 벼락은 때에따라 무섭다。기체엔 벼락을 흡수할수 있는 피뢰침 장치가 있어 웬만한 벼락엔 끄떡없다。

그래서 오래된 비행기 동체엔 벼락맞은 자리가 곰보자국처럼 남아있다。그러나 큰벼락을 만나면 기체가 파손되고 사상자도 생긴다。

1만m상공에 뜨면 구름이없는게 보통인데 비행기 앞에 독버섯같이 초가뇌운(積雲)이솟아올라 있을땐 영낙없이 벼락을 맞는다。조종사들도 이걸보면 간담이 서늘해지나 비행기 주둥이에 붙은 레이다로 이 구름을 미리 포착할수 있기 때문에 피해간다。

레이다로도 안잡히는게 에어·터뷸런스라 불리는 난기류(亂氣流)。

난기류도 무섭지만 高山의 풍향, 반대편에 발생하는 와류(渦流)는 가장 위험한 바람이다。여기에 비행기가 들어갔다간 성한채 나오질 못한다。

지난 67년 영국 BOAC보잉707이 東京에서 홍콩을 향해 일본 후지산 상공을날다 이 와류를 만났다。날씨는 청명했고 후지산이 [illegible]처럼 고요히 떠있었다。탑승객 1백24명을 실은 기체가 공중에서 산산조각이 났다。사고기의 블랙박스를 해독한 결과는 회오리 바람소리 뿐이었다。조종사들 사이엔『맑은날 후지산을경계하라』는 말이 나올정도다。

어쨌거나 비행기사고는 났다하면 가공스럽다。그래도 사고로부터 탈출하는 방법은 없을까。

비행기가 불의의 사고로 비상착륙을 할때 승객은 승무원의 지시에 따라야하지만 승무원이 끝까지 구조해줄 것으로 생각해선 안된다。좌석을 꼿꼿이 세우고, 안전벨트는 꽉죄며 베개를 머리와 무릎사이에 넣고 두손으로 뒷머리를싸, 깍지를 낀다。이때 몸에있는 만년필·볼펜·핀·빗등은 다버려야하고 여자의 경우 하이힐을 신어서는 안된다。

비행기가 위험한 상태로 비상착륙을 해도 기체가 워낙 튼튼하기 때문에 치명적은 아니다。뒤따라 일어난 기내화재로 인명이 더많이 희생되는 것이다。따라서 비상착륙때는 비행기가 멎는순간 재빨리 미리 마음속에 정해놓은 비상탈출구를 통해 비행기에서 재빨리 멀리 달아나는것이 상책이다。

<金首宗기자>

알뜰 해외여행

初行者를 위한 가이드

구독신청은
533-2361

나무 파수꾼

植木日의 농림기사보金勝會씨

비와도 걱정…山불염려…매일山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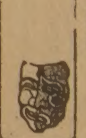
「동부영림서 강릉관리소 현북보호담당구」라는 길고 낯선 간판이 붙어있다。

강원도襄陽郡縣北面、河趙臺해수욕장에서 내륙쪽으로 좀 떨어진 곳에 자리잡은 작은 집이 산림파수꾼들의「초소」이다。

7급19호봉 농림기사보 金勝會씨(44·사진)는 이 말단기관의주인。고용직1명을 포함, 자신까지 5명의 공무원이 일하는 기관이지만 지서주임처럼 엄연한시골기관장이다。

우람한 체격에 검게 그을은 얼굴빛이 더욱 건강해보이는 산사람。

『나무 지키는 것이 일이니 날마다 산을 올라야하지요。그러니 건강할수 밖에요』



65년 巡山員으로 첫발을 떼었으니 벌써 17년째, 강원도의 험준한 산마다 그의 발길이 닿지않은 곳이 없다。깊은 산속에서 길을 잃고 밤새도록 계곡을 헤메이기 몇번인지、승냥이 여우를 만나 놀라기 몇차례였는지 셀수가 없단다。때로는 도벌범을 잡으러 갔다가 몰매를 맞기도했고, 산불 낸 범인을 잡기위해 몇날며칠을 숲속에 잠복하기도 했다。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표가 나지않는것이 우리의 일이지요。그러나 외롭지는 않아요。나무들이 알아주니까요』

길동무도 없는 산길을 끝없이 걸어야하는 외로운 직업이지만 자기들의 노력으로 산불과 병충해와 도벌이 예방되고, 그러는사이 太白산맥의 수목이 날로 푸르러가는 것이 비교할데없는 보람이라는것이었다。

『처음 산림공무원으로 들어왔을때만해도 도벌·남벌이 무척 많았읍니다。정말 화가 나더군요。많이 잡았지요。그러나 이젠 야음을 틈타 트럭을 동원하는, 그런 기업도벌은 없어졌읍니다』

그는 도벌피해가 줄어들어 안심할만 해지니까 산불걱정이 생겼다고 했다。오래 가물면 산불걱정에 마음이 타고, 비가오면 마음이 그렇게 편할수 없단다。

약초나 산나물을 캐러가는 사람들에게 산불조심 서명을 받아내고 등산객들에게 리번을 달아주기도하며, 만나는 사람마다 입버릇처럼담배불조심을 당부해도 마음이 놓이지않는다는「산림간수」「金서방」。

사무소와 붙은 관사에서 자취생활을 하면서 휴일이면 江陵집으로 달려가 가족을 만나는 생활인이기도 하지만 산화경방기간이 끝나는 5월말까지는 일요일도없고 식목일(5일)도 그에게 휴일이 못된다。

【강원襄陽=文昌幸기자】

토론토한인교향악단

제 4 회 공연

교포여러분의 힘찬 성원으로 지난1년동안 놀랍게 성장해온 토론토 한인교향악단은 세계적으로 알려진 첼리스트 정명화씨를 초청하여 아래와 같이 이 제4회 공연을 베풀고저 합니다. 이번에도 함께 나오셔서 아름다운 예술의 향기를 즐기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지 휘 : 김 승 순(Sung-Soon Kim)
첼 로 : 정 명 화(Myung-Hwa Chung)
곡 목 : 1) Rossini—Overture to "William Tell"
2) Dvorak—Cello Concerto in B Minor, Op 104
3) Beethoven—Symphony No. 7 in A Major, Op 92
장 소 : RYERSON THERTRE (43 Gerrad St. E.)
일 시 : Saturday, May 29, 1982 8:00 P.M.
티 켓 : A석 : $10, B석 :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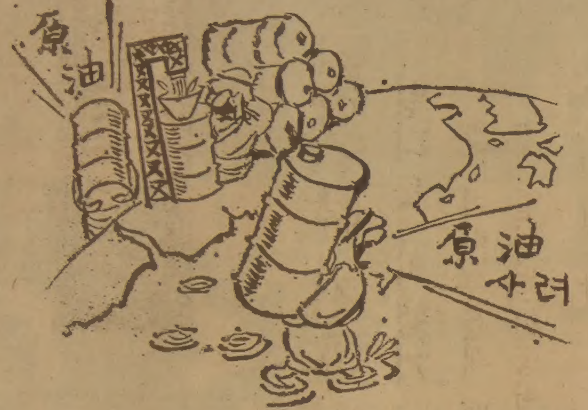
※티켓문의처 :
TORONTO KOREAN PHILHARMONIC ORCHESTRA
2900 STEELES AVENUE EAST, SUITE 220, THORNHILL, ONTARIO, CANADA L3T 4X1 TEL: (416) 881-8211

최태권종합회계사무소
INCOME TAX Service
※개인 세무및 보고서 작성
※사업회계및 장부정리
637A BLOOR ST. W.(한국관 건너편)
☎ (B) 533-7573, (R) 699-3591 최 태 권

週刊한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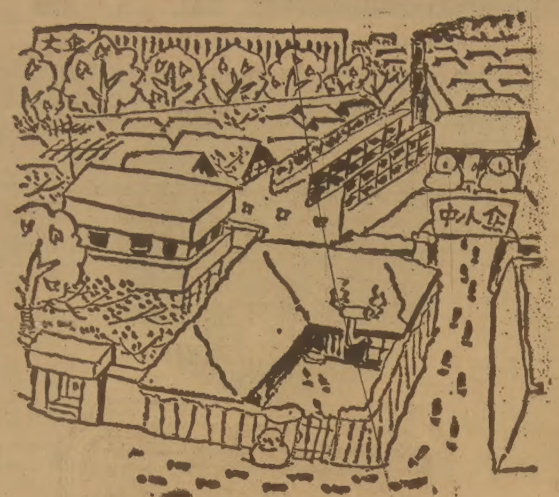
※언어 학습기구를 이용해서, 당신은 영어나 다른 외국어를 당신집에서 3개월간 배울 수 있읍니다. 이것은 일하거나 바빠 학교에 다닐수 없는 사람을 위해 이루어진 제도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
SAVE-O-WAY AD. CO. 533-7324, 533-4966

안의섭 時事 칼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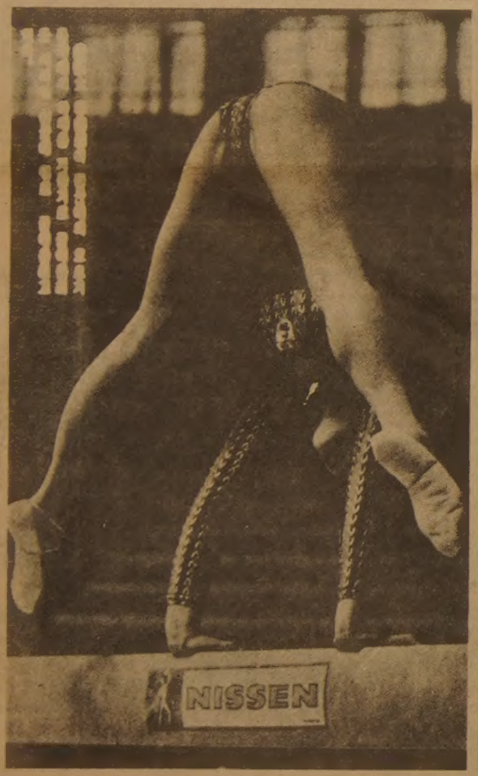
다라팔자도 시간문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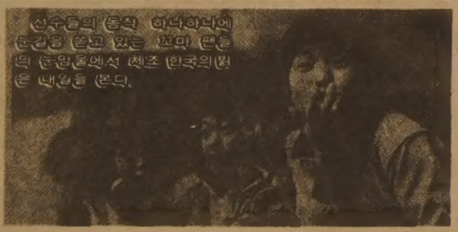
두꺼비 漫評



봄에 온곳과…안온곳과—

週刊한국 스포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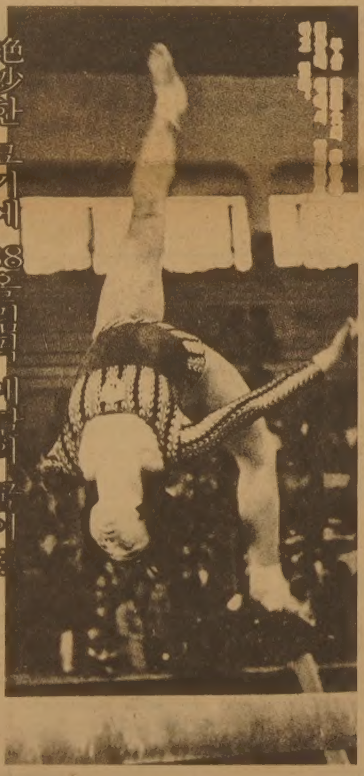




선수들의 동작 하나하나에 눈길을 쏟고 있는 꼬마 팬들의 눈망울에서 체조 한국의 밝은 내일을 본다.

사진으로 본 하이라이트

대회사상 처음으로 많은 선수(53팀 3백36명)가 출전, 묘기를 보여준 제7회 KBS盃 쟁탈 전국 체조대회가 지난 4월 16·17일 잠실학생체육관에서 열렸다. 초·중·고·대학 남녀 체조선수들이 뜀틀, 철봉, 평행봉, 링에 매달려 묘기를 보여준 체조는 올림픽에서 많은 메달이 걸린 기본 종목. 그래서 88 서울올림픽 메달획득의 꿈을 키우는 어린 선수들에게 거는 기대는 그만큼 큰 지도 모른다.
〈사진 日刊스포츠 徐鍾直 기자〉



大田女中 沈載英이 보여준 마루운동의 유연한 동작. 대지를 박차고 비상하려는 한마리 학의 아름다움이 숨어 있다.

제일여행사

■ 모국방문 특별요금
KAL(뉴욕 또는 LA 경유)
CP, JAL(VANCOUVER 경유)
■ 국내, 국제 항공권 일체
■ 각종단체 관광요금
■ 여권, VISA 수속 서비스
■ 방문초청, 이민초청
(제반수속 안내및 작성)

(B)535-2377
(R)366-0864
649A BLOOR ST. W.
유지원
신용목

제2회 한인친선낚시대회 개최공고

일 시 : 5월 24일〈빅토리아 데이〉 오전 9 : 00~오후 4 : 00
시 상 : (1)특등, (2)대어 1 등, (3)대어 2 등, (4)대어 3 등, (5)4 등, (6)5 등, (이상 모두 PIKE에 한함), (7)잉어대상, (8)회귀상, (9)노익장상, (10)부부상, (11)아동상 〈12세 미만〉

※주의사항 :
1. 등록비 $5를 납부하고 등록번호를 받을것.
2. 82년도 회비 필한 회원은 본회가 주관하는 대회에 수시로 등록비가 면제되며 선거 피선거권과 리셉션에 초대함.
3. 1인 낚시대 1개 바늘2개 이하사용
4. 본인이 잡지않은것은 인정하지 않으며 질서가 문란한 선수는 입상에서 탈락될 수 있음.
5. 잉어상, 회귀상, 부부상, 아동상등에 해당자가 없을때에는 시상식후에 등록번호로 추천함.
6. 1인 입상을 불허함.
7. 낚시대, 바늘, 미노스, 떡밥, 지렁이등 각자지참.

※대회조직 :
대회장 : 정삼열 부회장 : 곽창수 총무 : 최남해
진행 : 이장관, 백은범 재무 : 김종근 심사위원장 : 강철용
심사위원 : 김재용, 이근호, 구진모
안내 : 755-9902 정, 298-7806 최.

후원 : 총영사관, 한인회, 한국일보
찬조 : 무역진흥공사, 동궁식당(곽창수), 한국식품, 불로아안경(구진모), 미도파선물(장추신)

--- 토론토한인낚사협회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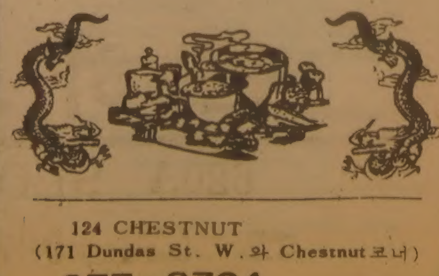
意安飯店
의 안 반 점

홍콩식 그대로의 분위기
새벽4시까지 영업

일류 요리사가 만드는 전통적인 광동식 요리, 경제적이고 실질적인 값싸고 맛있는 음식.

※항상 신선한 랍스타, 게, 굴, 해삼, 전복등을 준비했읍니다.

영업시간 :
월~금 : 4 PM~4 AM
토~일 : 12PM



124 CHESTNUT
(171 Dundas St. W. 와 Chestnut 코너)
977-9734

週刊한국 스포츠

관중석

권투 구경에 아기 업은 아주머니도

금년에는 서울에서 세계야구선수권 대회가 열린다. 또 국내에서 프로야구가 생기나 야구에 관한한 우리는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다. 경기가 프로화됐으니 관객도 프로화 해야할텐데 경기장에 소주병이 어지러이 날아들고 화장실에 오물이 넘치는 부끄러운 모습이 아직도 남아 있으면 어떻게 할까―걱정을 하며 야구장을 찾아봤다. 그러나 해태―三美의 경기가 벌어지고 있는 지난14일의 서울운동장 야구장은 관객수준이 경기수준보다 오히려 한수 위였다.

■…14일 하오1시30분 서울운동장 야구장 매표소. 경기시작 30분전의 매표소는 한산했다. 아직 프로야구에 대한 인기가 본궤도에 오르지 못했는지 고교야구때와 같이 장사진을 친 모습은 없었고 줄을 서서 질서정연하게 표를 사는 관객의 질서의식을 체험해볼 기회도 없었다.

■관객소지품 체크

입구에는 6명의 경찰관이 무릎토록 서서 입장하는 관객의 소지품을 눈여겨 보고 있었다. 백을 들고 들어온는 관객은 백을 열고 소주등 병에 들어있는 주류를 몰래 갖고 들어가는지 일일이 체크했다. 그러나 10여분을 입구에서 지켜보았으나 소주병반입은 한건도 적발되지 않았다.

평일이고 경기의 비중이 크지 못해서인지 관객의 수는 적었다. 개막식날 표를 구하지 못해 안달을 하던 때의 성황은 찾을 길 없고 백네트 뒤 특석 지정석에 1~2백명, 외야석에 2~3백명, 1루쪽 스탠드에 1천, 3루쪽 스탠드에 1천정도 도합 2천여명정도의 야구팬이 다소 쓸쓸하게 자리잡고 있었다. 개막식날 화려하게 선을 보였던 각팀의 응원단의 모습도 서울운동장에는 없었다.

이날 서울운동장에서는 해태―三美의 경기가 벌어졌는데 서울운동장은 MBC청룡의 홈구장. 남의 동네에서 반 지방팀들이 경기를 갖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것인지 아무래도 모를 일이었다.

야구장을 찾는 관객의 라디오휴대는 거의 보편화되어 있어 대부분의 관객이 라디오를 갖고 있었고 또 구내에서 소형라디오를 팔기도 했다. 라디오는 딴지방에서 벌어지는 경기에 맞춰 놓고 눈으로는 서울경기, 귀로는 또 딴 게임을 듣기는 모습도 많았다.

■'프로가 뭐이래'

입장료는 특석이 5천원, 내야가 3천원, 외야가 2천원. 다소 비싸다는 것이 일반적인 반응으로 야구경기가 있을때는 거의 빠짐없이 야구장을 찾는다는 열성야구팬 金[illegible]龍씨 (42·江西區禾谷洞)는 『하루 야구장에 나오면 왕복차비, 입장료에다 음료수라도 몇병 마시게 되고 1만원정도의 돈이 든다』며 내야석 3천원은 다소 부담이 되는 액수라고 말했다. 특석은 비싸게 받더라도 내·외야 일반석은 천원씩 내려받았으면 하는 것이 많은 관객들의 의견.

관중석에는 물론 남자의 수가 많았으나 여자의 수도 만만치않았다. 특히 남자와 동반하여 나온것이 아니라 여자들끼리 그라운드를 주시하는 그룹도 여럿 보였는데 이들은 순수한 의미의 야구팬인 셈.

관객은 좀더 수준높은 경기를 원했다. 『프로가 뭐이래』『고등학교애들보다 더 못한다』는 야유가 여러차례 터져나왔고 뚜렷이 어느 팀을 지원하여 응원하는것이 아니라 선수개개인의 움직임을 즐기는것이 일반적인 경향이었다. 이는 아직 연고지의 개념이 뿌리박지 못했고 또 서울은 워낙 여러 지방사람이 모여사는 곳이라 서울시민에게 홈팀이라는 것이 별로 실감이 안나기 때문인듯. 레프트쪽 외야석에는 호남지방출신으로 보이는 일단의 관중들이 해태팀을 열렬히 응원하는 모습도 보였다.

관중의 수준은 상당히 높아 스포츠전문지와 프로그램등을 휴대하고 선수개개인의 성적을 검토하며 관전하는 모습도 많았다.

관중의 매너는 수준급. 일부 고함치고 야유를 퍼붓는 사람이 없는것은 아니나 오히려 너무 점잖았다. 열기가 전혀 느껴지지 않을정도였다. 경기가 과열되지않으니 술을 찾는 관객도 없어 몰래 소주를 파는 사람의

◇술병을 앞에 하고 느긋이 경기를 지켜보는 한관객。

週刊한국 스포츠

◇관객을 가장 흥분시키는 경기는 아무래도권투。 아기를 업은 아주머니도 펀치의 향방을 좇기에 여념이없다。

모습은 볼수없었고 장내에서 파는 소프트빙에 든 마일드라는 술도 거의 팔리지않는것같았다.

서울운동장의 시설은 그런대로 편찮은 편。 우선 내야석에 빨강, 노랑, 녹색의 플래스틱제 커버를 씌워 시멘트바닥에 앉는 불편은 금년부터 격지않을수 있었다。

야구장엔 남자 동반 아닌 女性끼리의 관객도 많아

거의 라디오…눈으로론 서울경기, 귀로는 딴 지방게임

화장실 변기를 새것으로 바꾸고 바닥의 타일도 새로 깔아 제법 청결했다。

매점에는 군만두가 새메뉴로 등장, 꽤 인기가 있었고 스포츠팬들이 늘 불평을 털어놓았던 경기장의 바가지요금은 눈에 띄지않았다。 다만 스탠드를 돌아다니는 판매원이 좋은 공간을 무리하게 비집고 다니는 바람에 중요한 순간을 판매원아주머니에 가려 놓치는 경우가 종종있었고 관객과 판매원아주머니가 이로인해 티격태격하는 모습이 눈에 띄었다。

◇열성 꼬마관객。한순간 한순간을 놓치지 않으려는 듯 망원경을들고 열심히 관전하고 있다。

3루스탠드 맨끝과 1루스탠드 맨끝에는 경비를맡은 전투경찰이 각60~70명씩 줄을지어 앉아있었으나 이들이 동원될 상황은 전혀 일어나지 않았다。

■운동장의 꼬마들

경기가 끝난후에는 주로 어린이관객들이 운동장으로 뛰어내려 다소의 혼잡을 빚었는데 이점은 지양되어야할 듯。

이날 경기의 스타는 단연 金一權。 첫타석에서 중전안타, 다음타석에서 중월 홈런을 기록한 金은 관중들의 가장큰 박수를 받았고 해태 金東燁감독은 특유의 제스처로 구경거리를 제공했다。

경기는 10―2로 해태의 일방적 승리。 경기과정에서 프로답지 못한 에러를 연발하는등 관객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한 갈증을 주었다。

■…뭐니뭐니해도 가장 익사이팅하고 주먹이 불끈불끈 쥐어지는 경기는 권투。 朴鍾八이 인도네시아의 수와르노를 맞아 OPBF(동양태평양권투연맹) 미들급 13차방어전을 벌인 18일 하오의 문화체육관도 역시 흥분의 도가니였다。

TV에서 보는 권투경기와는 달리 현장에서 보는 권투는 링사이드로 꿰뚫이 톡톡 튀는 정말 처절한 것이다。 펀치가 날때마다 쉭쉭하고 바람가르는 소리가 그대로 들리고 상대의 보디로, 안면으로 작렬하는 주먹의 둔탁한 소리는 마음약한 女子은 소름이 쭉쭉 끼치는 비정의 세계다。

朴鍾八의 KO펀치를 기대하던 관중들은 朴의 통렬한 라이트훅이 수와르노의 명치끝에 꽂히고 수와르노가 본대자로 캔버스에 눕자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환호했다。

里仁爲美 仁을 가지고 행동의 근원으로 삼고 仁의 道에 벗어나지 않는 마음을 가지며 정신을 仁의 세계에 둔다。바로 이것이 인간으로서의 것이다。

주간女性

讀者 페이지

■投稿환영

<프로野球 치어걸 모집>
가슴은 야구공처럼 다리는 방망이처럼·생긴 아가씨
正二品 (낙서와 만화 土月文友會)

<화창한 봄날>
야단났다。 엿집 윤도미스네 동생들 오늘 또 죽어나겠다。
金弗(土月文友會㉔4088)

<세월이 흘러도>
강냉이장수라할지라도 가윗소리를 낼 때는 엿장수타고 부른다。
윤세진 (관악구봉천9동635의319)

웃는중 落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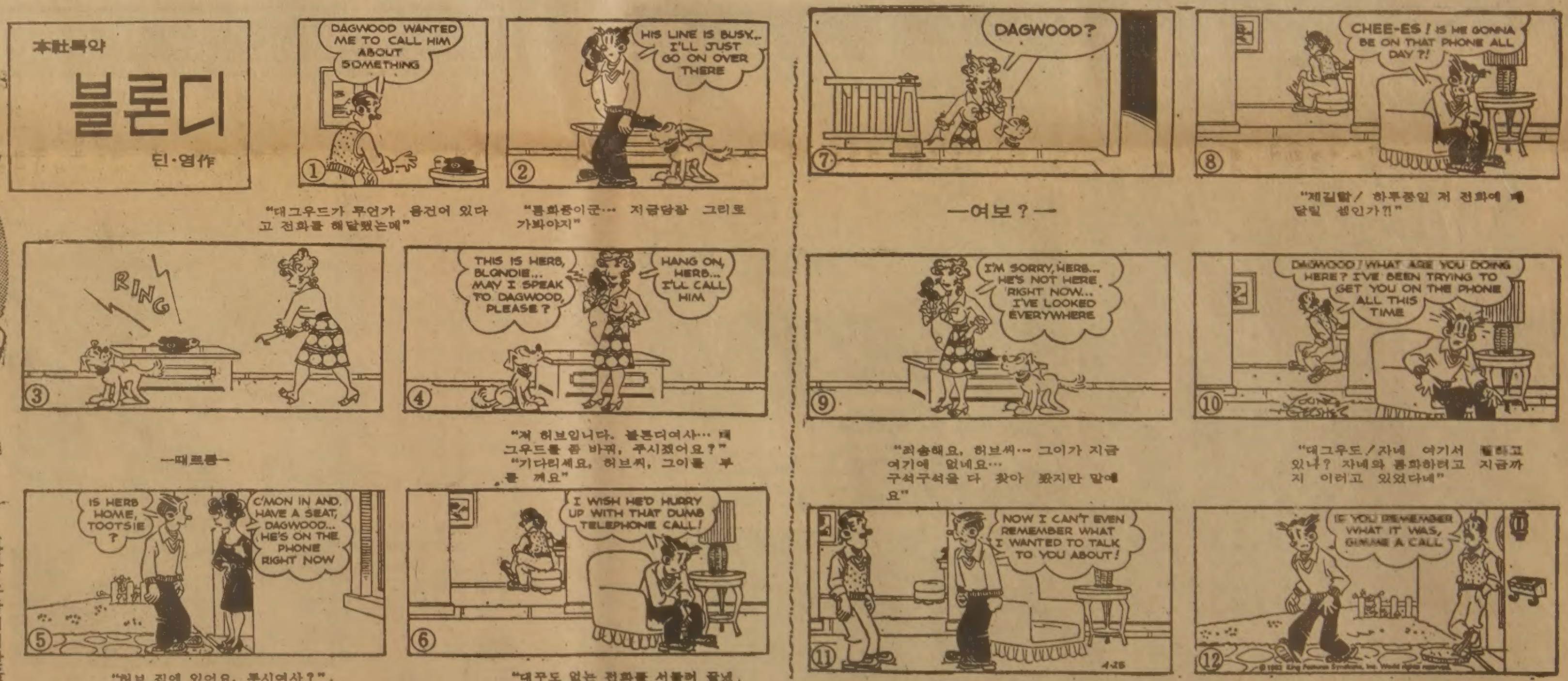
<가짜 우황청심환을 사먹은 사람들>
우왕 좌왕한다。
몽지랑뽓 (週刊한국 낙서란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프로야구 人生>
어떻게보면·살아보겠다고 손비중 발버둥이다。
박규근 (낙서란 부활을 축하합니다)

本社特約

블론디

딘·영作



—때르릉—

①② "대그우드가 무언가 용건이 있다고 전화를 해달랬는데" "통화중이군… 지금당장 그리로 가봐야지"

③④ "저 허브입니다. 블론디여사… 대그우드를 좀 바꿔, 주시겠어요?" "기다리세요, 허브씨, 그이를 부를 께요"

⑤ "허브 집에 있어요, 부시여사?". "들어와 앉으세요, 대그우드씨…그이는 지금 전화하고 있는 중이에요"

⑥ "대꾸도 없는 전화를 서둘러 끝냈으면 좋겠어/"

—여보?—

⑧ "제길할/ 하루종일 저 전화에 매달릴 셈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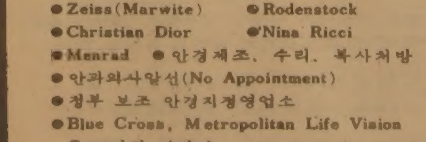
⑨ "죄송해요, 허브씨… 그이가 지금 여기에 없네요… 구석구석을 다 찾아 봤지만 말예요"

⑩ "대그우드/자네 여기서 뭘하고 있나? 자네와 통화하려고 지금까지 이러고 있었다네"

⑪ "이제는 자네한테 뭘 말하려 했는지조차 기억할수가 없구먼/"

⑫ "그게 뭔지 생각나면, 나한테 전화해 주게나"

블루어안경



- Zeiss(Marwite) ● Rodenstock
- Christian Dior ● Nina Ricci
- Menrad ● 안경제조, 수리, 복사처방
- 안과의사알선(No Appointment)
- 정부 보조 안경지정영업소
- Blue Cross, Metropolitan Life Vision Care지정 안경점
- Stock렌즈는 당일 서비스 합니다.

※주2회 안과의사가 직접 내방하여 검진하오니 이 시간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수요일 : 오후1시부터~4시30분까지
토요일 : 오후1시부터~4시30분까지

영업시간 : 월~목·9 : 30AM~7AM
금·9 : 30AM~8PM
토·9 : 30AM~6PM

635 BLOOR ST. W
531—2236 (B) 886—0722(R)

광고요원 모집

업무량의 격증에 따라 본사 광고요원 약간명을 모집합니다.
관심있으신 분의 응모를 바랍니다.

◎모집인원 : 약간명 (Full or Part time)
◎자 격 : 영주권를 지닌 한인교포로서 광고업무와 경리업무에 흥미 있으신 분.
◎구비서류 : 자필이력서 1 통
◎응모마감 : 1982년 4월30일

※응모희망자는 직접·내사바라며, 광고업무에 따른 보수등은 본인과 협의하여 결정함.

한국일보 토론토지사
☎ : 533-2361 광고국장

주5일 식품점에 신문배달

식품점에 가시면

⊙새로나온 〈한국일보〉가 있읍니다.
⊙아내에의 선물〈주간여성〉도있읍니다.

※토론토한국일보사는 토론토 부근 10개 한국식품점에 당일 발행된 신문을 매일 배달, 판매합니다. (단 : 미시사가소재 식품점에는 당분간월·수·금요일만 배달)

—한국일보사—

MLS
HWANG 주식회사 황용현부동산

금주의 새리스팅

ㅇ고층 아파트먼트 빌딩들
①12층, 89Unit, 100대의 주차장을 가진 10년된 아파트 건물
가격 : $2,400,000
②15층, 104Unit, 129대 파킹시설, 3에이커, 실내수영장, 11년된 아파트 건물, 가격 : $3,450,000
③12층, 241Unit, 오타와에 소재
가격 : $5,780,000

이외에 여러종류의 사업체
(버라이어티, 식당, 도넛샵, 기프트샵등)
※메트로 토론토 전역을 카바하는 가옥매매에 대해 문의바랍니다.

TOM HWANG REAL ESTATE LTD.
REALTOR
101 DUNCAN MILL RD. SUITE G5, DON MILLS, ONT.
TEL. (416) 449-8644~5 (B), 286-1548(R) M3B 1Z3

한국일보 事件기자는 말한다

<취재 放談>

지난주엔 元振프러모션회장 金常起씨의 자살을 비롯、30대 남자、30대 주부의 자살등 자살사건이 많았다。10대 고교생이 교정에서 각목을 휘두르며 집단결투를 벌였는가하면 10대 청소년들의 혼숙、폭력사건등 10대의 범죄가 두드러지게 많이 발생한 주이기도 했다。지난주엔 또 한국일보社 사회부 사건기자들이 출입하던 경찰서가 바뀌어 새로 익히느라 분주한 한주이기도 했다。이날 방담에 참여한 한국일보社 사회부 사건기자는 다음과 같다。

▲方 畋 俊　▲鄭 崇 鎬　▲朴 珍 列
▲金 宗 來　▲姜 秉 泰　▲鄭 在 龍

신문에 안난 現場

"내 新婦 좀 찾아 주세요"

알고보니 호스티스가 계획적으로 僞裝결혼

主婦가 어린子女 동반 焚身자살 問題

億臺챙긴 犯人"징역살고 훔친돈으로 장사"

서울大대학원생 家庭문제로 漢江투신

▲A=회사공금 1억원을 챙겨 달아나 유흥비로 탕진했던 경리사원이 2개월만에 붙잡힌 사건이 있었어。서울中區南大門路1街D산업 경리사원이던 朴長局(28)이 장본인인데 朴은 4년간 회사돈을 야금야금 빼내 유흥비로 흥청망청 써오다가 들통날것이 우려되자 한꺼번에 1억원을 챙겨 달아났었어。朴은 지난 2월15일 숙직하는 날을 택해 회사금고에서 1억원짜리 약속어음을 빼내 한보종합금융에서 9천9백80만원에 할인해 받고 이돈을 다시 은행에서 5천만원、1천만원등 자기앞수표로 바꿔 온라인 예금통장 19개에 나눠 넣은 다음 大邱로 내뺐지。

▲B=朴은 범행전 서울에서도 유흥가를 누비며 돈을 잘써 재벌2세 정도로 알려져 있었는데 大邱로 내뺀 다음에도 현상수배가 된 상태에서 부산과 大邱를 오가며 흥청거리며 기분을 냈대。5백만원의 현상금이 붙은 현상수배광고를 신문에서 본 서울鍾岩경찰서、姜모형사가 10여일간 추적끝에 大邱 동대장여관에서 朴을 붙잡았지。

朴은 부산과 大邱 2곳에 각각 여자 한명씩을 구해 이들에게 아파트를 구해주는등 2달 동안에 3천만원을 쓴것으로 밝혀졌어。

▲C=하루에 50만원씩을 쓴 셈이군。형사들도 형사의 3달치 월급을 하루 저녁에 쓴 셈이라고 쓴 웃음을 짓더군。

▲A=더욱 웃기는 것은 朴은 『붙잡히더라도 2~3년 징역을 살고 나와 훔친 돈으로 장사를 해볼 생각』이었다고 태연히 말한 일이야。

▲D=한탕 주의의 대표적인 예인 셈이군。

▲E=최근에 젊은 주부들이 방화등의 과격한 방법으로 자살하는 사건이 잇달아 일어나 섬뜩하게해。

▲F=지난 14일에는 鍾路區梨花洞에서 다방 종업원으로 일하는 25세의 주부가 남편으로부터 『외박이 잦다』는 꾸지람을 듣고 부부싸움을 벌이다 이불에 라이터로 불을 질러 자신은 물론 남편과 3살짜리 딸등 일가족 3명이 중화상을 입은 일이 있지。

■金常起씨 자살 충격적

▲E=또 20일에는 長位洞에서 택시운전사인 남편이 늦게 들어온다고 자주 다투던 주부가 방문을 안으로 걸어 잠근채 3、4살짜리 두딸을 데리고 방안에 휘발유를 뿌린뒤 불을 질러 분신자살한 사건도 있었어。

▲A=두 사건 모두 남편이나 본인들의 성격、생활능에 문제가 있겠지만 그렇다고해서 히스테리컬한 반응이 곧장 방화로까지 이어지는데에는 어딘가 심각하게 생각해야될 문제가 있다는 느낌이야。

▲B=또 어떤 자녀들을 분신자살에 동반하는 의식구조도 큰 문제가 아닐까。

▲C=金常起씨의 자살도 충격이었지。지난 19일 하오 경기 楊州郡廣積面孝村里앞산에서 소나무에 목매 숨진 시체로 金씨가 발견됐어。金泰式을 세계챔피언으로 키우기도 한 金씨는 『자신의 심정을 몰라주는 사회가 원망스럽다』『사회가 나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깨끗이 죽겠다』고 말해왔는데 유서도 남기지 않았어。

아마스포츠 발전에도 헌신한 金씨는 江陵상고를 졸업、조흥은행 明洞지점차장으로 있으면서 元振무역、元振鋼建등 회사의 회장직을 맡아오다 지난 2월 물러 났었어。

▲D=21일 새벽엔 서울龍山區二村洞 제1한강인도교 중간지점에서 서울大대학원생 金一洙씨(38·박사과정·恩平區佛光洞11의9)가 한강에 투신 자살했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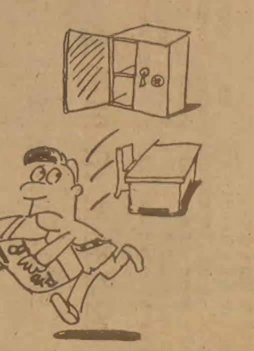
金씨 부인에 따르면 이날 자신을 한강 인도교위로 불러내 가정얘기를 나누던중 金씨가 『미안하다 잘 있으라』는 말과 함께 한강으로 뛰어 들었다는 거야。숨진 金씨는 평소 가정문제로 고민、염세적인 얘기를 자주 했다는 거야。

■"삶에 자신이 없다"

▲E=지난 17일엔 江南區靑潭洞 三益아파트 辛모씨(41)의 부인 崔모씨(34)가 숨져 있는 것을 辛씨가 발견했는데 머리에 심한 상처를 입고 목이 탈실곤으로 졸려 있었대。

경찰은 崔씨의 죽음에 타살혐의를 두고 수사에 나섰으나 ▲외부로부터 침입흔적이 없고 타살의 경우 남편 辛씨 이외에는 범인이 있을수 없는 형편인데 辛씨가 부인을 죽인만한 이유가 없으며 ▲崔씨가 평소『고독하다』『삶에 자신이 없다』는등 염세적인 말을 자주했다는 점등을 들어 일단 자살로 보고 있어。

▲C=구속된 동료의 변호사 비용을 마련키위해 소매치기를 하던 일당 3명이 붙잡힌 일이 있었지。16일 鍾路경찰서에 붙잡힌 羅鍾浩(24·전과4범)등 3명인데 이들은 지난 16일 하오7시께 鍾路2街 고려당 제과점 앞에서 20대여자 2명의 핸드백을 열고 24만원을 소매치기 했어。현장을 목격한 택시운전사가 순찰중이던 경찰관에게 신고해 잡혔지。



<삽화·權大雄>

拘束된소매치기 辯護비용위해 소매치기

10代소녀 5명 傷處 보이며 돈뜯어

팔뚝엔 담배불로 지졌거나 칼로 근자국

이들은 불심검문을 당하자 차도를 건너 뛰어 도망치다가 가스총을 발사한 경찰에 붙잡혔는데 처음엔 범행을 완강히 부인해 조사하는 경찰이 애를 먹었지。이들의 주머니에서 24만3천원의 현금이 든 돈지갑 2개가 나왔는데 『돈이 얼마 들어있느냐』는 경찰질문에 대답을 못하면서도 범행을 부인했대。

이들은 처음 『무고한 시민을 함부로 도둑놈 취급할수 있느냐』고 큰 소리치며 오히려 대들었어。그야 말로 적반하장이지。야근을 돌다가 이 광경을 목격했는데 경찰이 압수한 지갑을 뒤지다보니 鄭모변호사에게 지난달과 지난10일 2차례에 걸쳐 1백만원의 변호사선임 비용을 주고 받은 영수증 2장이 나오더군。

영수증 뒷면에 「특수절도혐의로 구속된 서재식의 변호사 선임 착수금조」라는 메모가 적혀 있어 이들이 조직소매치기의 일원이라는 직감이 갔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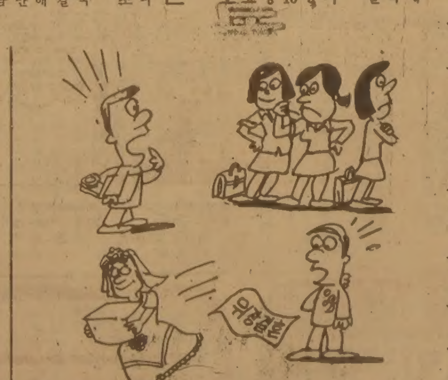
일당중 장봉식은 김봉식이라고 이름을 엉터리로 대는 바람에 컴퓨터 조회에서도 전과가 안나와 애를 먹었어。서재식을 컴퓨터에 넣었더니 서대문서에 구속된 소매치기임이 밝혀져 일당도 자연히 밝혀졌어。

▲B=야근 때 Y경찰서에 들르니 10대여학생 5명이 앉아 있더군。흔한 대폭력배겠거니 생각하며 당직 반장에게 『별일 없나』고 물으니 『저애들 취재해 보라』는 거야。

■강도會社「현대건업」

시큰둥한 표정을 지었더니 당직주임이 한명의 소매를 걷어붙여 보이더군。곱상한 얼굴과 달리 팔뚝엔 담배불로 지진 자국、칼로 그은 자국등이 지난해 삼청교육 때 검거된 웬만한 성인 남자 폭력배를 빰칠 정도로 험상궂었어。

5명이 모두 마찬가지였는데 이들은 지나가는 여학생들을 불러 세우곤 상처를 내보이며 돈을 뜯어왔어。물론 반항하면 폭력이 뒤따랐지。흔한 사건이지만 정말 왜들 그러는지 모르겠어。경찰에서도 이들 정없는 10대소녀들은 이름도 제대로 안대고 거짓말만 계속하더군。



▲C=K경찰서에 검거된 「회사 강도단」은 부수입으로 걸려든 대어였어。지난달 禾谷洞에서 일어난 낮털이 강도사건을 수사하다 올린 부수입 대어인데 오리지널보다 더 큰게 돼버렸지。

梁文洙등 일당 8명은 지난해 1월부터 20여차례에 걸쳐 1억여원어치를 털었는데 주범 朴泰雲(61)은 「현대건업」이란 유령회사를 차려고 梁등을 사원으로 고용、범행대상주택을 물색하면 1건에 40만원을 주는등 강도사원들에게 범행을 지시했어。

■달아난 新婦

▲C=鄭敏巴군의 3번째 공판을 취재했는데…

매번 공판때마다 鄭군은 검찰에 판정패 당하고 있는 꼴이야。

鄭군은 말로만 범인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을뿐 범인이 아니라는 구체적인 이유나 알리바이를 전혀 대지 못하고 있어。사전에 변호사와 가족들이 예비차례 만나 의견을 모은것 같은데 법정에선 서로 어긋나는 손、도 벌였어。남은것은 사실상 재판부가 이같은 파정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있겠지만 검찰측은 자신감이 넘쳐흐르고 있어。

▲D=지난 18일 일어메 시골산다는 丁모씨(26·충남보령)가 서울N경찰서로 찾아와 결혼한지 25일만에 달아난 신부 白모씨(21)를 찾아달라고 호소했어。

丁씨는 지난 1월20일 친지의 중매로 서울처녀 白모씨와 충남 홍성에서 결혼식을 올렸는데 결혼 첫날 잠자리를 딱한번 같이 하고는 기를 쓰고 거부해오다 지난 2월14일 『친정에 다녀오겠다』며 집을 나

한국일보 事件기자는 말한다

간뒤 1개월이 넘도록 소식이 없어 친정에 가봤으나 거기에도 없더라는 것。

白씨는 달아날 때 금목걸이 1개、금반지 1개등 결혼패물 67만원어치를 갖고 갔다는 것이야。더욱 놀랄만한 것은 白씨가 술집 호스티스로 일하다가 계획적으로 위장 결혼했다는 사실이었어。

▲E=실패담 한가지를 털어놔야겠는데…。

20일밤 야근했었는데 K서를 갔더니 중국여자 1명이 보호실에 있길래 내용을 알아보니 일화 9백만엔을 밀반출하려다 걸려왔다는 거야。기사를 보냈더니 야근 데스크가 『더 신문도 안보냐。오늘아침 우리 신문에 보도된거야』라며 전화를 뚝 끊어버리더군。등골이 오싹하더군。선배기자가 그렇게 고마울수가 없이 생각되기도 하고。

■얼간이 强盜

▲F=17일 서부경찰서에는 강도하려 가정집에 들어갔다가 잠에 곯아 떨어져 붙잡힌 얼간이 강도미수범이 있어。

李상락(21)이란 전과1범의 이 청년은 가정집 2층 부엌에서 흉기를 꺼내 곤히 잠들어 코고는 소리까지 내다가 집주인에 붙들렸어。

흉기들고 잠든 強盜

한主婦"여자애 때문에 내아들 망쳤다"

종업원들이 會社살리려는 現場 감격적

경찰에서 李는 지난달 8일 교도소에서 출감후 용돈이 궁해 2홉들이 소주 1병을 마시고 용기를 내 그 집에 강도하려 들어가 기회를 엿보다가 그만 잠이 들었다는 거야。

▲B=장티푸스 예방접종이후 숨진 江西中 쌍둥이형제 변사사건은 한동안 사건기자를 긴장시킨 사건이었어。

결과를 지켜봐야 알겠지만 연탄가스 중독이나 복어채질로 인한 사망으로 경찰은 수사방향을 잡고 있는것 같아。사건기자 5명이 뛴 사건치곤 결과가 신통치 않았던 기사였지。

▲C=19일엔 아주 감동적인 현장 취재를 했지。西大門區 北加佐洞의 五星산사라는 봉제품 하청공장에 갔는데 사장등 간부들이 거액의 부도를 내고 도망쳤으나 종업원 85명이 뜻을 모아 회사를 살리려고、열심히 일하고 있더군。

책임자격인 총무와 봉제공들이 한데 뭉쳐 일감을 구해오고 예서 밝은 표정을 짓고 있었어。밀린 세금때문에 공장에 와던 세무원들도 이때문에 압류처분 딱지를 보이지않게 붙여주고갈 정도로 감격해 있어。

뿐만아니라 사표를 내고 전직하려던 사원까지도 동료들의 사기를 돋구주기위해 사표를 회수했더군。종업원들이 회사를 살리려는 현장을 눈으로 똑똑히 보고 감격만 할수가 없더군。

▲E=城北區敦岩洞 모학원 건물의 벽이 금가 학원생들이 대피하는등 소동을 벌이고 있다는 연락을 받고 현장으로 달려갔지。峴底洞지하철공사장 붕괴사고로 신경이 곤두설대로 곤두서 있을때라 택시를 집어타고 현장으로 달렸어。

현장에 도착하니 이상한 생각이 들어。차량통행도 정상이고 학원생들도 한가하게 출입하고 있지 않겠어。세든회사나 관리인한테 모두 물어보았는데도 그런일이 없다는 거야。건물에 2㎝정도의 금이 가긴했으나 3주일전 건물안전진단을 한 결과 아무 이상이 없다는 거야。맥이 빠져 발길을 돌리긴했지만 건물주인이나 학원생들에겐 잘된 일이라고 자위를 했어。

■江西中 쌍둥이兄弟 변사

▲C=江西中쌍둥이형제변사사건 취재때에 학교에 가니 전경고시 수험장이 되어 학생도 없고 조용하더군。쌍둥이 형제가 숨지긴 했으나 다른 학생에게 전혀 부작용이 없었다는 간호원의 말이었어。학교에서 담임선생을 만났는데 임신중이었어。다른 교사가 기자에게 『담임에게 충격적인 말을 삼가달라』는 부탁을 하기도 했는데 담임선생으로서도 어리둥절했던 모양이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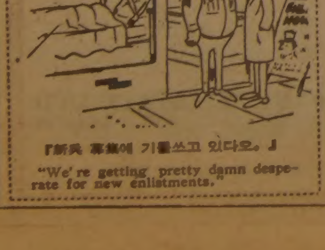
▲F=지난18일노량진경찰서로 출입처를 옮겨간 첫날이었어。서울大에 갔다가 타사 기자들과 만나 점심을 같이 먹기로 한 노량진수산시장지하 식당으로 가는 길에 당산동쪽에서 시커먼 연기가 하늘로 치솟아 큰 불인줄 알고 현장으로 달려갔어。2백여평의 삼화공업사 2층건물이 전소、50분만에 불이 꺼졌는데 이 불을 취재하다가 점심약속까지 어겼지。동료기자들에게 무척 미안하더군。

▲A=10대 혼숙현장 기사는 우연한 특종이었어。다른 기사때문에 江東경찰서관내 파출소에 들렀다가 파출소로 헐레벌떡 들어오며 소리지르는 주부를 만났지。『내 아들 녀석이 여자애들때문에 망쳤다』는거야。얘기를 듣고 10대 소년 소녀들이 혼숙했다는 아파트 옥상 물탱크로 가보니 아이들이 금방 나온듯 이불까지 놓여져 있더군。

파출소에서 10대 남녀중학생들이 혼숙했다는 말을 듣고 믿어지지 않아 설마했는데 현장엘 가보니 「이럴수가 있을까」하는 생각이 들어 어안이 벙벙했어。취재를 끝내고 경찰서로 오니、다른 아파트에도 그런데가 있다는 거야。정말로 무서운 10대들이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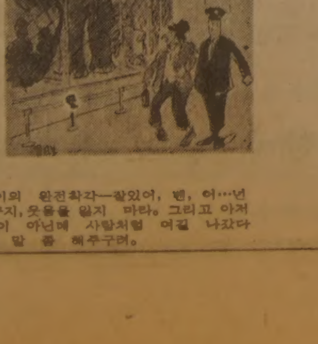
<기록·정리 姜允求기자>

海外 걸작 漫畫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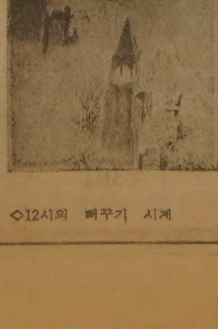
『新兵 募集에 기를쓰고 있다오。』
"We're getting pretty damn desperate for new enlistments."

海外 걸작 만화



◇주정뱅이의 완전착각─잘있어, 벤, 어…넌 찰리, 내 친구지, 웃음을 잃지 마라。그리고 아저씨, 난 사람이 아닌데 사람처럼 여길 나갔다고 그들에게 말 좀 해주구려。

◇침대 밑의 도둑



◇12시의 뻐꾸기 시계

◇길을 가리켜 주는 동안이라도 忠犬은 마음을 못놓는다。

징그러워서…

회사의 얌전한 타이피스트를 조르고 서서 데이트한다고 나갔던 폴이 저녁에 하숙으로 돌아왔다. 그래서 동료가 웬일이냐고 묻자 그는 이렇게 설명했다.
『우린 아주 깨끗하고 아담한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고 공원을 산책했지만 그녀는 입을 꼭 다물고 있어서 내가 이렇게 제안했지. 「만약에 내가 무슨 거짓말을 하면 너는 고개를 저으면 돼. 또 내가 손을 잡아주기를 원하면 고개를 끄덕이라구. 그리고 내가 키스해도 좋다면 그냥 미소를 보내줘」라고 말야』
『흥, 그럴듯하군. 그래서 어떻게 됐어?』
동료가 다그쳐 묻자 폴은 어깨를 움츠리며 이렇게 말했다.
『뭐가 어떻게 돼. 그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그녀는 머리를 크게 끄덕이면서 큰입을 벌리고 깔깔대지 않겠어. 그래서 난 갑자기 징그러운 생각이 들어서 그냥 돌아왔지』

애기의 샘

移民과 여행자를 위한 생활英語

담당 민병철
〔美시카고영어연구원장〕

DO YOU HAVE ANY OPENINGS?

미국에 도착하자 마자 당장 급한 것이 직장을 구하는 일이다. [illegible]

이런 경우 가장 보편적인 표현으로서는 Do you have any openings?이다. 만일 typist 자리가 있는지를 알아보려는 경우라면 for를 사용하여 Do you have any openings for a typist? (타이피스트 자리가 있는지요?)라고 하면 될것이고 welder(용접공)의 자리를 알아보는 경우는 Do you have any openings for a welder? 이렇게 된다. 이때 급료라든지 자리가 있다는 것을 알고 면접 약속을 하고 실제 interview에서는 salary(급료), benefit(혜택)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한 duty(임무)등은 물론 알아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A : May I help you?
B : Yes. Do you have any openings for a typist?
A : How fast can you type?
B : Sixty words per minute.
A : We have an opening in the sales department. Please come in for an interview.
B : Thank you. I'll be in this afternoon.
A : 도와드릴까요?
B : 네, 타이피스트 자리가 있으신지요?
A : 타자를 얼마나 빨리 치세요?
B : 1분에 60자입니다.
A : 판매부에 자리가 하나 비어 있읍니다. 면접하러 오십시오.
B : 고맙습니다. 오늘 오후에 가겠읍니다.

DROP ME OFF AT SEARS

남의 차에 신세를 지는 경우 「~에 좀 내려주십시오」라고 할 수가 있다. 예를 들어 「Sears에서 좀 내려주십시오」를 영어로 옮겨본다면 Drop me off at Sears.라고 한다. drop이란 원래 떨어뜨린다의 뜻으로 이용하는 사람이 차에서 내리는 것을 의미한다. 자가용 사람을 배웅해 주는 경우 「어디에다 내려 드릴까요?」하고 묻는다면 이때는 Where shall I drop you off?이라고 한다. 그리고 building 안의 elevator(승강기)를 탔을때 「내립시다」 하고 하는 경우는 간단히 Off, please. Out, please. 혹은 Excuse me. 이렇게 하는 점이다.
Drop을 이용한 재미있는 표현중의 하나로 drop a line은 [illegible] 편지를 한 줄 써 보내다의 뜻이다. Drop me a line as soon as you get to L.A. (L.A.에 도착하자마자 편지 좀 써 보내)

A : Jane, are you going shopping?
B : Yes. I'm going after breakfast.
A : Could you drop me off somewhere?
B : Where do you want to go?
A : I need a ride to Sears.
B : Sure. It's on my way.
A : 제인, 쇼핑가세요?
B : 네, 아침 식사후에 가려합니다.
A : 어디다 저를 좀 내려 주실수 있겠어요?
B : 어디를 가고 싶으신데요?
A : 씨어즈까지 차편이 필요합니다.
B : 모셔다 드리지요. 가는길 입니다.
※ give(a person) a ride(아무를) 태워주다.
예) Can you give me a ride? (나를 좀 태워줄수 있읍니까?)

민병철생활영어
책, 카세트, 비디오
구입처 :
B. C. MIN
7037 BECKWITH
MORTON GROVE,
ILL. 60053
U. S. A.
전화 : (312) 966—4050
책 : 제1권(12불)·제2권(12불)·제3권(12불)
카세트 : 1권용(33불)·2권용(38불)·3권용(38불)
비디오 : BETA(60불), VHS(65불)
※U. S. 머니오더에 한합니다.

서울세상의 자서전

人間市場

金洪信 作
崔然石 畵

72

지난줄거리

[illegible]

連載소설

[illegible]

그녀의 몸매는 너무 좋았다. 늘씬한 키와 잘 생긴 얼굴인데 군살이 하나도 없었다. 나는 조금 전의 그 짜릿했던 장면을 연상시키며 이 여자를 또 갖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 미나와 얽혀있는 여자가 아니었거나 내가 도와줄 형편의 여자가 아니었다면 또 한판 정신없이 몸을 굴렸을지도 모른다.

내 육체의 깊숙한 곳에 숨어 있는 이 욕망증은 과연 어떻게 생겨먹은 걸까? 어째서 여자들만 보면 그렇게 악착같이 갖고싶은 걸까? 이것이 나만의 욕망일까, 아니면 사람의 탈을 쓴 동물은 모두 마찬가지일까.

『만약을 생각해서 벗고 있는 거예요. 불편하시다면 가릴께요.』

그녀는 옷을 벗고 있는것이 그렇게 부끄러운지조차 모르는 것 같았다. 그것은 그녀의 불감증인지도 모른다. 수건으로 대충 몸을 가린 그녀가 의자에 걸터 앉았다.

『여기서 제 돈을 벌었어요. 제가 생각해서 남못지 않았어요. 한달에 평균 이백만원 가까이 벌었으니까요.』

『이백만원요?』

『저한텐 단골이 많았어요. 이왕 이걸로 나선 저, 정말 최선을 다했어요.』

그녀의 표정은 진지해졌다.

『평균 몇명이나 와요?』

『다섯명 쯤요.』

나는 얼른 이 여자의 수입을 계산해 보았다. 기본 2만원만 받아도 하루에 10만원 꼴이었고 한달이면 3백만원 가까운 돈이었다.

『다른 여자들도 그런가요?』

『그렇진 않아요. 제가 제일 많은 편이죠.』

『그렇다면 백만원 쯤은 뜯긴다는 얘긴가요?』

『꼭 그런 건 아니지만… 그렇게 될수밖에 없어요. 이백만원 보증금을 내고 들어와서 6개월마다 선입금으로 백오십만원씩 내요.』

『한달에 이십오만원이군요.』

『목욕탕 물값이 매달 오만원 나가요.』

『합해서 삼십만원이네요. 그 외엔 없어요? 뜯어가는 사람이나…』

『왜 없겠어요. 세탁비, 약값, 비누, 샴푸값, 피임기구… 거기다 한달에 두어번은 접대비 명목으로 이십만원이 나가요.』

『무슨 접대빕니까?』

『이런 짓하려면 걸리는 게 많잖아요. 아가씨들한테 그럴 때마다 십만원씩 걷어서 주나봐요.』

『여기 아가씨는 모두 몇명입니까?』

『열명 넘어요.』

대충 무슨 접대인지 알것 같았다. 어느 곳이든 이런 여자들이 사는 곳엔 꼭 벼룩의 간을 빼먹는 치들이 있기 마련이었다.

『다른 접대도 있겠죠?』

『뭐 특별히 부탁하는 사람이 있어요. 뻔하죠. 이런 장사하려면 그 사람들에게 그 정도 서비스는 해야 할테니까요. 우리도 그 정도는 각오하고 살아요. 별수 없잖아요.』

『또 있겠죠. 악착같이 뜯어먹고 살아야하는 족속들이니까요.』

『그러저럭 백만원쯤은 뜯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도 돈벌이가 좋으니 더 떠나질 못하죠. 어떤 아가씨는 빨리 이 짓을 걷어치우겠다는 말을 하지만 한달만 한달만 하다가

한달에 2백만원을 벌었으니 작은 벌이는 아니었죠
돈벌이가 좋아 한달 한달 하다가 여기서 늙고말지요

여기서 늙고 그래요.』

『나이들이 많습니까?』

『대개 스물 일곱, 여덟…서른 두서너살짜리도 있어요. 나이를 대개 속이죠. 나이가 많다면 손님이 안 오니까 할수 없어요. 불빛이고 화장하고 그러니까 그 정도는 넘어가게 돼요.』

『이왕 말 나왔으니 본론으로 들어갑시다. 얼마쯤 모았었어요? 그리고 어떻게된 겁니까?』

그녀는 잠시 바깥을 살펴보고 문고리를 잠그었다. 몹시 불안한 모양이었다.

『강남에 마흔 여덟평짜리 아파트 한채를 샀어요. 제 주제에 조그만 자가용도 한대 가졌구요.』

『그게 전부 여기서 번 겁니까?』

『여기말고 퇴계로 있을때 번거죠. 돈 벌기로만 든다면 작은 벌이는 아니었어요.』

『그럼 여기서는요.』

『첨엔 제법 벌었어요. 문제는 제가 돈을 벌어서 자동차를 굴리고 큰 아파트가 있다는데서 시작되는 거에요.』

『얘기해봐요.』

『지금은 무일푼예요. 한푼도 없어요. 그동안 어떻게 번 건데. 미치겠어요. 정말 환장하겠어요.』

『사기 당했나요?』

『그게 아녜요.』

그녀는 울먹이고 있었다. 몇년 동안 온갖 굴욕을 견디며 번 수천만원을 묘한 사기행각에 걸려 알거지가 된 것 같았다.

『주인의 소개로 어떤 남자를 알게 됐어요. 저도 이대로 나이만 먹을 수도 없고 해서 몇번 만났어요. 재일교포 청년인데 결혼에 한 번 실패는 했지만 사람이 착해 보였어요. 낮에 열두시 넘어서 출근하면 벌금을 내게 되는데 주인은 저만은 특별히 봐주며 괜찮은 남자고 제 과거를 다 이해하는 신사니까 잘 해보라고까지 해줬어요.』

『그게 함정였나요?』

『그랬어요. 첨엔 전혀 눈치도 챌 수 없었지만요.』

그녀는 몇번 만나본 뒤에 마음을 거의 굳혔다. 이런 생활을 하고서 마음 편하게 시집가기가 어려운 판에 과거를 이해하고 더구나 한국에서 사는 게 아니고 일본에서 결혼생활한다는 것이 마음에 들었던 것이다.

거의 반년 가까이 사귄 그들은 이 생활을 청산하고 일본으로 들어가는것까지 합의하게 되었다. 그녀는 재일교포청년이 굳이 남이라도 주고 가라는 아파트와 세간살이를 팔아 일본으로 떠날 생각을 했다.

『그 사람은 먹고 살만큼 돈이 있으니 가까운 친척에게라도 아파트 같은 걸 넘겨주라고 하더군요. 저는 그 점이 더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제 몫으로 돈을 가지고 가서 좀더 윤택하게 살고 싶었어요. 돈 버느라고 놀러 한번 못다니고 아파트 표 안내느라고 고생한 생각하면 가슴이 저렸어요. 온갖 치사한 비위 다 맞추며 살아 온 과거를 보상받고 싶었어요.』

Y여관에도 그만 나오기로 작정한 그녀는 아파트와 세간살이 정리한 돈을 남자에게 맡겼다. 일본에 가서 편하게 살게 되었다는 걸 부러워하는 동료들에게도 이별의 정표로 선물을 하나씩 남기는 여유가 생겼고 그동안, 그녀가 잘 되도록 주선해준 주인에게 보답하기 위해 보증금과 선입금시킨 돈도 찾지 않기로 약속했다.

『그런데 그 남자가 사기꾼이었어요.』

『연속극 돌아가는 것처럼 악이 빤히 보였어요. 의심 한번 해본 적도 없었나요?』

『그래요. 제가 미친 년이었어요. 정에 굶주린 년들은 다 그래요. 정신없이 빠져든 거지요. 의심할 틈도 없었어요. 사기꾼이 의심하게 했겠어요. 제가 죽일 년이었지요.』

그녀는 울고 있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나왔다. 몇년 동안 번 돈을 그 지경으로 날려버렸으니 마음이 편한 것이 오히려 이상한 것이었다.

『주인은 뭐래요?』

『사기꾼인지 몰랐다는 거죠. 첨엔 친척이라고 하더니 사건이 터지자 도리어 저 때문에 피해를 많이 봤다는 거에요. 첨엔 저더러 너무 아까와서 마침 좋은 사람이 있으니 보라고 했는데 이제와선 저만 믿고 돈을 3천만원이나 꾸어줬다며 제가 보증을 섰기 때문에 믿었다는 거예요. 아무리 제가 따져도 막무가내예요. 저더러 3천만원 내라고 욱박지르는 형편인 걸요. 그래서 하소연 할 데도 없고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봐도 증거가 하나도 없고 주인의 주장도 틀린 것만은 아니어서 해결책이 없다는 거에요.』

그녀는 꺼져내리는 한숨을 쉬었다.

『주인의 주장이 어떤 겁니까?』

『제 단골손님이었다는 거에요. 그 사람이 주인을 찾아와서 사실은 저와 결혼하고 싶으니 중매를 서달라고 해서 저편 마음에 다리를 놔준 것이고 돈을 빌려준 것도 결혼하기로 결정한 뒤에 저한테 물어보고 줬다는 거였어요. 주인이 한번 묻데요. 그 사람한테 사업자금 좀 대주고 싶은데 그럴리야 없지만 만약 떼먹으면 저보고 갚으라구요. 농담처럼 웃으며 얘기하길래 고마운 마음에 그러라고 한 적은 있었어요.』

『씨 훌륭한 사기극이군요.』

『어쩌면 좋죠? 저좀 살려주세요. 제가 시끄럽게 굴까봐 아예 가둬놓고 나가지도 못하게해요. 일년동안 보증금과 월세 안받을테니 버는대로 갚으라는 거에요. 밥 주고 재워주기는 하겠다나요. 내 기가 막혀서 말이 안나와요.』

『언제 그렇게 됐죠?』

『벌써 두달째 버는 돈을 꼬박꼬박 채 뜯어가요.』

『그런데 계획적인 사기라는 증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애원하잖아요.』

『딱한 실정을 알겠어요. 그러나 증거가 없으면 꼼짝할 수가 없어요.』

결혼하자기에 아파트까지 팔아준 내가 미친년이죠
제발 저만 살려준다면 무슨짓이라도 해서 갚을께요

『미나가 그러대요. 총찬씨는 할수 있다구요.』

『이건 법으로도 안되는 겁니다. 다른 증거가 잡히기 전에는 안돼요.』

『그럼 저는 어쩌란 말에요. 지겨워 미치겠어요. 그동안 번 돈은 더러운 짓으로 해서 벌었으니 없는 셈 치더라도 앞으로 일년간 이짓 해서 남의 아가리에 처넣어야 한다는 건 정말 끔찍해요. 저좀 살려주세요. 네, 제발 저 좀…』

그녀는 부끄러움도 잊었는지 내 무릎에 얼굴을 묻은 채 울었다. 울음소리를 삼키느라 어깨가 가파르게 떨렸다. 나는 그녀의 머리채를 잡았다. 고개를 든 그녀의 얼굴은 눈물로 가득했다.

『저만 구해주면 무슨 짓이고 할께요. 하란대로 다 할께요. 제발 부탁입니다. 저 좀 살려주세요.』

나는 그녀를 안아 침대에 뉘었다. 오열을 삼키느라 말을 할 수도 없었다. 그녀는 나를 끌어안고 소리내지 않으려고 몸을 떨었다.

『자, 이러지 말고 한번 생각해봐요. 아무리 사기꾼이라도 헛점은 반드시 있어요. 이럴 때일수록 침착해야 됩니다. 자, 가만히 누워 있어요.』

『나 좀 살려주세요. 네? 제발 나 좀 살려주세요.』

나는 그녀와 나란히 침대에 누웠다. 그녀가 돌아서며 내 가슴 위에 얼굴을 묻었다.

『꼭 갚을께요. 무슨 짓이라도 할께요.』

나는 갑자기 아랫도리가 팽팽하게 일어섰다. 그녀의 손이 내 아랫도리 깊숙한 곳까지 들어와 있었다. 무슨 짓을 하더라도 내 결심을 얻어 내어 이 지옥에서 빠져나가고 싶은것 같았다. 나는 그녀의 손을 빼내고 말했다.

『여기서 빼낼 수는 있어요. 그러나 아가씨는 어디 가서 아무것도 못해요. 뒤집어 쓴 걸 벗기 전엔 빚쟁이일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자구요. 냉정해야 돼요.』

그녀는 여전히 흐느끼고만 있었다. 나는 침대 머리맡에 앉아 그녀의 두 손을 꼭 잡았다. 부들부들 떨고 있어서 그냥 내버려 둘순 없었다.

『혹시 그와 비슷한 사기를 당한 사람 없어요? 얘기를 들었다든지 그전에 혹 그런 일로 고생한 동료라든지.』

『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갑자기 커졌다.

『어떤 얘기요?』

『여기 있다가 나간 앤데 삼개월만에 쫓겨나며 보증금 이백하고 월세 선금 못찾아 갔어요.』

『무슨 이유였죠?』

『걔 단골손님이 여럿 따라왔는데 그 손님 가운데 어떤 사람의 수표가 부도났대나봐요.』

『그 여자 책임은 아니었을 거 아닙니까? 저희들끼리의 거래니 그 여자가 보증 선게 아닐텐데 어째서 그런 꼴을 당하고만 있죠? 무슨 약점 있는 거 아녜요?』

적어도 내가 느끼기에는 그랬다. 이곳 여자들에게 약점이 많지 않고서는 그런 엉뚱한 사연을 묻어버린다는 게 이해되지 않았다.

『이 짓하고 사는데 약점이 왜 없겠어요. 우선 불법 영업이죠. 돈은 편하게 벌리는데 한번 잘못 보이면 같은 업종으로 두번 다시 취직할 수 없어요. 업자끼리 그렇게 똘똘치지 않으면 금방 불벼락이 떨어지거나 사고가 생길 수 밖에 없거든요. 보증금 미리 맡기고 월세 미리 내고 무슨 재주로 큰소리 치겠어요. 낮 영업은 우리 몫이지만 밤 열두시 넘으면 주인하고 반반씩 나눠먹게 돼요. 그래도 한달 버는 수입은 큰게 죄라고 꺽소리 한마디 못하죠.』

『그 여자 지금 어디 있어요?』

『영등에 있어요. 가보나마나예요. 얘기 안할 거니까요. 한번 잘못 보이면 이 바닥에선 끝장이니까요. 누군들 입이 없어서 못하겠어요. 다 그런한 사정이 있으니까 그렇지요.』

『그러나 현재론 그 방법밖에 없어요. 그 여자 정을 쥐고 들어가는 수밖에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그건 안돼요. 일년에 얼마를 버는데 놓치려고 그러겠어요. 나부터도 입을 열지 않을 걸요.』

나는 갑자기 난감해졌다. 그녀의 말은 틀린 말이 아니었다. 그 바닥에서 돈을 벌어야 할 여자들은 끝까지 입을 열지 않을 게 뻔했다. 그렇다고 이대로 넘어갈 수는 없었다. 내 가슴 속에선 불덩어리가 치솟고 있었다. 어떻게든지 이놈의 함정을 들여다보고 싶었다.

『그 남자 사진 있어요.』

『그럼요. 저도 별의별 짓 다해봤어요. 생각해 보세요. 제가 무슨 짓을 안했겠나. 그 남자 찾으려고 안간 데가 없고 주인에게 안당하려고 안해본 것 없어요.』

그녀가 그렇게 악바친 싸움을 하지 않았다면 지금처럼 감금상태의 중노동은 하지 않았을 것 같았다. 그녀가 사기극의 제물이 되었다는 심증은 확실한 것 같았지만 확증이 될만한 자료는 의외로 없었다.

『여기 있다가 그만둔 여자 가운데는 없을까요?』

『있을지도 모르죠. 그러나 어디 있는지 찾을 수도 없고 찾아봤자 말하지 않을 거예요. 다 그만한 것 켜고 하는 사람이란 걸 아니까요.』

『긁어 부스럼이라곤 전니까?』

『시집가서 잘 사는 여자가 말하려고 하겠어요? 아니면 다른 집에 있는 여자를 말하겠어요?』

나는 사진을 받아들고 꼼꼼하게 살펴보았다. 도통 감을 잡을 수 없는 사내였다. 전국을 뒤져서 찾아낼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그렇다고 주인을 무조건 족친다는 것도 문제가 있었다. 여자 말만 믿고 서둘게 움직였다가 문제가 커질수도 있기 때문이었다.

『이 집에 있는 여자들은 미스 황이 당한 걸 아나요?』

『모두 알죠. 마음 뿐인 거예요. 방법이 있더라도 별수 없을테니까요. 깡패들이 그냥 두지도 않을겁니다. 만약을 위한 방패는 만들어놨을 거예요. 얼마나 철저한 사람들인데요.』

하나님. 하늘아래 이런 천국들이 있읍니다. 벼룩의 간을 꺼내먹는건 그래도 양반입니다. 몸을 팔아 몇년간 모은 돈을 안 써 먹고도 모자라서 앞으로 일년동안 벌어서 그 밑구멍을 막아야 한답니다. 하나님, 꼭 좀 내세요. 무조건 용서하는게 직업은 아니잖아요. 억울한 꼴 당하는 사람들 좀 생각해 주쇼. 하나님마저 그렇게 고자 [illegible]

<다음에 계속>

최고의 발행부수와 최대의 광고효과를 자랑하는 頂上의 신문 한국일보

LISBON AUTO COLLISION INC.
● 토잉써비스
● 완전한 차체수리
● 무료견적
RUST PROOFING
B)533-8507 533-8508
이영두, 이건학

최고의 발행부수와 최대의 광고효과를 자랑하는

한국안내광고

한국인의 도매상
한 인
연합상사
25-27 Rangemore Rd.
☎ : 251-6578

시설및 수리

"집수리 · 신건축"
건축 목공 각종 가게시설및 진열장
카운터 제작, 페인팅 타일
전화 : 669-5784 Mr. 심

"가게및 집수리 일체"
시설및 수리 (상하수도, 전기제품, 페인팅)
성심 성의껏 봉사해드리겠읍니다.
전화 : 425-8585 Mr. 김

KIM ELECTRIC LTD.
MET. LIC. E1018 전기시설 · 보수 · 경보장치 설치
FIRE ALARM 전화: 438-3795 김 영 호

KIMBO ELECTRIC CO. MET. LICENSE E-725
전기시설 · 보수 · 가계신설 · 용량증설등 전기일 일절
전화: (B) 245-5544 (PAGING) 2790, (R) 255-2161 김 부 원

전기시설 · 보수
CANCO ELECTRIC CO. 각종 냉동기 에어콘
전화: 270-3118 오 현 구

FINE WOODWORK 목공소 상점시설및 주택개조
879 Westport Cr. Unit 3. Mississauga. Ont. 싸우나 설치, 진열장
전화: 676-1173, 769-9468 찬장등 가구제작

T. V. 출장 수리
전화: 431-0102 미스타 박

VACUUM CLEANER 출장수리
카페트 CLEANER & SHAMPOOER
전화 : 881-4915 Mr. 조

식 당

CHOI'S RESTAURANT
메뉴: 초밥, 튀김덮밥, 모밀국수, 갈비, 불고기,
덴뿌라, 스끼야끼, 기타 ◉일요일 휴업
시간: 주중:낮12-밤12시까지, 목금: 낮12-밤1시까지
토: 낮4시30분-밤11시반
주소: 2432 Eglinton Av. E. Scarboro (at Kennedy)
전화: 759-8512 최 영 호

아리랑식당 중화요리및 한식전문
영업시간 : 월~일요일까지=낮12시~새벽1시까지
716 BLOOR ST. W. TORONTO 전화: 532-2727

오리엔탈팔레스·뉴서울식당
529 BLOOR ST. W. TOR.
예약 : 533-3545~6

코리아하우스
666 BLOOR ST. W.
전화: 536-8666

거구장
5 BETHRIDGE RD. 전화: 742-1618

한국관 628 BLOOR ST. W. 전화: 536-0290, 531-0277
냉면, 곰탕, 갈비및 중화요리 전문,
OPEN 11 : 00AM~1 : 00AM 대소연 200석 완비

서울하우스
615 BLOOR ST. W.
전화: 532-0602

식 품 점

한발식품
◉ 미시사가지역 교민들께 편리.
◉ 친절한 써비스, 저렴한 가격
◉ 일요일은 오후 4시~8시까지 OPEN
466 SOUTH SERVICE RD. MISSI.
전화: 274-5401

동양식품
일주일 내내 영업, 일요일도 정상영업 합니다.
(화요일만 오후1시~10시까지) 많은 식품을 준비하고 있아오니 계속 이용해 주십시요. *배달도 합니다.
1662 JANE ST. WESTON ONT. 전화: 248-5131

삼복식품
주 7일 영업, 배달합니다.
2437 FINCH AVE. W. WESTON
전화: 743-8270

서울식품
◉ 친절한 써비스, ◉ 저렴한 가격
367 PITFIELD RD.
전화: 291-8317

제일식품(구 단풍식품)
7 Days Open(오전10시~오후10시까지)
배달합니다
뒤에 파킹 LOT 마련.
전화: 532-1054 (아리랑식당 옆)

고려식품 680 Bloor St. W. Tor.
주 7일영업(오전10시~오후11시까지)
배달가능, 각종서적및 월간잡지 전화:531-2242

악 기 점

피아노 수리, 조율, 재생, 운반,
중고 피아노 팝니다.
PIANO. TECHNICIAN
전화 : 636-1430(R), 783-6871(B)
주소 : 1178 EGLINTON AVE. W. 이 상 철

SOO PIANO SERVICE (조율, 수리)
Simson's Mr. Music의 Representative
전화 : 222-4662 김 수 웅

양 장 점

샘터의 상실
숙녀복 · 파티드레스 · 웨딩드레스 · 단체주문환영
606 Bloor St. W. 전화 : 535-4441 디자이너 MR. 김

액 자

PICTURE FRAME WAREHOUSE(각종액자)
32A REXDALE BLVD. REXDALE
전화 : 746-2120 조 혜 숙

에어콘·히팅·냉장고

PALMER'S
에어콘, 전기, 개스히팅, 워킹쿨러, 아이스크림후리저
NEW OPEN STORE SPECIAL SERVICE
시설 · 판매 · 수리
전화 : 532-2880, 2889(B) 493-9945(R) 김 봉 균

에어콘·냉동·전기·히팅·세탁기
시설 · 판매 · 수리
정확한 진단 · 예방및 각종 고장 정비
정확한 정비 · 캐나다 최상급 자격증 소지
– 24 HOUR SERVICE –
전화 : 366-5655, 531-5440 이 황 영

CENTURY
(냉동기 시설및 수리)
전화 : 221-5441 Mr. Lee

KIM 냉장고 · 에어콘
시설 · 수리 · 판매
전화 : 749-3178 김 진 환

여 행 사

서울여행사
631A BLOOR ST. W.
전화 : 535-6004,
: 535-8801 최 동 주

신세계여행사
712 BLOOR ST. W.
전화 : 536-2155 김 창 범

제일여행사
649A BLOOR ST. W.
(김종조 종합보험 옆)
전화 : 535-2377 유 지 원, 신 용 목

북미여행사
376 QUEEN ST. E.
전화 : 368-9018,
: 366-0960(B) 임 태 호

화 랑

KIM'S ART GALLERY
각종 유화, 동양화 도매, 각종 Picture Frame
1286 Weston Rd. 전화 : 243-0233

운전학교

AGINCOURT DRIVING SCHOOL
스카브로 지역은 집에서 데려가고 집에까지 데려다 줍니다. 16년간의 경험으로서 특히 신경예민하신 분들과 연세많으신분들께 성심 성의껏 지도해드립니다. 한번 수업에 Parking에 관한 전반적인 것을 배우실수 있으며 전문가로부터 운전에 관한 모든 필요한 지식을 배우시게 됩니다.
Call Ask Vlado, 291-8304 (오후 4:00-밤 11:00)

오행근운전학교
전화 : 423-3035

이삿짐및 운송

나라운수
각종 운반및 이사짐, 피아노, 쿨러
전화 : 630-6602

인벤토리

INVENTORY – 인벤토리 –
1) STORE 인수, 인계 INVENTORY
2) STORE 정기조사 INVENTORY
3) STORE 납세대비
*주야 INVENTORY
TORONTO RETAILERS INVENTORY CO.
전화: 259-5822,255-8301(B) 252-2963(R) Mr. 오

INVENTORY – 인벤토리 –
주야불문 (공휴일 무관)
전화 : 532-7741(B), 536-6250(R) 호 세 환

인 쇄

칠성인쇄소, 칠성광고 대표 : 이 인 용
1559A Eglinton W. TOR. ONT. M6E 2G9
전화 : (B) 789-7351, 789-7352

스피디인쇄소
619 BLOOR ST. W.
전화 : 535-3520 곽 호 중

LEE'S 프린팅
최고의 품질, 저렴한 가격
2157A WESTON RD. WESTON 전화 : 244-2301

비들기사진식자인쇄소
87 Apache Trail Willowdale, Ont.
전화 : 493-8894 윤 종 대

자동차수리

MASTER AUTO BODY
사고차량 24시간 토잉, 사고시 보험관계 처리
수리중 차대여, 페인팅 (Oven Bake Finish)
교보북별데우. 95 Portland St. Etobicoke.
전화: 255-2111(B), 828-5001(R) 전 기 덕

ANCHOR AUTO BODY
▲완전한 차체수리 ▲무료견적 ▲두꺼운 페인팅
▲토잉 써비스 ▲Rust Proofing
846 RICHMOND ST. W. TOR.
전화: (B) 862-1433, (R) 493-8792 송 창 섭

ALLEN AUTO SERVICE
▲GENERAL AUTO SERVICE ▲TUNE-UP
▲BRAKE JOB ▲TIRE ▲TOWING SERVICE
▲ENGINE OVERHAUL ▲ELECTRIC PROBLEM
▲AUTOMATIC TRANSMISSION ▲OIL CHANGE
주소: 521 KEELE ST. TOR. 전화: 762-3247 정 용 태

O. K. AUTO BODY
자동차 사고 전문
138 SIXTEENTH ST. (New Toronto,)
전화: (B) 251-9889, (R) 242-4551 김 희 삼

자동차 출장수리 (오전및 주말)
INTERPROVINCIAL LICENCE MECHANIC
전화: 749-9749 Mr. 박

CENTRAL AUTO SERVICE 길 창 세
▲Tune up ▲Safty Inspection Certify ▲Professional Brake Service,
481 Dupont St. 532-3946

ROGERS GARAGE (자동차 수리일체)
20 Rogers Rd. 변 달 원
전화: 651-9324(B), 226-5430(R)

L & K AUTO COLLISION
주소 : 346 MUNSTER AVE.(BLOOR & 키플링)
전화 : B) 231-6951, R) 742-5406 오 세 호

CITY WIDE RADIATOR SERVICE 김 용 환
라지에타 – 개스탱크·히터·워터펌프 수리
전화 : 245-1978(B), 248-6032(R)

FIRST AUTO SERVICE
1521 QUEEN ST. W. 최 이 락, 김 한 호
전화: (B) 532-0200, (R) 533-2157

자동차 매매

GRANT BROWN
1575 Weston Rd.
전화 : 247-7161 이 한 구

MARVIN STARR
3132 Eglinton Av. E. Scarboro.
전화 : 264-2311 조 의 문

매매 부동산

복덕방 ROYAL TRUST CO.(로얄 트러스트)
곽 석 용 전화 : (B) 752-3111, (R) 298-2546

D.F.McALLISTER R.E.LTD. 김 시 성
투자전문(IC & I)
전화 : (B) 497-0600 (R) 298-8558

이대환부동산
전화 : 535-1251

이훈모부동산
전화 : 225-1204

황용현부동산
(주택매매, 사업체 일체)
전화 : (B) 449-8644~5, (R) 286-1548

ROYAL TRUST (유 복 영)
전화 : 762-8255 West 지역

CANADA PERMANENT (황 순 일)
전화 : 481-3443

A.E. LEPAGE (우 덕 이)
전화 : 741-9170

SINCERE REALTY INC.
David Chae (채 준 성)
전화:633-7892(R)497-8900(B)

장 의 사

장 의 사 (R.S. Kane Funeral Directors)
모든 장의관계 일체 취급
4812 Yonge St. E. (세파드 써브웨이) ☎ : 221-1159

카펫 · 카텐

싸다고 소문난 가나안 카텐·카페트·브라인드
2338 LAKESHORE BLVD. W. WINDOW SHADE
전화 : (B)252-4857 (R)252-6602 유 원 덕

카페트 크리닝: 카페트·소파·체어·자동차시트
최신 스팀샴푸 크리닝
전화 : 439-6277 Mr. 박

태 권 도

손명수 태권 · 합기도장 사범 : 손명수
2188 BLOOR ST. W. (At Runnymede 써브웨이)
전화 : 763-1155

임송학 태권도장
1963 WESTON RD. (1층)
전화 : 247-7577 (웨스톤 × 로렌스) 로브로앞

영정태권도장
1065 St. Clair Ave. W.
전화 : 652-0000 사범 : 정 영 수

완인태권도 完人跆拳道
교포 할인우대
이경태, 이현우 사범 직접책임지도
중앙도장 : 2281 YONGE ST. 전화 : 483-4002
동부도장 : 1865 LAWRENCE AVE. E. 전화: 759-2500

T V

아카데미 TV & STEREO CO.
SANSUI, BRAUN, ZENITH, TELEFUNKEN 등
◉ 특별대매출, ◉ 월부판매 알선
★ 동부 255 MORNINGSIDE AV. 282-2820
★ 서부 Finch West Mall(Finch & Weston) 745-5555

STEREO KING 전화 : 766-4770
◉ 고급 라디오, 전축 전문센타
◉ 전축 스테레오 수리전문
◉ 비데오 취급
2989 DUNDAS ST. W. (킬 × 던다스)

페인트 벽지(월페이퍼)

★봄맞이 집단장을 하시지 않으시렵니까?
★저렴한 가격과 우수한기술로써 성심껏 모시겠읍니다
★전화상담도 환영합니다.전화:745-6792(Mr.우)

다년간의 경험으로 성심 성의껏 봉사해 드리겠읍니다.
전화문의도 받읍니다.
전화 : 746-6962 (Mr. Lee) 페인트·월페이퍼

학 교

씨알한국인학교 (교장 유회자)
전화 : 960-0074

Y어린이학교 (김창열)
전화 : 536-1166

한 방 원

동양한약상사
20여년의 경험과 연구로 귀하의 문의에 응하겠읍니다.
정확한 진맥, 한방처방조제및 치료상담, 녹용, 웅담, 인삼, 우황청심환, 전자침, 지압치료, 자외선치료, 적외선치료
온타리오 면허소유 함병섭 M.C.I.C. R.M.
◉Downtown Office : (416)537-6685 8am~6 : 30pm
621 Bloor St. W. 한국관 맞은편 Toronto
◉Willowdale Office : (416)222-9485 7pm~10pm
244 Finch Ave. E. (Yonge St.에서 Bayview근처)
VISA 또는 MASTER CHARGE 환영

안강용한약건재상
중국한의사 4명으로 정확한 진찰, 신속한 효과
보약제와 신경통약이 다량 수입되었읍니다.
교민들에게 특별 염가 제공코저 합니다.
전화문의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6일영업 아침10시~저녁8시 (수요일 휴업)
차이나타운내 (465 DUNDAS W.)
전화 : 596-8407, 596-7373 최 호 권

하르빈한약상사
20년간 한의사 경험(중국의사 자격증 소유)
20년간 하르빈한의대학교수
정확한 진단과 처방
한약으로 암환자를 치료
중국본토에서 한약 직수입
(사향, 경명, 주사, 우황, 진주, 웅담, 인삼, 녹용등)
643A BLOOR ST. W. (신용조합옆)
전화 : (B)536-6854, (R)531-7505 서 춘봉

보광한약방
30여년의 (부산) 임상경험을 토대로 교민여러분의 건강관리에 미력하나마 이바지하기 위해 친근한 상담역이 되고자 하오니 한약및 침구에 대한 격의 없는 상담을 바랍니다.
주소 : 92 Brantwood Drive (스카보로 제너랄병원근처)
전화 : 439-6717 김 남 집

서울한의원
한의사 김 장 석
전화 : 1-212-762-4694 (New York, U. S. A.)

침뜸, 디스크, 좌골신경통, 관절염 (내장질환) 박 영 숙
진료시간 : 매일 10AM~8PM 전화 : 922-7090
700 ONTARIO ST. #517(St. Jamestown)

아세아한약상사
645 Bloor St. W.
전화 : 530-0522 조 지 섭

회계사무소

YOUNG C. LEE M.B.A.R.I.A. "METRO WIDE"
ACCOUNTING & TAX SERVICES
8년간의 캐나다 회계및 세금조정, 현 CA Office근무중
BOOKKEEPING & ACCOUNTING
MANAGEMENT CONSULTING, INCOME TAX PREPARATION
전화 : 239-6802 이 영 철

김인규회계사무소 ACCOUNTING & TAX
501 Yonge St. #207. Toronto
전화 : 960-5736(B), 844-0178(R)

정필주회계사무소
전 C. A. FIRM ACCOUNTANT
4750 Jane St. Suite No. 608 전화 : 661-1819

최태권종합회계사무소 (ACCOUNTING & TAX)
개인세무및 보고서작성, 사업회계및 장부정리
637 A BLOOR W. 전화 : 533-7573(B)

김명숙 회계사무소
484 BLOOR ST. W. TOR.
전화: 537-3171(B), 669-2710(R)

* 한국일보 안내광고 *

아세아 한약방
특수한약처방및 침술.
물리치료, 부인병
신경통 각종보약.
678 BLOOR ST. W.
☎ : 530-0522(B)
531-4165(R)

최고의 발행부수와 최대의 광고효과를 자랑하는

한국안내광고

?
광고주를 찾읍니다.

구인

신원보증을 확실히 할수 있는
21세~25세 사이의
가정을 내집같이 돌봐주실 용모단
정한 여자분 구함
전화 : 298-6117, 598-4143

씨알 한국인 여름학교
동쪽과 미시사가에서 운전하실 분 두분 구함
영어, 수학과 또는 운동코치를 겸하므로 Full Time Job이 되겠으며 자필이력서를 150 Madison Ave. 로 보내주십시요. (주당: $180)

디자이너를 위한 손으로 짜는(Handknitter)
재봉일 하실분.(영어를 할수 있어야함)
전화 : 487-7779 Kathy

Shoe Repair Store에서 일하실분 구함
263 Morningside Ave.
전화 : 281-2217 (저녁7시이후 연락바람)

일본식당 Kitchen Helper 구함(남자분)
4 Avenue Rd. Park plaza Hotel
전화 : 960-9035

입주하셔서 아기들 (4살, 1살)보아주실분 구함.
특별히 우대해 드리겠읍니다.(Jane+Weston)
전화 : 447-1460 (세시이후 연락바람)

일본식당에서 밤에 접시닦으실 분 구함. 월.화.수(오후4시~밤11시) 오후2시지나서 전화해 주시기 바람
전화 : 421-6016 (Masuda)

청소 하청하실분 구합니다.
월 $500씩 두곳. 경험 1년이상 있으신분
Hwy 401 × 이스링톤. 전화 : 493-0320, 444-1322

가게에서 일하실 남자분 구함
(오후 6시~밤11시) Queen St. E.
전화 : 466-3995

Store Manager 구함
월 $2,500 이상 보장. 몬트리올지역. 유학생도 가함.
전화 : 932-7775, 524-7775

꼭히 서부지역에 사시는 분으로 지렁이잡이에 관심있으신분 연락바람. (매주 금요일지불함)
전화 : 656-8937 (Annagickopoulos)

지렁이 (Weston & Finch 지역)
전화 : 741-2557

다운타운에 거주하시는 지렁이 잡으실분 구함
(유경험자 우대함).(현찰지불) 전화 : 533-7759 Mr. 박
지렁이 잡으러가는 지역에 좋은 농장이 많음

경험있는 여자자켓 만드실 Full Time 재봉사 구함
(주급 : $220부터~)
전화 : 368-2819 (Mr. Wong)

지렁이 잡으실분. 당일지불(Cash)
친절하고 편안한 서비스로 우대함. 경험자 환영
전화 : 537-6345(홍), 531-0773(김)

Full Time Helper 구함
시간: 3:00 p.m-12:00 p.m 위치: Queen×Triller
전화 : 532-6143, 532-9638

Mac's Milk Store에서 일하실 캐셔구함. (주3일 : 금. 토. 일)
26시간 1 Week
전화 : 221-9051

유경험 여자캐셔 구함
1220 Davenport Rd.
전화 : 656-3020

일본음식점에서 부엌일 도우실분과
Handyman (Part time) 구함
195 Richmond St. W. 전화: 977-9519 Harry

피아노 레슨 학생구함
경력 : A.R.C.T. U Of T B.M. Performance
전화 : 531-4579 신 수명

사람을 찾음.
정경희(여) 부군 MR. 양.
부산태생으로 10여년전에 오타와에서 결혼
딸이 10~12살 정도 됐을것으로 짐작.
찾는이: 미국 발티모 최선희
집: 1-301-256-9088
B: 1-301-686-0192
혹은 몬트리얼 조병철
집: 1-514-486-7945
B: 1-514-484-3541

구혼

결혼상담실 (한국기원 내) 상담자 : 최규찬 김운서
653A BLOOR ST. W. TORONTO.
전화 : 533-0168 매일오후 1시~10시

매매및 양도

Mile Store 매매
주매상 : $4,500. 리스 : 5년+옵션5년
394 Browns Line. Etobicoke. Mr. Kim

Mac's Milk 급매
전화 : (B) 368-0686. (R) 292-2024

성업중인 식당(Tavern)급매(L.L.B.O.있음)
리스: 18년. 주매상: $10,000이상.
좌석: 150(1층). 218(Banquet Hall)
아스킹 프라이스: $300,000 (Cash일 경우 $250,000)
Downpayment : $150,000 이상 요구
위치: Birchmount와 남쪽 Eglinton 전화 : 222-7494
(12:00-2:00의 점심시간은 피해서 해주실 것)

성능좋고 속도빠른 사진 식자기
(SAKEN SPICA - K)를 급매합니다.
문의처 : 한국일보사
전화 : 533-2364 Mrs. 김

Becker 후렌차이즈 스토아 매매(스카브로지역)
꼭 관심 있으신분은 오후6시이후 연락바람
전화 : 755-8852

그로서리 스토아 매매
주매상 : $3,500
전화 : 264-4431 (오후5시이후 연락 바람)

무스코카지역에 있는 부동산 매매
그로서리가게(과일. 채소등)와 집
가족끼리 운영하기에 알맞은 사업
큰 파킹장이 옆에 있음
※관심있으신 분은 부라운·로버트에게 전화주세요.
전화 : 789-1724

"가 구" 직접 공장에서 만들어 파는 까닭에 여러모로 고객에게 도움을 드립니다.
1) 3 pcs. Wall Unit. $199
2) 7개의 설합달린 책상 $65
3) 거울달린 화장대 $79
4) Bed room set(9 pcs) with mattress $399
5) 5 pcs. Kitchen Set (식탁 + 4개의 의자) $89
6) 쇼파 4 pcs. $399 etc.
937 QUEEN ST. W.
전화 : 364-0984 REMA FURNITURE

사정상 급매
그로서리 & 버라이어티 스토아 매매(Milk Store)
Whitby & Oshawa 전화 : 282-7596(Mr. 황)

---

3 Bed Room 건물딸린 Variety Store 급매
Hamilton Downtown Busy area.
주매상 : $4,200~$4,500 Extra 순수입 : $900~$1,200(월)
Ask Mr. Kim 전화 : 1-525-2115

버라이어티 스토아 매매(Hamilton지역)
주매상: $4,500. 아스킹: $45,000+스탁. 리스: 7년+10년(옵션)
리스: 7년+10년(옵션) 전화 : 1-388-4825 (Mr. 유)

버라이어티 스토아 급매
주매상 : $4,200-4,500. 아스킹 : $29,000+스탁
1000 Pape Ave.(꼭히 관심있으신분 내방바람)

여자 혼자할 수 있는 그로서리 겸한 버라이어티 급매. 시설비만 받고 매매할 예정임.(꼭히 관심있는 분 내방바람)
61 Main St.

Fast Take Out Food
중국음식도 메뉴에 넣을수 있음. 좋은조건의 리스
전화 : 633-2981

성업중인 쥬니어 데파트먼트 스토아 급매
Open Hour : 월-토 (9:00a.m-9:00p.m) 꼭히 관심있는분의 연락바람. 전화 : 1-576-7021, 1-576-9899(밤9시이후)

성업중인 버라이어티 스토아 급매
주매상: $3,000 렌트: $300(Mon.) 리스: 5년
2988 Lakeshore Blvd. W.

자동차 급매
81년도 사이·스카이라크 6기통·13,000Km
전화 : 249-6327 (Mr. Kim)

:작은 그로서리 스토아 가정형편상 급매
가격 : $19,000 + 스탁. 비데오 머신도 있음.
1430 Dundas St. W.(Gladstone코너: 관심있는분 내방바람)

BIBLE STORY (전 10권) Set $240.--
전화 : 769-4366 (오후 6시이후)

Using Language Laboratory. You can learn English within 3months (집에서)
전화 : 533-7324, 533-4966

〈매매 또는 렌트〉
타 사업관계로 로타리오머신이있는 스토아와 2베드룸 급매
주매상 $3,500 좋은조건에 양도하겠음. 64 Kingston Road.

비데오 아케이드 쎄일
15대 머신 담배 Refreshment의 Licence를 지님
전화 : 266-9770

믿고 투자할수 있는 좋은기회!
급성장하는 지역의 Pharmacy for sale with building.
위치: On Weston Rd. 전화 : 781-2560(Mr. Balin)

Kingston Rd. 와 Victoria Park Corner에
위치한 버라이어티 스토아 급매
전화 : 698-0844 언제든지 연락요망

OPEN 1년된 버라이어티 스토아
매도코저 함.
주매상 $3,500 렌트 $500
두대의 비데오 머신에서 렌트비 카바함.
전화 : 961-9780(B) (오후6시안으로)

Variety & Hardware Store 매매
주매상: $9000이상 권리금및 Stock은 All Cash
요구. No Mortgage! 리스 4년+옵션 5년
361 Carrville Road. Tornhill(Hill Crest Mall옆)
꼭히 관심있으신분 내방바람.

한국일보 안내광고를 이용하세요.
즉시 좋은 결과를 얻으실 것입니다.

사무실·점포 렌트

사무실렌트 위치:20 Mobile Dr(한인회관) 크기:1)3.6m×3.8m 2)2.6m×4.4m 위의 방이 같이옆에 위치해서 있으며 함께 또는 각기 임대 할수도 있음. 전화 : 755-9288

하우스 렌트

교통이 편리한 다운타운 지역.
Furnished 1Bed Room($달 180)독신환영
전화 : 763-3289, 365-1489

---

1 BedRoom & 2 BedRoom Apt.
College & Ossington Area.
$350-$450(M) 전화 : 531-6183

클린톤하우스 693 Bloor St. W.
일.주.월. 일정한 기간에 상관없이 Rent하실분.
Christie Subway에서 100m거리 아리랑식당앞.
꼭히 관심있으신분 내방바람.

신물및 상점(그로서리 & 버라이어티) 급매
현주매상 : $8,500~$8,800 아스킹 : $229,500
로타리오 머신 (별도)
237 ParkLawn Rd.(관심있으신분 내방바람)

새로운 장비 갖춘 Mr. Donuts Franchise
위치 : Young St. North Thornhill
넓이 : 1500 Sq. Feet
영업시간 : 6 : 30 Open - (24 Hours)
좋은조건의 Lease. Call Mr. Pridham 833-3095
The Gormley Group Realestate

버거 펙토리 매매
위치 : 쏘닝싸이드×세파드. Call Jhon 또는 Art.
오후5시에서 9시사이에 전화주세요. 전화 : 281-0288

아이스크림집 매매
전화 : 752-4766(Mr. Bang)

Variety & Grocery Store For Sale
주매상 : $4,000이상. Rent & Lease 좋은조건
704 Wilson Ave.(꼭히 관심있으신분 내방바람)

Milk & 버라이어티 스토아 매매
3 King St. E. (Bowman Ville. 오샤와 지역)
관심있으신분 내방바람

---

1. 대지와 건물및 도너스숍
넓은 대지에 집이나 스토어 건축가능. 40만불 요구
다운페이 15만불
2. 주매상 $6,500의 DONUTS SHOP
Long Lease. Downpayment : $100,000 아스킹 : $230,000
3. 주매상 $8,000의 DONUTS SHOP
Downpayment : $100,000 아스킹 : $290,000
이훈모부동산 전화 : 225-1204

가구점

ECOSYS FURNITURE
2300 YONGE ST.
전화 : 486-0397 김 만 구

LEON'S 가구·카페트·전자제품
20 McLevin Ave(세파드×마캄)
전화 : (B) 291-3818. (R) 749-9687, 746-0981 조석민

간판

각종 고급간판 제작및 수리 (CITYLITE SIGNS CO.)
777 WARDEN AVE.
전화 : 751-9236. 757-2106 홍 진 표

SIGN & GRAPHIC
건축설계 상담시공
바우종합광고회사 637A BLOOR ST. W.
전화 : 535-0647, 465-1722 송 관 현

꽃집

다우스 꽃집 (DAWES FLORIST)
◉각종 어랜지먼트 & 각종플랜트 ◉각처 주문배달함
464 DAWES RD. (VICTORIA PK. & ST. CLAIR)
TORONTO. ONT. M4B 2E9
전화: 751-5851(B) 757-6711(R) 이 동 환

제인·파크 꽃집 (JANE PARK PLAZA안)
각종파티, 생일, 결혼, 장례꽃주문·배달함.
875 JANE ST. TOR. 전화: B) 769-0609 R) 242-5194(여정웅)

정 손 꽃 집 MARKLANDWOOD PLAZA 안
4335 BLOOR ST. W. ETOBICOKE
전화: 622-8516(B). 279-3719(R) 허소피아

도서판매

World Book(백과사전)
☎ : 533-2364(Mrs. 김)

메리야스

온가족이 애용하는 고급내의 쌍방울 메리야스
602 BLOOR ST. W.
전화 : 532-5394(B). 742-0737(R)

쌍방울 메리야스
Weston Mall (웨스톤 × 휜치)
전화 : 746-3458

미용

ANNIE'S BEAUTY CARE CENTER
Skin Care. Ear Piercing. Fashion Make up.
각종 미용상담에 관해 전화문의도 받읍니다.
6093 Yonge St.(영 × 휜치)
전화 : 223-7884 Mrs. Lee

킴스미용실
(코리아하우스 뒤)
전화 : 532-7094(B) 438-0628 (R) Mrs.Oh

소니아미용실 신부화장. 남녀커트. 파마전문
2085 Lawrence Ave. E. Jovan Plaza unit 3 (우체국옆)
전화 : (B)759-8854. (R)755-2759 미세스 허

로마노미용실 김 조 자
330 Dixon Rd. W.
전화 : 248-2957(B) 247-6875(R)

스타미용실 미세스 김
남녀 커트. 파마전문. 9am-8pm. 일. 월요일 휴업
2437 Finch Ave. W. (B)741-4410. (R)742-0827

마야미용실 남녀커트. 파마및 스타일 신산
631 Bloor St. W. (시옥이행사2층)
전화 : 588-1480(B). 243-8026(R)

백화점

미 도 파
454 BLOOR ST. W. 전화 : 536-1692

번역및통역

번역. 통역 (통역은 월요일만 합니다.)
CHARLES YU (유좌서) 10 SUNRISE AVE. UNIT 203.
M4A 2R1 전화 : 759-9505 (5시 이후)

보험

CANADA LIFE (강학수)
전화 : 868-0922

SUN LIFE (김신명)
전화 : 922-3111

김종조 종합보험
전화 : 535-7200

임페리알 LIFE (김흥량)
전화 : 961-3774

SUN LIFE (백용빈)
전화 : 497-3800

조규혁 종합보험
전화 : 233-6236

SUN LIFE (윤호영)
전화 : 922-3111

사무용구및 계산기

SKY WAY Business Machines
215 Carlingview Dr. Unit 109 Rexdale
전화 : 675-1295 김 인환

사진

KIM'S CAMERA 여권사진 즉석촬영
각종카메라 · 전자제품 판매및 수리, 각종 증명사진
619 BLOOR ST. W. 전화 : 534-1085 김 춘 탁

새 한 칼 라 현 상 소 전화 : 535-7772
결혼 · 돌사진 · 각종 증명사진 · 회갑 · 출장환영
현상 인화 확대. 비데오 촬영 630 BLOOR ST. W. TOR.

무 지 개 칼 라
COMMERCIAL · ART PHOTOS · WEDDINGS VIDEO 촬영
36 Neapolitan dr. 전화 : 438-4435 오후3시30분~오후9시30분

선물 센타

거 북 이
617 BLOOR ST. W. 전화 : 535-2143

빅 · 세 븐
678 BLOOR ST. W. 전화 : 533-7966

MISTER O FOR MEN
전화 : 964-2606. 869-0589. 275-2187

소독

ZAP SUREKILLER 전화: 368-9018. 366-0960
바퀴벌레 개미등 각종벌레 100% 효과
한국식품점 또는 온타리오 전역 공급. 주문배수

스포츠

브랜든운동구점 (종합운동구점)
각종단체 유니폼및 트로피. 골프. 스키장비
일체 취급
337 BLOOR ST. W. 전화 : 598-3732 이건영

MUNAMI TROPHY & SPORT
각종트로피및 상패 50% OFF
GOLF PRO SHOP
영업시간 : 월~금: 10a.m.~8p.m. 토: 10a.m.~6p.m.
880 Ellesmere Rd. Scarboro. 전화 : 298-3584

시계·귀금속 수리

M & J JEWELLERY REPAIR 시계및 귀금속 수리
1530 Albion Rd. Rexdale (Kipling × Albion)
전화 : 742-1205(B). 745-1632(R) Mr. 마

당신기업은 불황을 모르는
사업체로 키우고 싶지 않읍니까?
안내광고(CLASSIFIED)는 저렴한 비용으로
놀라운 광고효과를 드립니다.
전화 : (416)533-2361~4

*** 한국일보 안내광고 ***

2ND CLASS MAIL NO. 5248